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린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0월 28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95 호

"아직도 방송매체에서 불교가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자들이 드물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90년 창립때부터 보수도 없이 보리방송모니터회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행여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왜곡 방송될까봐 눈과 귀를 종긋 세우고 사는 자원봉사자 조채희씨(35).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조씨는 10여년전 개인 수행을 하고 싶어 방생선원에 들어가 정진하는 동안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가 사회 참여 운동에 무관심 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조씨가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보람있게 기억하는 것은 93년 MBC-TV 불법 선교방송을 중단시킨 일. 당시 MBC-TV 프로였던 '행복에로의 초대'는 매주 일요일마다 조용기목사를 출연시킨 선교방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본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회장과 조씨는 이는 방송법을 위반한 특정 종교의 선교 방송이라는 서한과 공문을 각 사회단체와 정부 관련기관 및 방송국 등에 수 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MBC에서는 방송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또 95년에는 공중파 방송에 나가는 '신원에벤에셀' 의류 광고에 '주일날은 쉽니다'라는 특정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등장하자 이 역시 정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 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방송 중단 명령을 내린것도 조씨에겐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도돼 전해지는 것은 불자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적극 막아야 합니다"

현재 조씨는 방송 모니터일 외에도 보리방송모니터회보 편집, 모니터 요원 관리, 일반 시민단체와의 교류 등에 힘쓰며 10여년전 스스로 서원했던 불교 사회 운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방송모니터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기존거래 없이도 빠르고 공정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화 051)633-9120~3
불교신협 부산동구 범일2동 834-20

한-일 불교대학협 구성

11월2·3일 동국대서 12개 대학 총장회의
'21세기 불교계대학 나아갈 방향' 기념강연

한국과 일본의 불교대학들이 '한일(韓日)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체'를 구성, 양국의 불교 발전과 더불어 불교대학간의 활발한 교류 및 도약을 위한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동국대 중앙승가대 위덕대 원광대 등 국내 4개 대학과 용곡대(龍谷大) 구택대(駒澤大) 대정대(大正大) 등 일본 8개 대학 총장들은 11월2~3일 동국대에서 총장회의를 갖고 한·일 불교철학계 총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체' 구성은 과거 한국불교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일간의 활발했던 교류 관계를 되살리는 동시에 앞으로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장회의에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 중앙승가대 총장 지하스님, 위덕대 손제석 총장, 원광대 송천은 총장과 용곡대 기타바타케 덴세이 총장, 구택대 아메미야 마사아 총장, 대정대 무라나카 유우쇼 총장, 입정대(立正大) 기타가와 덴죠 부총장, 불교대(佛敎大) 다카하시 코오지 총장, 대곡대(大谷大) 구르베 테루오 총장 등이 참석한다.

불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21세기를 맞는 한·일 양국 불교계 대학의 역할과 위상 등을 논의하는 공식창구가 될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체'는 97년 9월,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일본 불교철학계 대학협의체 초청을 받아 참석한 특별강연회에서 일본측에 처음 제안, 지금까지 발족을 위한 준비가 진행돼 왔다. 일본에는 현재 78개 불교계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이 중 53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송석구 총장은 "이번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 대학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협의체 구성 후, 아시아 각 나라의 대학협의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회의 첫날에는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21세기 불교계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념강연회가 열린다. 송석구 총장과 기타바타케 덴세이 총장이 주제강연에 나서며, 3일에는 협의체 구성과 앞으로의 운영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스님들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21세기 정보화사회속에서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님 전산교육을 19일~23일 오후 2시~5시 동국대 전산원 멀티미디어실에서 실시했다. 처음 실시된 이번 전산교육은 각 본사의 주요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 종단 교육기관 교역자 스님 등 27명이 참가해 컴퓨터의 개념 및 기본사용법, 문서편집법, PC통신, 인터넷 활용법 등을 습습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황룡사지등 7곳 사적공원 조성

문화부 국감자료

문화체육부(장관 신낙균)가 2001년까지 문화예산의 1% 확대, 역사문화 사적공원 조성등 10대과제를 발표했다. 문화부는 2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밝혔다. 2003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경주 황룡사지를 비롯한 7개 주요사적공원 조성, 국악FM방송 개설, 도서관 박물관 확충 등의 문화 기반시설 확보가 포함됐다. 임연태 기자

송석구총장 재선

22일 동국학원이사회



동국대 송석구 총장이 내년 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제14대 총장으로 재선출됐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22일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송석구 現 총장을 차기 총장에 재선출했다. 이사회는 일산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 사업의 원만한 회향은 물론, 송석구 총장이 지난 4년의 임기동안 3년연속 교육부 선정 우수대학 평가 등을 통해 학교위상을 강화하는데 커온 공로를 인정해 재선출에 합의했다. 김정은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국보 제55호),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 -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 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O(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월주스님 3선반대 공동노력"

월탄-설조-지선스님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의향을 밝혀온 월탄스님, 설조스님, 지선스님이 월주스님 3선 반대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세스님은 22일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출마예정 후보 3인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선문제에 대해 원로대덕 스님들과 종도들의 의견을 받들어 책임있게 나서기로 함과 동시에 종단이 하루빨리 안정과 제자리로 돌아 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스님은 이와관련, △3선문제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3선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전통에 입각한 대중공사를 통해 해결한다.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여법하게 치뤄져야 한다.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더라도 사부대중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등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실천승가회 · 연대회의에 질의

월주스님 후보 추대위

송월주총무원장후보추대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천불교승가회와 연대회의에 공개질의합니다' 제하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추대위는 질의서에서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 연대회의에 대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본연의 입지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천불교승가회에 대해 △지난4년간 종단개혁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개혁을 표방하면서 광소 대중의 지탄을 받고 있는 승려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진관스님과 해종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사면복권 추진에 내용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는가, △쟁점사항을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언론에 이번 선거를 본규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선전하는 것은 해종행위라 생각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보냈다. <선거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여성 실직자 쉼터 2곳 개설 23면
조계종 종회의원 후보명단 3면

공·동·기·자·회·견·문

송월주 총무원장 3선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탄,설조,지선

먼저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 중진스님 및 종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 종단은 현 총무원장의 3선에 대한 문제로 내홍에 휩싸여 있으며 종론의 분열과 종단의 혼란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총무원장의 3선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된 데에는 우선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저지로 시작되었던 개혁불사의 최대 수혜자이자, 제28대 총무원장 4년 임기중 종단분열과 실정의 당사자가 종도들의 여론과 종헌종법을 무시하며 또다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종단을 이끌고자 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 이전에 책임있는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맞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현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 3인은 오늘 오전 긴급회동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3선 문제에 대해서 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의견을 받들어 책임있게 나서기로함과 동시에 종단이 하루빨리 안정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3선문제의 정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3선문제의 정리없이는 우리 종단이 혼란의 불씨를 지닌채 맞바람을 안고가는 형국에 처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종단 혼란의 또다른 원인제공자가 되는 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단의 역량을 살펴볼 때 선거 개시일은 11월 2일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원로중진스님들의 지혜와 종도들의 의견을 진실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구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3인 또한 출마 예상자보다는 종단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당사자인 송월주 총무원장 또한 종도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아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2. 3선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여법한 전통에 입각한 '대중공사'를 통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단 지도자 대화모임'을 제한하며 이 자리는 3선문제의 당사자인 송월주 총무원장스님과 우리 3인 그리고 종단의 중진스님들이 참석하여 대중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에게 대승적 견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분명한 의견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3.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반드시 여법하게 치뤄져야 한다.

오늘 우리 3인이 전격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종헌종법을 수호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의 기틀을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3인은 3선문제로 인한 종헌 유린사태를 막고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총무원장 선거는 반드시 여법하게 치러낼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누가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사부대중 모두가 자랑스럽게 느낄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지금 종단내외의 상황은 우리의 결단과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각자 자신이 할수 있는 말은 바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용맹정진 합시다.

불기 2542년 10월 22일

월탄, 설조, 지선

사 설

선거를 하는 이유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공고된 이래 지금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승단의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크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개혁 2기의 종단 살림을 맡을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을 뽑는 중대사일 뿐 아니라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불교가 중흥의 큰 길로 향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분기점에 선 막중한 대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제에 공명정대하고 성숙한 선거를 치름으로써 불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흥의 새로운 기점이 되도록 선거 당사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의 양태는 마치 정치판의 못된 양상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며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승단의 선거는 세속과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 모범을 보여야 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신적인, 최고의 성숙을 지향하는 승단의 선거모습이 우리들이 항상 겪고 있는 세속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불교의 모습이 아니다. 자천타천 입후보자들이 서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자세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속의 정치판 선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르지 못한 무리한 주장들은 결국 또다른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불교계의 이러한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승가의 모든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되어야 한다. 오로지 머리와 말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행동은 거리가 멀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아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미주알 고주알 다 들춰내어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옳지 않다. 선거도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여기고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종교적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표가 많고 적다는 산술적인 선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종교적 의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가깝게는 승단의 모든 스님들에게 넓게는 모든 불교도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불교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래를 엮을 꿈을 실어 주어야 한다.

선거를 왜 하는지 근본목적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는다는 것도 결국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불국정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선거가 세속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꿈을 심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와 다를 바가 없다. 속된 행동은 그래서 반(反)포교적이며 반불교적인 것이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선의의 경쟁은 물론 선거 결과에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 모든 조계종의 선거는 전 불자들이 하나되는 의식이란 것을 깊이 새기자. 불자들의 역량을 한 계단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자. 지나친 과열이나 아집, 반목적인 선거행태를 지양하고 출가했던 당시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진정 불교의 미래를 위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들의 각성과 선거권자 모두의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

청주 노봉사 훼불방화 경찰-보험사 사건왜곡

"창건주 불두 감췄다" 망언도…교계 대응 절실

청주 노봉사 훼불사건과 관련 청주서부경찰서 이창태형사가 13일 사찰을 찾아 창건주인 노대도행보살에게 불두를 되돌려 주며 "불두를 불나기전 요사채에 감췄다"며 사찰측 고의방화로 왜곡하려는 망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보험사도 고의적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보험사는 노봉사 훼불방화사건을 사찰측의 고의방화임을 은근히 강조하며 미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회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모종의 연계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역불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9월 9일 주지인 원행스님이 법당뒤에서 불두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으나 담당형사가 휴가중이라며 출동하지 않았고 9월 10일에도 인근파출소에 신고했으나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경찰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9월 12일 교계기자단과의 통화에서 경찰서측은 "불두발견 사실을 아는바 없다"고 발뺌하다 계속추궁하자 "형사계장은 알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후 청주서부경찰서 서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한 담당형사들은 노봉사 현장을 방문하여 불두를 회수해 갔다.

노봉사주지 원행스님은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초동수사부터 소홀히 진행 시키며 계속해서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담당형사들이 사건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며 "보험회사인 해동화재도 선학원에 등록된 노봉사를 종단문제(조계종과 선학원 대립시)와 연계시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노봉사는 6월 8일 오전 11시30분 원인모를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됐지만 경찰은 방화의혹이 짙다며 수사를 부진하게 진행하고 보험사는 화인이 밝혀지지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9월 9일 법당인근 야산에서 대웅전에 있던 불상의 불두가 예리한 톱으로 잘린채 발견돼 훼불사건일 가능성이 높아 사찰측에서 재수사를 의뢰한바 있다.〈본지 178호, 190호 22면 참조〉

청주시 김모불자는 "노봉사 훼불사건을 경찰이 축소하고 미온적인 대처하여 최근 또 보현사에 훼불사건이 발생했다"며 "도대체 대통령이 종교편향을 근절하겠다는 발표를 한 국민정부시대에도 경찰이 이렇게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방송작가 불교학술 세미나

조계종포교원은 21~22일 1박2일동안 고창 선운사에서 '제15회 방송작가 불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을 비롯 70여명의 방송작가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초의문화재단 혜성스님의 '다도의 이해'란 주제 발표에 이어 행다법 시범과 차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또 구세대비의 불교정신을 작품속에 담아냄으로써 불교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KSB-TV '용의 눈물'의 작가 이환경(49)씨와 KBS라디오 '문화살롱'의 이윤수작가(37)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美 종교학회 '한국훼불' 안건 채택

'종교화합' 권고문 준비

미국종교학회가 11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훼불사건을 안건으로 채택, 논의한다.

미국종교학회 회원인 존 버스롱교수(보스턴대 신학부, 불교-기독교학회 부회장)은 19일 세종대 테데스코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올랜도에서 11월 열리는 미극종교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교에 공격을 가한 일'을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버스롱교수는 또 "자비심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행동해야 한다"는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같은(훼불을 지칭) 비극적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테데스코교수는 96년 미국 시카코에서 열린 불교-기독교학회 국제회의에 참가, 당시 화계사 본원정사 삼성암 방화사건을 보고해 성명서를 채택케 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미국종교학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타종교인에 의한 훼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촉구하는 권고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종교학회에는 미국내의 종교학자를 비롯 각국의 종교학자 및 종교인 등 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종교학회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육·해·공 군종장교 150여명 참석

군 종교화합 세미나 열린다

11월 17·18일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화합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군종세미나가 국방부군종실(실장 박성대신부) 주최로 11월 17~1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정례적인 군종장교 보수교육을 세미나로 변경해 열리는 것으로 육·해·공군의 영관급 군종장교 1백50여명이 참석, 주제발표와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마치며 종교화합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 및 발표자는 '21세기 군종병과의 나아갈 길'(박성대) '종교간 대화와 군종의 역할'(윤이흠 서울대교수) '종교화합을 위한 불교의 제언'(정병조 동국대부총장) '군내 종교간 공존을 위한 군종의 과제'(정명조 천주교 군종교구장)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전호진 고신대교수) 등이다. 국방부군종실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종교편향 사건으로 군내 단결을 저해할 우려가 증대되어 군종의 역할을 모색키 위해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연백문도회 발족

문장-서옹스님
회장-밀운스님

조선 후기 연담·백파스님의 계맥을 잇는 연백문도회가 19일 백양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됐다.

선운사 대흥사 백양사 봉선사 조계사 도선사에서 참석한 1백30여명의 문손들이 함께한 이날 총회에서는 문장에 서옹스님(백양사 방장), 회장에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을 추대했다. 또 혜산(선운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 보선(대흥사 주지) 동광(도선사 주지) 현근(조계사 주지)스님을 부회장단으로 구성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전국의 국립공원내에 이미 형성된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거나 개발이 허용되는 등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7~20일 전국 4개 도시를 순회하며 가진 '공원구역 재조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 전면적을 재조정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연태 기자

영적문제 해답주는 종교 불교-천주교-개신교 順

갤럽, 비종교인 1천여명 조사

국민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비종교인들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운데 '개인 영적문제에 해답'을 주는 측면에서 불교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신교단체인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후원으로 한국갤럽이 6대도시 비종교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종교별 이미지평가'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개인의 영적문제에 해답을 가장 잘 주는 종교'부문에서는 불교(20.5%)가 천주교(19.0%), 개신교(18.0%)보다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부문에서 개신교(53.2%), 천주교(40.3%)보다 낮은 37.1%로 드러났다. 어느 종교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배타성을 갖는가'를 묻는 질문에 불교(14.6%)가 가장 배타성이 적은 종교라고 답했으며, 배타성이 가장 많은 종교로 개신교(33.2%)를 지적했다. '종교지도자 자질'은 천주교(40.8%), 불교(26.7%), 개신교(22.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갤럽의 '각 종교별 인구비 및 지난 10년간 증가율' 조사에서 비종교인 비율은 47.2%로 나타났으며, 각종교인 비율은 불교(23.5%), 개신교(20.7%), 천주교(7.5%)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신자증가율은 불교가 2.6%로 개신교(1.5%), 천주교(0.5%)에 비해 약진했으며,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멋진 합작품을…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성 명 서

- 해종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 움직임에 경고한다 -

최근 제29대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이미 해종행위로 징계를 받은 몇몇 전직승려들과 일부 후보진영에서 함께 소위 '사면·복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원로스님들의 서명을 받으려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이는 94년 종단개혁의 의의와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개혁에 동참했던 사부대중의 희생과 헌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요, 모처럼 이룬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기조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해종행위다.

송월주 총무원장후보 추대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구 종권의 핵심부인 서의현, 황진경 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그 잔류 집단과 눈앞의 이익 앞에 매종매불하는 일부 후보진영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선거시국의 다소 혼란한 상황을 틈타 벌어지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사부대중 앞에 밝힌다.

종단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해종분자들에게 고한다!

소위 '대한불교조계종 종도회'라는 유령단체의 명의로 배포됐던 석명서에서 밝힌 바대로 그들의 주장은 94년 종단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현 종단체제를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현 종단체제를 지탱하고 지지하는 대다수 종도들과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주장으로, 부처님법에 근거한 명분도 기본적인 역사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수 해종분자들의 자족적인 바램에 다름 아니다.

현재 종단은 화합과 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화합과 안정은 칼처럼 시퍼렇게 날이 서있는 철저한 계율의식과 종단의 엄한 규율의 바탕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4년 전에 깡패를 동원해 사부대중의 순수한 의지를 폭도로 몰아 붙였던 저들의 만행을 벌써 망각한 종도는 종단 안에 한 사람도 없다. 소수의 해종분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들을 구제하는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종단의 종통과 규율은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종도들은 누구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몰지각하고 염치없는 태도로 종단의 개혁을 부정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선거시국을 틈타 종단에 혼란을 부추기는 해종분자 특유의 권모술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해종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더 이상 종도들을 현혹하거나 물질적인 매수를 통해 종단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돌아가 스스로의 반성을 화두삼아 근신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사면과 복권을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도들로부터 그나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슴깊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통고하는 바다.

일부 후보진영은 해종분자들과의 물밑거래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종책선거에 나서라!

종단개혁을 이룬 지 채 5년도 지나기 전에 자신들의 사면과 복권을 주장하는 해종분자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과의 투명하지 못한 물밑거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총무원장 선거를 의도적으로 과열시키고 투표를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후보진영의 부도덕한 태도다.

해종분자들은 부패한 국가권력과 결탁하고 종단의 일인지배하의 사조직처럼 운영했던 사실은 철저히 감추면서 종도들에게는 용서와 온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말의 반성의 빛도 내비치지 않고 아직도 안하무인의 주장을 펴고 있는 그들을 상대로 온정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온정과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야합과 해종행위일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후보진영에서 원로회의 의원스님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으려는 해종분자들의 행보에 함께 동행하거나, 이미 4월부터 진행된 사면·복권 움직임에 가세해 신문에 투고했던 사실은 야합 혹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으로 21세기 종단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제29대 총무원장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보에 다름 아니다.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해종행위와 다름없는 이러한 사면·복권 움직임에 편승한 뒷거래를 통한 매표행위를 중지하고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종책선거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해종분자들의 사면과 복권 움직임에 계속 동조하거나 행보를 함께 할 경우에는 이번 제29대 총무원장선거의 의미는 정통 개혁세력에 의한 해종분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귀착될 것임을 경고한다.

불기 2542년 10월 일

宋月珠總務院長候補推戴委員會

종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15개 본사 29일 표결

조계종 선거

백련문화재단 · 대각회에 선거권
공불협, 중선위 중립요구 질의
3선 출마 반대 정진법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선직과 간선직 입후보자 등록이 21일과 19일 각각 마감됐다. 등록 마감결과 직선직의 경우 9개교구 본사가 표결없이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나머지 15개 교구본사는 29일 표결을 벌이게 됐다. 4명의 직선직 종회의원이 새정된 직할 교구의 경우 모두 9명이 입후보해 2대1 이상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마곡사, 선운사의 경우 6명씩 입후보해 3대1의 비교적 높은 경쟁율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등록이 마감된 직능직(간선)대표 중앙종회의원 후보로는 모두 37명이 등록해 1.75:1의 경쟁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강원대표와 행정대표에 각각 5명씩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비구니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가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0명의 스님으로 등록됐다. 직능직과 비구니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26일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회가 선출하게된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3선공방'과 후보자들의 잇단 출마선언으로 점차 가열되고 있다.

월탄, 지선, 설조스님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월주스님의 3선 지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단 지도자 대화의 모임'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월주스님추대위원회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3선이 아닌데 3선관련 토론을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3선 공방'은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는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연백문도회로부터 총무원장 후보 추대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입후보 의사를 밝힌 지선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며 월탄스님도 종책다듬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1월 2일 이전에 모든 후보들의 공식출마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열기는 급속도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33차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 백련문화재단과 대각회 소속 임원과 사찰 운영자에 대해 선거권이 있다고 결의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두 재단이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두 재단으로부터 정관개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각서를 24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두 재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이하 공불협)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명백한 중립의지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중선위에 접수했다.

공불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추대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지 성타 정락 도영스님을 총무원장 선거법 제2장 제3절 1조 2항 등에 의거 호법부에 제소할 것 △중선위 위원 원우스님의 '송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집행위원을 겸임에 따른 중선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해명 △공불협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한데에 따른 근거와 답변 등을 요구했다.

●…송월주 총무원장 3선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선 출마강행을 반대하는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활동보고, 주제설법, 종정스님과 원로스님께 드리고 탄원의 글, 발원문, 결의문 낭독,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법회에 동참한 70여명의 스님들은 △10월30일과 11월 4일, 11일 각종 승려정진법회 봉행 △ 3선 출마포기 촉구 서명운동 △각 사찰 입구에 3선출 반대 현수막 게시 △사형사제와 도반들과 매일 토론과 연락을 결행한다 등의 실천 지침을 결의했다.

임연태 · 도필선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직선직 종앙종회의원 후보등록 현황

교구	등록명단	교구	등록명단
직 할	지현, 성관, 월우, 종림, 자용, 종후, 광복, 성혜, 법민	쌍계사	영담, 정인
용주사	정대, 세영	범어사	광진, 경민, 종훈, 석호
신흥사	무산, 지홍, 청화, 마근	통도사	정우, 현대, 동하, 원천, 정각
원정사	도완, 정념, 부동	고운사	설송, 근일
법주사	잔구, 지명	금산사	광상, 원행
마곡사	잔각, 장곡, 학중, 윤원, 진성, 혜철	백양사	선오, 보연, 화범, 진공
수덕사	안행, 정묵, 지만	화엄사	진만, 종삼, 명관
직지사	법등, 법보	송광사	범종, 지원, 정인, 영조
동화사	성문, 혜정, 종문	대둔사	원학, 환우, 진아, 무여
은해사	법일, 현소, 돈기, 장적	관음사	종하, 탄우
불국사	종광, 종상	선운사	대원, 선법, 대우, 진원, 법경
해인사	수완, 등관, 도각	봉선사	일면, 혜립, 경훈

◇조계종 간선직(직능직) 중앙종회의원 후보등록 현황

분야	등록명단	분야	등록명단
율 원	성우, 철우, 무관	문 화	도현, 여연, 영배
선 원	돈관, 명진, 한봉	법 제	정휴, 한응, 상덕
강 원	지욱, 수진, 대각, 도형, 지안	행 정	정우, 원서, 장윤, 원우, 현근
교 육	향적, 밀원, 법성, 지하	포 교	법민, 지홍, 원명, 현진
사 회	진관, 해관, 법안, 효림	비구니	도문, 수현, 일법, 운달, 법성, 해주, 본각,
복 지	제원, 혜창, 효종		지형, 계호, 경분



◇월탄, 설조, 지선스님 공동 기자회견.



◇월주스님 추대위 기자회견.

"사찰 · 교회등 납골시설 사후통보제 허용해야"

조계종 '장묘법 개정 불교방안' 공청회

"장묘법 개정안 제12조(사설화장장 · 납골시설의 설치 등)에 '사찰 등 종교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22일 오후 사회복지대학 강의실에서 '장묘법 개정(안)에 따른 불교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화장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찰 · 교회 등에 '사후 통보제' 형식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신현수 과장의 '장묘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와 금왕 광명선원 주지 무애, 시흥 영각사 주지 현법,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화장 · 납골에 대한 당위론과 관심은 높지만 전문적인 법적 · 제도적 정보에 약한 불교계에 실질적인 법 · 제도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정부에 영탑 · 납골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 화장문화의 노하우와 경영상의 애로점을 정부측에 상세히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현수 과장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높지만 실제 참여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묘지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3분의 2이상이 화장을 대안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의식개혁,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법령제도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화장 찬성자의 65%만이 '참여하겠다', 22%는 '안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별 화장수용율이 무교-불교-기독교 순인 것은 아직까지 종교계가 화장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후의 장례방안을 묻는 질문의 경우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 납골당 안치, 납골묘 안치, 종교시설에 안치 등의 순으로 응답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현법스님은 "유럽의 경우 대부분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서 종교법의 전통에 따라 납골을 안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찰 · 교회별로 신도 수에 맞게 납골당이나 탑묘(영탑)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납골시설 등을 엄숙하면서도 깨끗하게 만들어 불교계가 화장문화 확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무애스님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부감 없는 화장시설로 영탑을 제안했다. 서랍식 형태의 납골당이 무위탁 행려병자나 사산아가 수용되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영탑은 학교에서 소풍을 올 정도로 공원같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전통적(현대적 부도)이면서도 불교에 적합한 장묘시설이란 설명. 스님은 이밖에도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저리융자, 화장제 필요성에 대한 사찰의 꾸준한 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재단이 22일 개최한 '장묘법 개정안에 대한 불교대응' 공청회.

유정석 자문위원은 장묘법 개정안 법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납골당과 영탑은 '건축법' 등 타 법률에서는 '묘지'에 속하지 않아 법률해석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장묘시설 수급계획이 개발제한구역 ·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 내세관은 종교단체와 밀접하므로 종교시설내의 납골시설을 법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점, 벌칙조항이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영리목적의 무허가 집단묘지나 개인 사설묘지가 똑같이 처벌)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종단차원의 '불교화장문화 추진위원회'를 조만간 결성키로 하고,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캠페인 등을 내년도 연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목어

문화의 달에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열리던날, 전시장에는 주최측인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간부스님들과 당선자 그리고 많지않은 하객들이 자리했다. 직함을 가진 스님들, 문화인을 자처하는 불자들은 이런 자리에 안나오고 다 어디 갔을까. 예년에는 문화부 장 · 차관도 나왔고, 지난해에는 대선때문인지 정치인 부인까지도 찾아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불미전은 불교계의 유일한 공모전이다. 그런 전시이기에 조계종 중진 스님들은 물론 각 종단 대표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관심과 축하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불미전은 조계종 잔치에서 한국의 미술잔치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주최측과 불교계인사 모두 신경써야 할 일이다.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기념법회에는 월주스님, 지관스님이 나오시고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도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대장경 전산화에 동참하고있는 불자들도 기쁨을 함께했다. 그런데도 길상사 경내 다과회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조촐해야할 자리가 아닌데…"

불사의 의미로 보아 좀더 성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리라. 하기야 스님들이 개인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화환이 줄을 있고 발디딜틈이 없지않은가. 불교문화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성철스님 다비식 그림전도, 수안스님 개인전 테프커팅에도 직함가진 스님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가 시간을 쪼개 수안스님 전시장에서 축사를 하고 작품을 눈여겨 감상한 법산스님(동대 불교대학장)이 돋보였다.

스님들이 자주 전시회에도 가고, 음악회에도 가고, 책방에도 가고, 책읽기 법회도 지도하는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쏟아야 겠다. 문화의 세기 21세기에 불교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다.

지방에 계신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 한분은 서울에 올때마다 책방 '여시아문'에 들려 신간을 비롯 여러권의 책을 산다. 당신도 보고 신도들에게 선물도 하고, 상좌인 군법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다.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원하는 스님들이 주지도 되고 종회의원도 되고 총무원장도 됐으면 좋겠다. 10월 문화의 달에 조계종에는 선거바람이 불고있다. 선거문화라도 잘 가꿔야 할텐데….

종단을 '탐착'의 나락에서 건질 가르침을 주옵소서!

원로 스님들께 올리는 탄원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제방에서 수행납자를 지도하시고 수행에 진력하시는 원로 대덕 스님들께 삼가 올립니다. 정각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초발심으로 입문하여 부처님 인연을 만나, 세상사 인연을 공부 재료로 삼아 정진하고자 하니 또 다른 공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로 스님들께서는 5, 60년대 조계종의 법통을 세우고 청정승단 본래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83년 구종법회와 94년 종단개혁을 염원하였을 때 스님들께서 앞장서 주셨음을 종도된 도리로 어찌 잊겠습니까. 조계종지를 다시 세우심은 조선 오백년과 일정치하 36년의 흐트러진 종풍을 바로 세우심이며, 종단개혁을 앞에서 이끄심은 종단의 앞날을 청정히 세우시고자 함이십니다.

원로 대덕 스님들께 앙망(仰望)하나이다.

출가 사문의 도리로서 탐진치 3독을 끊지 못해, 스님들께서 일으켜 세우신 법통을 끊어 버리려 하는 무리들이 있어 저희들이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나서고자 합니다. 권세와 삿된 것에 단호히 하심은 부처님 뜻이옵고, 스님들께서 '정화불사'를 이루신 원력이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리를 분별치 못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하는 이들에게 종풍(宗風)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자 합니다. 출가 사문이 탐진치 3독을 끊지 못하여 종도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총무원장의 3선강행은 전 종도들의 애종의 뜻을 저버리고, 현하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遇)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애종구법의 마음과 정법을 바로 세우는 의지로 원로 대덕 스님들께 감히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원로 대덕 스님들께 다시 한번 앙망(仰望)하나이다.

2조(二祖)께서 법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자르신 뜻을 저희들이 기실 알거니와, 법통을 호지하고 종단의 앞날을 위해 원로 대덕 스님들께 글을 올렸나이다.

원로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뜻을 어여삐 아시어 종지를 세우고, 정법의 가르침을 두루 포호할 수 있게 하시옵서서. 저희들은 이길이 바로 스님들께서 목숨을 내놓고 종단의 법통을 이은 뜻이라 믿기에 감히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뜻에 감읍(感泣)하시어 삿된 것을 바르게 하고, 스님들께서 세우신 종단의 법통이 세세생생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내주시기를 저희들 모두가 간청(懇請)하나이다.

◆ 발 원 문 ◆

만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중생들은 무명의 어둠에 있어 부처님을 찬탄함에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옵나이다.

시방에 아니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정진으로 8만4천마군을 조복받으라"하시었듯이, 뜻있는 불제자들은 94년 아픔을 통하여 청정승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화합으로서 승가의 질서를 세우시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94년 뼈를 깍는 마음으로 이룩한 개혁회의는 전 종도들의 구종의 열정이 있었나이다. 하오나 개혁정신을 저버리며 종헌을 어기는 3선출마강행과 세간에서도 보기힘든 혼란으로 몰아내는 현총무원장의 태도는 수행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옵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초발심으로 서원을 세우라 하시었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아직 금강석(金剛石)처럼 단단하지 못하여 세상의 일이 뜻과 달리 움직임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초발심으로 다시 원을 세우나이다.

시방에 상주하시고 만생만물을 살리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세상사 인연을 통해 정각을 이루었듯이, 저희는 10월 30일의 참회정진을 통해 새로운 인연으로 화합승단을 일구는 계기로 삼으려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어 탐진치 삼독을 끊으려는 저희들의 참회를 보살펴 주옵서소.

부처님의 법과 율을 믿고 따르며 종법을 호지하는 모든 이들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1998)년 10월 21일

불교중흥과 종단안정을 위한 정진법회 참석 사부대중 일동과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올림

애종구법의 일념으로 간절하게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불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본 연대회의는 3선 출마 탐심으로 부처님의 계와 율에 입각한 종헌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권력욕을 채우려는 송월주총무원장스님에게 수행자로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종단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시 유의할 사항은 3천배에서 1만 5천배의 절을 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개인준비를 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3선출마강행과 부정선거 종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

■일 시: 불기 2542(1998)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주 최: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준비물: 가사, 목탁, 죽비, 개인좌복, 무릎보호대, 개인연등과 초, 두툼한 옷
■참석대상: 수행자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부대중
■추후일정안내: · 11월 1일 저녁 7시 정진법회(예정)
· 11월 4일 승려정진법회(예정)
· 11월 11일 범불교도법회(예정)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받습니다.
전화: 02-725-3766, 7 통신ID: 천리안Anti29
· 보시금 접수: 외환은행 059-19-35455-2 · 예금주:삼선반대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교차로 승가



은관 문화훈장 받아

만봉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20일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98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전통단청과 불화의 전승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환인 징용 희생자 위령재

태연 재일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장은 25일 일본 교토 고려사에서 강제징용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국난극복 수륙 방생법회

월파 통도사 주지는 17일 하동 섬진강 송림에서 경남 일원의 불자 3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난극복을 위한 수륙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책읽는…' 추진위 고문에

법타 은해사 주지는 24일 책읽는 교육사회 실천협의회 추진위원회 고문에 위촉됐다. 스님은 교육계와 출판계 인사들과 함께 '책읽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민운동을 펼치게 된다.



영가천도 만등불사 봉행

혜총 감로사 주지는 28일 영가천도를 위한 삼천불전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등명락가사 일주문 상량

청우 등명락가사 주지는 20일 신도와 지역 기관장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주문 상량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은 내년 부처님 오신날 거행할 예정이다.



수련원 기금마련 서도전

정여 보현선원 주지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전시실에서 어린이수련원 건립기금마련을 위한 서도전을 개최한다.



경제난 극복 기원법회

덕수 삼광사 주지는 11월 1일 삼광사 창립 29주년 기념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교보환경문화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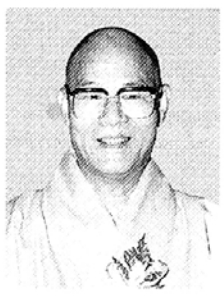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대표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교보환경문화상 사회교육분야 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대구에 대곡학당 개원

돈관 한국불교사회연구원 부설 경북불교대학장은 18일 대구시 상인동 대곡지구에 대곡학당을 개원했다.

녹원스님 日 용곡大서 명예박사



오녹원 동국학원 이사장 스님은 일본 용곡대(龍谷大)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9일 교토(京都)로 출국한다.

녹원스님의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용곡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학위로는 중국 자오푸추(趙朴初) 중국불교협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

학위수여식에는 송석구 총장을 비롯 홍윤식 문화예술대학원장, 법산 불교대학장, 송재윤 재단사무처장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민생안정 · 민족통일 염원"

매일 3회 1백일기도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경제난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민심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사회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바로세워 민생안정과 종단화합, 나아가 민족통일까지 염원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27일부터 국난극복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약사여래 1백일 기도'에 들어간 팔공산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세기말의 혼란속에서 정신계를 이끌어갈 지역교구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스님이 직접 나섰다.

스님은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매일 새벽3시, 오전10시, 그리고 오후6시 세차례 약사여래불 정근기도를 올린다. 회향은 99년 2월 3일 오전10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찰-학교 자매결연 추진"

파라미타 전북지부후원회장 **김백호**씨



"불교세가 취약한 전북지역에서 청소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전북불교의 미래를 가꿀 것입니다."

파라미타 전북지부(지부장 도영스님) 후원회 초대 회장을 맡은 김백호씨(67세 · 우미건설 대표)의 말이다.

김 회장은 "전북지부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와 사찰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한 학교, 한 사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존경하던 은사 다시 뵙는 듯"

화갑맞아 기산선사 법어집 펴낸 한정섭 법사



"30여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온 보람을 느낍니다. 남은 날들도 불교발전을 위해 바칠 각오입니다."

한국불교 대중화와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온 한국불교금강선원 한정섭 이사장은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신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들이 마련해 준 '기산 임석진 대종사 법어집' 발간법회에서 깊은 감회에 젖었다. 65년 가평에 상락향 수도원 창건을 시작으로 도서출판 불교통신교육원과 한국불교통신대학, 한국불교정신문화원 등을 설립해 포교와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쳐왔기 때문이다.

"기산선사는 제 은사스님입니다. 54년 대한불교 중앙총무원원장을 지내시는 등 불교발전을 위한 책임자로서, 또 많은 찬술을 남긴 학자로서 후학들도 기산선사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화갑기념으로 기산선사 법어집을 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앞으로도 출판과 강의 등을 통해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파라미타 활동 배우고 싶어"

태국 담야가야재단 소마이 콘사쿠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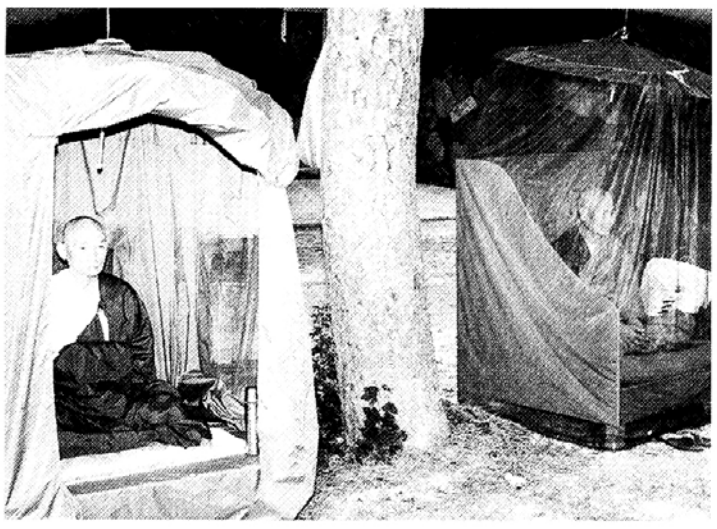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활발한 청소년포교와 언론활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조직과 활동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16~17일 한국을 방문, 조계종 포교원과 사회부, 대불청 관계자들을 만나 한-태 불교교류를 논의하고 돌아간 태국 담야가야재단의 국제청년윤리위원장 소마이 콘사쿠는 두 나라 불교단체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마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첫 방한이지만 한국불교에 친근감을 느꼈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절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한국불교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담야가야재단은 태국의 봉사, 청소년교육, 수행 단체로 미국 호주 벨기에 등 세계 8개국에 지부와 명상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태종사 스님들 7일간의 두타행

Focus

탐심이 없고, 쉽게 만족하고….

이 두가지 공덕을 구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두타행. 부산 태종사(조실 도성)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세간의 즐거움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기위해 부처님 당시 권장됐던 두땅카(두타)가 행해졌다. 두타는 노지에서 지내며 행주좌와 중 눕지않고 수행하며 하루 한끼의 공양을 걸식으로 해결하며 세벌의 옷만 사용하는 등 욕심을 버리고 쉽게 만족함을 위한 수행. 도성스님, 우각스님, 진용스님을 비롯한 9명의 수행자는 정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1일 1식하며 좌선과 경행을 겸한 24시간 용맹정진으로 7일을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미주 주요사찰 순례법회



박완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9월 13일 하와이 정법사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 씨애틀 서미사 등 미주지역 주요사찰 순례법회를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진각종 사감원장에



진산 정사(진각종 경주교구청장)는 22일 30대 사감원장에 선출됐다. 진산정사는 1943년 경북월성군에서 태어나 현재 경주교구청 교구청장, 경주 홍원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쌍용양회 사장에



명호근 쌍용화재 사장(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은 21일 쌍용양회 사장 겸 구조조정 실행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日 부사학원高 학생 초청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장은 20일 자매교인 일본 부사학원 고등학교학생 184명을 초청, 우애와 친선을 도모하는 환영회를 가졌다.

이웃돕기 선서화 도자전



최동원 대구광역시신도회장은 21일~24일까지 대구 수성구 우방 모델하우스에서 불우이웃돕기 선서화 및 생활도자기전을 개최했다. 수익금은 결식아동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성공이민시대' 출판회



민병용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한국일보 캐나다본부장)는 2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미주 이민과 역이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성공이민시대〉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조선일보 광고장려상 수상



김형균 동쪽나라 대표는 제35회 조선일보 광고대상 일반부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장려상 수상작은 최근 발간된 법정스님 수필집 〈산에는 꽃이 피네〉를 소개한 광고다.

이학송법사 광동여고 교감에



학교법인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17일 이학송법사(광동학원 교법사)를 광동여고 교감에 임명했다. 종립학교사상 최연소 교감이된 이법사는 "광동여고가 종립고로써의 위상을 갖는데 일조하기 위해 불교교육 및 신행활동을 점검하는 수석교법사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멍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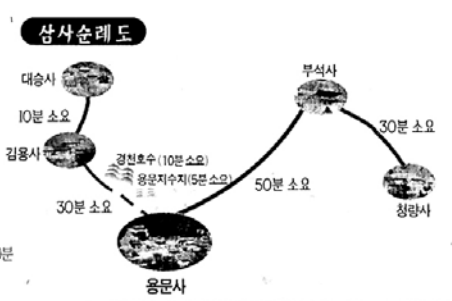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입재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향 : 1999(불기2543)년 11월 09일(음 10월 19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화산 큰스님,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관음원력 발원한 '백의의 보살'

부산불자간호사회 전국최초 창립

대학병원·양호교사등 40여명 결성
노인 진료봉사·간병인교육등 활동



◇부산불자간호사회는 17일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자비의 천수로 지혜의 천안으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배워가는 불자간호사회가 되겠습니다."

부산불자간호사회(회장 황보선, 前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의 간절한 발원. 그 발원의 실천과 구체화를 위해 17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부산불자간호사회가 창립됐다. 기독간호사회, 가톨릭간호사회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창립은 전국에서 처음 결성된 불자간호사회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길 꺼리는 소극성과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상의 특성이 간호사회 결성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불자간호사들이 각 병원별로 법우회를 조직, 신심을 북돋우고 봉사활동을 펼쳐오던 중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필요성을 느껴 창립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 3교대의 직장일과 가정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분야 공부 등으로 틈을 내기가 어려운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말처럼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 부산불자간호사회는 창립에 앞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지현스님을 법사로 관음사에서 준비 모임격인 법회를 열기 시작했다. 5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현스님의 법문은 회원들의 신심과 창립의지를 더욱 굳게 했고 각 병원별로 회원들이 하나둘 가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모인 회원이 40여명.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동의의료원, 대동병원, 세강병원, 양호교사, 복지관 간호사 등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그 자비를 환자에게 되돌리고자 하는 이들이 속속 뜻을 모아왔다. 어렵사리 내딛는 첫걸음이지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신심은 크고도 당당했다.

앞으로 부산불자간호사회는 차근차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작지만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비회원 간호사들에게 불자간호사회를 홍보하고 회원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

그 첫 활동으로 불자들을 대상으로 관음사에서 1년에 두세차례 실시해오던 간병인교육을 전담, 26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한다. 또한 11월 1일 관음사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황보선 초대회장은 "법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심을 두텁게 하고 간호와 관계되는 봉사활동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보살필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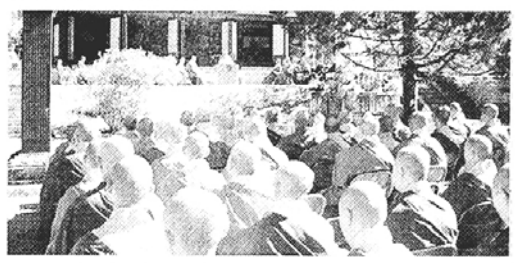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법회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기념법회가 21일 길상사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청학(길상사 주지) 일수(백양사 운문선원장) 스님과 이태녕(서울대 명예교수) 이어령(이화여대 석좌교수) 한용외(삼성문화재단 사장) 윤청하(문화관광부 종무관) 김광삼(현대불교 사장)씨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송광사 효봉선사 32주기 추모재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는 21일 효봉영각 앞에서 효봉대선사 제3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보성(송광사 방장) 현호(송광사 부방장) 법흥(송광사 동당)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송광사는 추모재에 이어 민족문화교육원(수련원) 기공식, 해청당 상량식, 효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각각 실시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수덕사, 장기기증자 천도재 봉행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스님)는 18일 대웅전에서 '제4회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 능호스님(부천 선재마을), 이원기 생명나눔실천후원회 부회장, 조문호 생명나눔회 충남지부장을 비롯 故 임창빈 시신기증인의 부인 차회자보살 등 유족 80명이 참석했다. 법장스님은 법문에서 "자신의 육신을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바친 장기 및 시신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생명나눔의 보살행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송파구민 위한 청화스님 초청법회

11월13일 구청 강당



구민을 위한 큰스님 초청법회가 열린다. 송파구청 불자회(회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는 11월 13일 오후4시 구청대강당에서 청화스님(곡성 태안사 조실·사진)을 초청하여 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관내 25개사찰 주지스님과 불자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중원회장은 "지역불자 화합과 신행증진을 위해 큰스님 초청법회를 준비했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올해내로 송파구사암연합회를 결성토록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대전운불회 창립 9돌

대전운전기사불자회는 21일 중앙불교회관 법당에서 5백여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9년 동안 달리는 포교사로 불법홍포에 앞장섰다"며 "더욱 정진하여 운불련이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동불라이온스 월례회의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는 11월5일 6시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지역 1.2지대 합동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윤천수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린다.

금융결제원 정기법회

금융결제원 불교회(회장 조화제)는 28일 14층 회의실에서 정기법회및 불교공부모임을 갖는다. 이날 불교공부시간에는 고민수회원이 〈천수경〉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성원살리기' 기원법회 열린다

2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성원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본부장 혜총스님)는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성원' 정상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성원정상화기원법회에서는 혜인스님(제주약천사 주지)이 '보살행에 대하여'를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본부장 혜총스님은 "성원살리기운동을 범지역적으로 넓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성원화의 신청이 정부등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성원이 복지활동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종교에 국한하여 지원한 바도 없고 특히나 공사장 식당을 불교계에 일임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성원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051)816-3680



원심회 창립 10주년 법회

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8일 오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원심회는 이날 〈불교수화 용어집〉을 3천권 발간, 배포했으며 〈법호경〉 점자·녹음도서 각 1백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증정했다.



청량사 10년불사 회향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17일, 18일 양일간 10년불사를 회향하는 1만지혜등 점등 및 범종루 낙성·범종타성 대법회를 개최했다.

청량사는 2천년까지 문수전 일주문 요사채도 건립할 예정이다.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 소납 설조의 종단운영 기본종책은 이렇습니다 -

'94년 종단 개혁불사'라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진통과 희생에 무임승차하면서 4년 전 출범한 송월주 총무원 집행부는 두루 아시다시피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완성이라는 종도들의 간절한 염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집행부보다 거의 6~7배나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송월주 집행부가 이루어 놓은 실적이란 고작 늘어난 서류철과 빈번한 신문광고, 시도때도 없는 TV출연과 너무나 잦은 탓에 식상할 정도가 된 신문동정란 등장 정도가 전부라고 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원장 선거용으로 최근에 제작, 배포하고 있는 송월주 원장에 대한 선전물 '내일을 위한 기획안'은 그 내용이 1인 선전용 광고물에 지나지 않을 정도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이같은 한심한 종단상황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오랜 고민 끝에 종단을 바로 세우는 대임의 수행을 자청하고 몇 가지 종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소납이 구상한 종책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현의 일깨움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 종책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와 굴하지 않는 원력으로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반듯하게 하는데 감히 토대가 되고자합니다.

1. 총무(관리)분야

유기적인 조직체에는 반드시 일정한 통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불행하게도 중앙중심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습니다. 중앙중심의 통제뿐 아니라 교구중심의 통제기능도 여법하지 않아 규모에 비하여 덩치에 비하여 역할을 못하는 기형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불교의 본래 기능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도 역사가 일천한 외래종교는 차치하고 신생교단에조차 미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화 이후의 누적된 행정승들의 실책과 산중 및 문중간의 벽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중앙통제기능 확립은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통제기능 강화를 포기하여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퇴화'라는 미끄럼틀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납은 교구 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단내 인사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교단의 인사와 재정이 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도제양성)분야

오늘의 교단 현실은 기성 승려와 신도들의 불교적 역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남의 탓이나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조선 오백년간의 불교탄압과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종교정책, 해방 후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강대국의 영향탓이라고 돌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던 조선왕조 시대에서도 보우, 서산, 사명, 소요, 편양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만큼의 많은 선지식들이 출현하였으며 일제강점 시대에도 경허, 만공, 용성, 한암, 한영, 만해 등 수많은 대덕들이 출현 불조혜명의 불을 밝혀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단이 처한 현상은 기성세대가 불교적 소양뿐 아니라 사회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사문의 길은 저버린 채 인간의 지성마저 외면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승단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우리의 후배들만큼은 우리세대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배들의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함으로써 인천의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촌음을 아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승가대학과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은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방 승가대학(강원)의 학제나 교육현실에는 개선할 점이 없는가?'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납이 종단의 대임을 맡게 된다면 도심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수행처로서의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고, 산중의 전통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학과의 양을 늘려 수행인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학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은 선지적 중심으로 수행정진이 이루어지고 복지에도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여 우리 교단에서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통선맥이 발양되어 인류구원의 본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포교분야

근 2천여년간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가 되어왔으며, 말 그대로 전통 종교이자 민족종교로 역할을 해왔었던 불교의 오늘날 위상은 어떻습니까? 외세를 업고 들어온지 1~2백년에 지나지 않는 서양종교의 당당한 실상과 위축될대로 위축된 우리 교단을 대비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교단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포교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포교는 교단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적 방편일 뿐아니라 교단을 발전 시키는 제일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포교를 등한히 해오거나 형식적으로 취급해왔으니 오늘날 우리 교단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가장 우선해서 포교의 활성화에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포교사를 양성할 수도, 또 대량 수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각 사찰의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수행과 가람수호는 물론 훌륭한 포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4. 역경분야

역경은 우리 교단의 3대 사업 중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도제양성 즉 교육과 포교를 위한 기초적인 분야인만큼 이 분야를 소홀히 하고서는 나머지 2대 사업이 제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역경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성과가 없지 않지만 아직도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역경사의 양성이나 역경된 경전의 보급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소납은 종단의 대임을 책임지게 될 경우 역경의 주체인 역경사의 양성을 역경원과 동국대에 위탁하고, 역경된 경전을 교단의 전 사찰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급을 확대하고 경전을 기성승려의 재교육 교재나 포교용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교와 역경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출판의 기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 사업이 활성화되면 여타 번역 사업은 물론 침체된 교계의 출판 사업도 활기를 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책은 한글세대에 대한 포교는 물론이요, 계층별, 연령별로 대장경을 의역하는 계기가 되어 포교 및 신도교육의 일대전기가 될것입니다.

실제로 소납이 불국사의 주지로 재임할 당시 불국사 본말사 전체가 한글 고려대장경을 비치토록 조처한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서 역경원의 역경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각 분야별로 긴급한 종책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계의 전문가나 관계분야 종사자들의 고견을 청취해 보다 완벽한 종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단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교를 '민족의 종교' 이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종교'로 이끌 것입니다.

소납 설조, 교계 원로 큰스님과 중진대덕 스님들의 성원과 질정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일

총무원장 후보 설 조 합장

이렇게 들었다

참교육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나부터

우리 교육이 마침내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19일 대입 무시험전형과 고교등급제 금지, 특성화 교육 등에 기초를 둔 2002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또 족집게 고액 과외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교육계의 촌지관행을 뿌리뽑기 시작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관련 제반 사항을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우리 교육이 마침내 개혁의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두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어떤 가르침으로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참교육의 의미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새겨보자. 〈편집자 주〉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선남자야, 비유컨대 장자(長者)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반자(半字)를 배우게 하고, 반자가 바르게 된 다음에 차례를 따라 뜻이 깊은 이론을 가르쳐 아들의 학문을 성취시킨다. 〈대반니원경〉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마역경〉

▨제가 가르침의 본의(本意)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 하면 먼저 저를 가르쳐야 한다. 〈불치신경〉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사람이 생존 중 아무리 많이 외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의(文義)·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초목을 많이 져 날라 백·천 짐에 이른다 해도,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출요경〉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뜻)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는 이해 못함을 택해서는 안된다. 〈열반경〉

▨비유컨대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벼리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니, 벼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 하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배움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고장구경〉

▨무엇을 과문불학(寡聞不學)이라 하느냐 하면, 밖으로 악을 막기는 하되, 안으로는 밝은 지혜가 없는 주제에 물으려 아니하는 일이다. 〈정법소집경〉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응당 네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널리 많이 배워 온갖 음절(音節)과 어구(語句)를 지님이요, 둘째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함이요, 셋째는 선정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번뇌가 없음이요, 넷째는 과괴됨이 없어서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함이다. 〈십주니바라론〉

"불교사상 사회변혁의 지침 삼아야"

정토회 슐락시바락사 초청 시민간담회

태국의 참여불교·환경·인권 운동가 슐락시바락사(65세). 심오한 불교적 시각에 근거해 인간의 영적·종교적 차원을 강조하고, 이것을 토대로 '참여불교운동'을 역설한 슐락시바락사는 태국의 지성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교지도자, 학자, 사회운동가들에게 불교·민주주의·인권·환경·책임있는 정부·자본주의 오류 등에 관심을 갖게 한 인물이다.

정토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키 위해 방한한 그는 17일 '시민간담회'와 본지 논설위원 연기영교수(동국대 법과대학장)와 대담을 갖고 독창적인 행동주의와 불교운동관을 피력했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불교의 사회화는 서로 나누는 공동체"
"소비주의는 마귀 종교단합으로 막아야"



◇17일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슐락시바락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불교를 현대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교와 현대 세계를 연결하려면 윤리적 계율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불자들은 대개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아왔다. 따라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학문들의 연구결과를 불교의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학문적 작업 없이는 불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불교의 지혜를 사회현실 대처방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불교는 중산층에게만 호소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주의로 가득차 있다. 불자들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사회질서와 정의에 대한 전통적인 불교 표현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빈곤과 불교의 간소하고 낭비하지 않는 덕목을 동일시 해 불교는 빈곤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부처님은 또한 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칭찬받을 만한 불교신자는 부를 정당하게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부에 집착하거나 얼빠지거나 예속되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의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들은 불교국가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미얀마 등의 나라에서의 인권은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관료·경찰·군대 등에서 제시된 인권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앰네스티나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불교국가들의 인권사상은 불교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성보다 문화·정치·경제적 여과에 따라 그 정의가 왜곡되고 있다.

-불교가 중심적인 사회 체계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불교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성제, 열반, 연기, 무아 등 불교의 정통교리를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과 사회변혁의 지침으로 보려고 해야 한다.

불교의 전통은 소박함을 기초로 한 공동체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돈에 끌리지도 말고 중요성을 두지도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기르던지 기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사회일 것이다.

-아시아 불교와 서구 불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럽과 미국의 초기불교는 지식인들에게 선호되고, 개인적 깨달음과 명상적 생활로 보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이곳의 불교는 사회참여적 성향이 강하다. 반면 아시아 불교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불교를 가리켜 "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름답게 저물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일본불교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매춘과 실직 등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불자는 사회의 구조에 숨겨져 있는 폭력을 알아야 한다. 수계를 받을 때 재가불자들이 받드는 오계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적·지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상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간 교류와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종교는 개인의 영성을 존중하고 있다. 종교간 높낮이가 없고, 상호 존중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 종교들이 단합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소비주의를 막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마귀의 종교와 같다. 우리의 삼독과 경쟁심리를 자극한다. 코카콜라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TV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종교간 네트워크는 각 종교 속에서 도덕성과 영성을 찾고, 이를 통해 '소비주의'라는 마교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해방축하기념 연극공연이 열렸던 우화루. 현재는 불교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흥겨운 가락, 해방감

-1945년 11월14일(수)

바깥에서 북치며 노는 소리가 요란하여 나가보았더니 향적전(香積殿) 근처에서 부인 수십명이 얽혀 장구를 치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다. 장구의 남도가락이 흥겹다기보다 장면은 수라장을 방불케했다. 그래서 오히려 민망스러웠다. 더는 서 있지 못하고 향적전 뜰을 따라 방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좋다는데 그냥 가는가…에라 좋다!"라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엊저녁에 전세버스로 온 30~40대 부인들인데 어떤 부인들인지 궁금했다. 절에 물어보았으나 손님이라고 할 뿐 더 말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거처로 돌아와 그 놀이판을 생각했다. 일제(日帝)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에서 솟구친 여흥(餘興)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한 동아리가 되어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추지 못한 무례를 저지른 꼴은 아니었을까.

오후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낮잠이 들었다. 피로한 탓인지 참 맛있는 단잠을 잤다. 만세루(萬歲樓)라고도 하는 우화루(雨花樓)에서는 막을 치고 자리를 펴고 하면서 준비에 분주한 소리가 들린다. 오늘 저녁에 연극을 한단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최덕림 스님이 "산중에 오시니 심심하시지요?"하며 들어왔다.

말벗이나 되려는 기색이 엿보여 불교에 대해 전무식임을 솔직히 밝혔다. 종교, 특히 불교에 종사하는 분의 인생관은 아주 다를 것 같다고 말문을 먼저 열었더니, 그것은 우주론(宇宙論·cosmology)으로부터 인생관이 나오고 인생관(人生觀)으로부터 우주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스님이 대답하였다. 우주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종말 등에 대한 이론으로 철학·종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은 즉 소우주라는 뜻인지 어떤지 알기 어려웠다. 인생에 대한 종교인과 사회인의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 꺼낸 말인데 오히려 더 큰 의문을 품은 셈이 되었다.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양의 불교는 어떠한지를 화제로 삼았다. 실천적인 불교는 동양뿐이지만 서양에서는 합리적인 불교철학. 이것이 동양보다 더 발전하였다고 스님이 설명을 하였다. 원래 불교는 범위가 매우 광활하고, 기독교는 일신교(一神敎·monotheism)탓인지 내용이 편협하다고 한다. 설명은 불교가 동양에 국한되지 않았고, 종교로서 기독교보다 낫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백양사에서 스님의 대우, 지위는 어떠한가 물었다. 그것은 계급에 따라 다르다는 원칙부터 말하기 시작하였다. 스님의 계급을 세세히 알려는 차례인데 밖에서 어서 오란다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벌써 어둑어둑 황혼이 짙어질 무렵이었다. 스님은 전언을 듣자 몸을 고쳐 앉으면서, 절에서 이웃사람들에게 사례할 겸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으니 같이 가서 보아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을 따라 우화루로 향하였다. 문 앞에서 한 스님이 "서울선생님, 이리 오세요"라고 맞으며 뒤편에 마련한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혼자만 앉아 있기가 겸연쩍었으나, 그렇다고 객에 대한 정중한 접대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좌정하자, 주최자인 절에서 최덕림 스님이 인사의 말씀을 하고, 출연측인 장성청년단(長城靑年團)에서 단장의 인사가 이어졌다. 익숙한 신파군의 연극이 아니고 청년단이 꾸민 소인극(素人劇)이며, 오늘의 공연은 백양사의 전적인 후의로 이루어진 '해방축하 기념공연'임을 밝히고 난 후 제1막이 서서히 열렸다.

〈계속〉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나아갈 방향 세미나

초대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21세기 불교연합회는 부처님의 대자비 사상으로
전통문화 가치관을 확립하며 자유, 평등, 화합을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를 맞아 불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불교의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해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라며
21세기 불교연합회의 발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98)년 10월 26일

21세기 불교연합회 회장 김 법 조 합장

● 21세기 불교연합회 창립목적

현대사회는 전분야에 걸쳐 숨가쁜 변화를 겪고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 역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는 적응하기 힘든 새로운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다. 기존의 종교는 미래사회에 있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갖게 될 것인가? 21세기 불교연합회는 미래사회에서 불교가 해야할 다양한 방면의 역할에 앞서 불교의 위상정립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사부대중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모임으로 태어난 21세기 불교연합회는 정법선양을 통한 인류의 불자화, 지구촌의 불국토화를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다.

● 21세기 불교연합회 위원

위원: 종하. 동광. 원택. 종성. 지명. 범산. 원행. 지홍. 성법. 무영. 법승. 근일. 설송. 법혜. 영운. 혜강. 지해. 혜자. 무상. 홍선. 적운. 원학. 법경. 법정. 화랑. 일휴. 범화. 동윤. 도광. 오원. 진공. 해선. 명호. 수현. 정덕

회장 : 법조 사무총장 : 무착

■주 제 :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
■언 제 : 불기 2542('98)년 11월 5일 (목) 오후 2시
■어디서 : 하림각 신관 2층 (02-396-2442)

▶ 일정

- 1부 세미나 -

오후 2시 개 회 - 사회: 혜담스님(각화사 주지)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법조스님(본회 회장)
축사 1: 월주스님(총무원장)
축사 2: 종하스님(본회 부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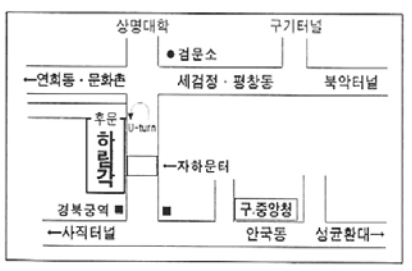
오후 2:30 제1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복지"
-지하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제1토론: 혜창스님(강북장애인복지관장)

오후 3시 제2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동양사상"
-송석구(동국대학교 총장))
제2토론: 최근덕(성균관 관장)

오후 3:30 전체토론

오후 4시 사홍서원

- 2부 만찬 -



■문의 : 21세기불교연합회(02-736-9948/737-8964)
하림각 신관2층 396-2442~9

■R.S.V.P. : 참석여부를 전화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불교연합회회장 석 법조 합장



◇송광사 등의 전통불화를 담은 화보집 〈한국의 불화〉.

송광사·화엄사·선암사 전통불화 총망라

'한국의 불화' 4권 출간

전국의 사찰에 봉안된 불화를 비롯해 국공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전통불화를 수록한 〈한국의 불화〉 네 권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한국의 불화〉는 권6, 권7의 '송광사 본말사편' 상·하와 권11 '화엄사 본말사편' 권12 '선암사편', 이로써 지난 96년부터 성보문화재연구원(총재 석정)에 의해 발간된 〈한국의 불화〉는 모두 12권이 됐다.

이들 네권 화보집의 특징은 모두 호남지역의 불화를 담고 있다는 점. 호남지역의 불화는 명주바탕에 장엄된 것이 많아 수명이 짧은 것이 단점이어서 유실된 것이 많지만 내용이 다양하고 그림 자체도 매우 우수한 것이 많다.

또 조선 중기 이후 송광사와 선암사 양대 사찰에서 직접 화원(畵員·불화 그리는 사람)을 양성해 불화를 제작해서인지 서로 비슷한 주제의 불화들이 보이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고,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불화의 명칭과 봉안처, 조성연대, 조성불사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 조성에 소용된 재료와 비용을 보시한 시주자의 이름 등이 기록된 화기(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어 불교사, 미술사, 사회사 등 여러 학문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각 권 구성은 불화의 유형과 예배의식 절차에 따라 후불탱, 보살탱, 시중탱, 각부탱, 진영, 도량장엄 순으로 엮었다. 매권마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포함한 관련 논문도 실어 불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송광사 본말사편'에는 모두 1백34점의 불화가 수록돼 있는데, 일곱 장소와 아홉 번에 걸쳐 〈화엄경〉을 설하는 장면을 탱화로 표현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과 현존하는 1·2·14대 국사탱(모두 16국사) 외에도 유실된 국사탱을 전부 조사해 수록한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화엄사 본말사편'은 '화엄사 괘불'(국보 31호)과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 등 화엄사 말사인 흥국사와 천은사에 소장된 불화를 포함해 모두 82점을 수록하고 있다.

'선암사편'에는 송광사 화엄탱과 동일한 불화로 내용과 기법이 뛰어난 '팔상전 화엄탱'을 비롯해 '칠불탱'과 '오십삼불탱' '천불탱' 등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재래신앙과의 충돌을 극복하려는 불교의 의지를 담은 불화들이 관심을 끌만하다. 모두 89점이 담겨있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은 내년도에 '금산사 본말사편' '선운사 본말사편' '대학박물관편'(상·하)을, 2천년도에는 '마곡사 본말사편' '수덕사 본말사편' '국사립박물관편'(상·하)을 펴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禪음악 '혜초' CD 나왔다

유승엽씨 작곡…인도 전통악기 오카리나로 연주



"19살의 나이로 부처님의 자취를 찾아 험난한 구도여행을 떠난 혜초스님의 구법을 향한 일생을 선(禪)음악이란 장르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뮤지컬 '님의 침묵'의 작곡가 유승엽씨가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스님의 일생을 음악으로 표현한 '禪음악 I 혜초' CD를 펴내 화제다. '혜초'는 흙으로 만든 인도전통악기 오카리나를 사용해 연주, 세속을 씻어내는 듯한 청풍(淸風)과도 같은 맑고 신비로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703년 연화장 △천축국을 향하여 △나체의 나라 △룸비니 꽃동산 △부다가야의 보리수 △녹야원의 달밤 △히말라야 △머나먼 고향 △파밀르 고원을 넘어 △787년 연화장 등 모두 10곡으로 혜초스님이 태어난 703년부터 스님이 걸어다녔던 구도여행지, 787년 입적할 때까지의 일생이 40여분동안 잔잔하면서도 명상적인 선율에 실린다. 마침내 내년 2월 '이달의 문화인물'에 혜초스님이 선정되어 이번 유씨의 작곡은 한층 의미있는 작업이 됐다.

"혜초스님은 16세 어린나이로 중국으로 가 19살의 나이로 부처님의 나라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나 유명한 구도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스님의 그 간절했던 구도심을 음악으로 그리고자 했고 작곡하는 내내 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우리도 스님의 구도열정을 본받아 부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라고 말하는 유씨는 지난해 10월 카나다에서 오카리나를 본후 인도고대부터 있었다는 이 토기악기의 신비스런 소리에 매료돼 연주법을 배웠고 이번 음반에서 연주도 직접 했다.

"선음악이란 마음을 잔잔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음악을 말합니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선의 보급과 더불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위주의 시끄러운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걱정입니다. 음악이야말로 사회를 맑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독실한 불자로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반야심경' '법구경' 등의 노래와 만해스님을 그린 뮤지컬 '님의 침묵'을 작곡한 유승엽씨는 앞으로도 '원효' 등 위대한 스님들을 주제로 해 악기를 정해 독특한 선음악을 계속 작곡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17일 창단연주회를 가진 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

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 창단

단위 사찰이나 유치원에 속한 기존의 불교어린이합창단과는 달리 계림 월성 동천 초등학교 등 경주지역 20여개 초등학교를 아우르는, 대구 경북 유일의 불교어린이 연합합창단 '선재어린이합창단'(단장 종문스님)이 탄생했다.

17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지고 출범한 선재어린이 합창단은 최은수씨 지휘로 성타 불국사 주지, 종수 분황사 주지 등 1천여명의 관객들 앞에서 찬불가 전래동요 민요 영화 주제가 등 장르를 넘나들며 총 16곡의 노래를 선보였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47〉

비 뒤에 조화 이루다

雨過東山後 (우과동산후) 비 지난 동산의 뒤에는
慇懃造化成 (은근조화성) 은근히 조화 이루어지다
暗紅桃杏間 (암홍도행간) 은은한 붉은 복숭아 살구나무 사이
軟綠梧柳呈 (연록오류정) 연한 푸르름은 오동 버들이 드린다
村酒香而록 (촌주향이록) 마을 술은 향기로우며 해맑고
春琴蕩忽淸 (춘금탕홀청) 몸날 거문고는 호탕하다 맑아져
澗崖吟久坐 (간애음구좌) 시내 바위 오래 앉아 읊조리니
物色少留情 (물색소류정) 모든 물색이 잠시 정을 멈춰주네.

월하(月荷 1773~1849)대사의 봄비(春雨)라는 시이다. 봄비가 내린 후의 대자연의 변화를 서술한 시이다. 여기에는 종교적 교의성은 조금도 없다. 스님으로서 세속적 진리를 담담히 읊은 것이다.

만물의 소생으로서의 봄날의 계절은 유독 자연조화의 총체적 발로로 이해되어 더더욱 감동적이다. 둘째 구의 '은근'이라는 한 단어가 어쩌면 소리없이 준동하는 자연사물의 신비를 간직한 묘수인 것 같다. 그것이 바로 비가 지나간 봄산의 실상이다. 비에 윤기를 얻은 만물의 생태이다.

이러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다. 형형색색의 모형과 빛깔의 갈래가 모든 사물의 생태를 갈라놓고 있다 할 것이다. 은은한 붉음이 봄꽃을 대표하는 색깔일 수도 있다. 살구꽃은 나무꽃으로서의 첫 장식을 펴는 것일 수가 있다. 깊어가는 봄의 전령사 노릇을 한다 할 것이다. 이 담홍의 빛을 살구와 복숭아의 '사이'라 하였다. 피는 시기의 간격을 말할 수도 있고, 붉음과 흰색의 사이일 수 있으니, 이 역시 단어 하나의 묘미이다. 거기에 맞물리는 연록의 버들이다.

봄의 운치에 시주(詩酒)가 빠질 수 없으니, 익어가는 촌술과 탕정까지라도 불러올 거문고의 등장이다. 술은 향기로우면서 해맑고 거문고는 호탕하다가 맑다라는 이 상반될 듯한 시어들의 조화가 역시 스님으로서의 시인인 성이범(聖而凡)이요 범이성(凡而聖)적 작시의 고수라 하고 싶다. 어찌되었건 바위서리의 음시에서 잠시 배앗기는 정은 우리네의 속정이 아닌 초탈자의 참 정이 분명하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고승열전 조선편' 테잎출시



불교방송(사장 성낙승) 포교자료팀은 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됐던 '고승열전' 프로그램을 보급용 테잎으로 제작 28일 출시했다.

80개 한질로 구성된 이번 '고승열전 조선편'에는 조선 건국을 위해 현실 정치에 뛰어 들었던 무학대사, 조선 불교 중흥의 등불을 밝힌 보우대사, 금오신화를 집필한 김시습, 국난극복의 보살도를 보여준 서산·사명대사 등 조선조 고승대덕 다섯명의 치열했던 구도열정이 담겨있다. (02)705-5305

■보화각 설립 60주년 기념 특별전



◇금동보살입상 (보물 제285호)

일제 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한 故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이 간송미술관 전신인 보화각을 설립한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간송미술관은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11월1일까지 특별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입상, 계미명삼존불상(국보 72호)을 비롯해 고려상감청자를 대표하는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 청자압형연적, 청자원형연적, 청자기린형향로, 백자박산향로 등 국보급이 망라돼 있다. (02)766-0442

불교유물전시회 '여기저기'

■중국 낙양문물명품전

국립부여박물관은 12월 말까지 중국 낙양문물명품전을 개최한다. 이번 명품전에는 중국 낙양박물관의 협조로 당나라시대의 불교조각품을 비롯해 당문화의 진수 당삼채와 도자기, 도용 등 90여점의 진품이 선보인다. 특히 낙양 북망산에서 발견된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의 묘지(모조품) 등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포함돼 있다. 12월 부여박물관에서 전시를 마치면 내년 6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등에서도 순회전시될 예정이다. (0463)33-8561

■발해 건국 1천3백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발해건국 13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전. 11월29일까지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기획전은 도입부, 황제의 나라, 군사, 종교문화, 발해인의 삶과 죽음, 대외관계 등으로 나눠 발해 불상, 수도인 상경성 복원도, 국내 및 중국 러시아 일본에 흩어져 있는 각종 유적 사진과 유물자료 등 1백50여점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전시유물 가운데는 십자가를 목에 건 불상, 연꽃봉우리가 뛰어난 소조연화문상륜 등이 독특한 면모를 과시한다. 우리 역사의 한부분이면서도 우리에게 잊혀졌던 발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02)709-3114



◇러시아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굴된 발해불상.

■비전(肥前)과 고려-원구·왜구와 고려의 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으로 11월15일까지 일본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특별전에는 우리문화재 23건 29점이 출품돼 고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금동제련지동자경갑(金銅製蓮枝童子經匣)'과 '은제당초문경갑(銀製唐草文經匣)' 등을 비롯 고려시대의 불상·범종·도자기 등이 다채롭게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고려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력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총무원장 스님 우리 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십시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에 대한 석림회의 입장-

제 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3선 출마와 '송월주 스님 후보 추대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부대중의 뜻을 짓밟고 종단의 분열을 야기시킨 송월주 스님과 '후보추대위원회'에게 참회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종단의 어른으로서 현 조계종 행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어른 스님다운 모습과 탐·진·치 삼독과 5욕에 오염되지 아니한 수행자다운 스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학인들이 현 총무원장 스님을 어른스님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자리에 연연(집착)하지 말고 '방하착'할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의 미덕을 보여주십시오.

1. 총무원장 스님 종도들의 애종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시고 94년 개혁불사를 상기하십시오.

1994년 4월의 종단 개혁불사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종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3선연임을 강행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송월주 총무원장스님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독재집권(3선)으로 인하여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조계종단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3선출마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전 서의현 총무원장과 같은 반승가적이고, 반화합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동입니다.
당시 우리 학인 스님들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저희 학인들은 모든 종도가 화합할 수 있고 안정된 종단속에서 평화롭게 부처님의 혜명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총무원장 스님 94년도 개혁불사를 상기하시고 우리 학인들이 진실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 위원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3선 출마'를 반대합니다.

3선 반대를 명시한 종헌을 종단 최고 행정책임자가 먼저 어기고 3선 출마를 강행한다면 종헌종법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국가의 국법을 어긴 범법자와 같은 것입니다.

3선이 안된다고 종헌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소수 권승들의 세속적이고 반승가적인 독선과 아만으로 3선의 당위성을 강변하여 종단의 대립과 분열을 조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인들은 화합을 파하는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하며 극소수 권승들은 종도들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총무원장 스님은 3선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종단은 일대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94년도 개혁불사와 같은 그런 불행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수십년간의 활동으로 쌓아온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의 대사회적 위상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인들은 하루빨리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과 '총무원장 추대위'가 우리 종단이 처해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종도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3선 불출마 선언을 천명하시길 진심으로 권고 드립니다.
석림회는 종헌종법을 어기고 3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후보 추대위'의 즉각적인 해체와 종도들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앞으로 21C 불교를 짊어지고갈 한국 불교의 동량인 우리 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십시오.

석·림·회·의·요·청

- **'송월주 스님 후보 추대 준비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장 불출마 선언'을 언론에 발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 3선출마와 관련된 권승들은 사부대중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석림회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3선을 강력히 반대하여 위법망구,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21일

동 국 대 학 교 석 림 회

새로나온 책



▲전등록4=문재현 법사(대한불교정맥전승회장)가 번역한 이 책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등록'의 네 번째 권. 여기에서는 〈경덕전등록〉 30권 중 21권부터 25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임제선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불조정맥(佛祖正脈)도 밝혀 놓았다. 어려운 부분은 각주를 달아 이해를 도왔다. 〈바로보인, 1만8천원〉



▲그리운 집=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마음을 다친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살아간다.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지어진 집을 향한 영원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김초혜 시인은 읊조린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살아가야 할 이 육신의 수고로움 속에 있다고 말한다. 즐거움과 괴로움, 집착과 분노를 아는 지혜가 삶의 경계임을 노래한다. 〈작가정신, 5천원〉



▲청소년을 위한 에세이로 읽는 채근담=〈채근담〉은 중국 명나라 홍자성이 지은 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비유해서 쓴 글이다. 여기에 실린 3백16가지의 이야기들은 부귀와 공명이 헛됨을 역설하고 진정한 자아의 가치를 일깨운다. 설명대신 재미있는 우화를 수록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했다. 〈일출, 6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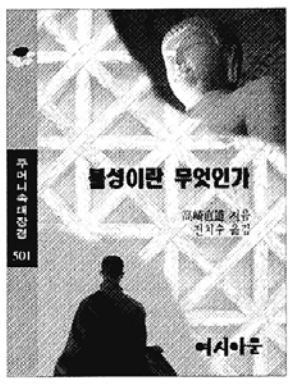
▲사군자=사군자는 고고한 선비정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에는 탈속의 고고함과 선적 여유가 깃들어 있다. 저자인 문인화가 유수종씨(한국 현대문인화연구회장)는 사군자야말로 선(線)의 예술이자 선(禪)의 예술이라고 말한다. 초심자라도 도본과 부록의 설명을 따라가며 익히다보면 쉽게 사군자를 배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예서원, 12만원〉

'불성의 자각' 자기반성에서

도서출판 여시아문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성의 어원과 의미 '분석'
여래장사상 상세히 설명
모든 생물의 존엄성 강조

동경대 다카사키 교수의 글
전치수씨 우리말로 옮겨



대부분의 불자들은 '불성'이라는 말을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본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는 불성이 의미하는 뜻의 보편성만을 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분명 '부처가 될 수 없는 중생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그렇다면 불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일체중생에게 불성은 있는 것인가.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문화·학술편의 첫 번째 권인 〈불성이란 무엇인가〉는 불성이라는 말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여러 경전을 통해 이같은 의문을 풀고 있다. 학술서이지만 불성의 의미를 좇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신행서로도 손색이 없다.

일본의 불교학자 다카사키(高崎直道·동경대 명예교수)가 불성에 대해 강의했거나 잡지 등에 발표한 원고들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을 전치수씨(전 동국대 강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불성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불타의 성질'을 뜻하며, 〈열반경〉에 나오는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는 구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불성을 대신해 '여래장(如來藏)'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인도의 모든 경전과 무착·세친 등의 여러 논사들이 저술한 논전을 보아도 여래장이라는 말이 불성보다는 먼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여래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불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래장이라는 말이 불성보다 시기적으로 먼저이기 때문에 여래의 본성이라는 여래장을 풀이하여 불성으로 표현하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성의 출발은 어디일까. 저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성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작이라고 말한다. 즉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행을 구현하지 않는 한 불성이 있다고 해도 없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불성의 자각이란 끊임없는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불성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 제1장에서는 불성의 어원과 의미, 깨달음과 자성청정심 등의 수많은 개념에 대한 설명을 끌어들이고 있다.

제2장은 부처님과 같은 말인 '여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보성론(寶性論)〉이라는 논전을 비롯해 〈여래장경〉 〈열반경〉 〈승만경〉 등 몇몇 대승경전을 통해 여래장 사상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불성과 여래장에 대한 현대적 해석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제시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이르기까지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마음 안으로부터 발산하는 것을 저자는 불성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결론을 맺는다. 값 4천5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의 종교문화 이해 불교를 알아야 가능"

최준식교수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가 펴낸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사계절 刊)는 불교가 한국의 종교문화를 결정지은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또 무교와 불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도 흥미롭다.

이 책은 먼저 불교를 세계 종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로운 모습과 이성적인 가르침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민족에 자리잡은 불교는 수준 높은 교리와 종교적 실천을 행함으로써 한국종교문화의 근간을 이루게 됐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달리 종교적 기능이 약한 유교나, 너무 개별화되어 있고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한 샤머니즘(무교)보다 불교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교적 위안을 찾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의지처를 제공하고 위안감을 주는 중요한 기능 외에도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을 가르쳐왔던 불교가 엄격한 규범을 강조하는 유교와 비교한다면 불교는 분명 '엄마의 바다'와 같은 종교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불교와 무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영향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무당들이 제단에 불상을 모시는 등 불교의 구원관이나 의례, 세계관, 자비심은 '불교 품 안의 무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무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도 밝히고 있다. 값 1만2천원. 한명우 기자

성불의 길은 불퇴전의 신심

보광스님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경'



〈반주삼매경〉은 〈현재제불실재전립삼매경〉이라고도 하며, '현재에 제불이 모두 앞에 나투시는 삼매경'을 의미한다. 즉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중국 후한 때 지루가참(支婁迦讖)이 한역한 것을 보광스님(동국대 1백주년기념사업본부장)이 우리말로 옮긴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경〉(대각출판부 刊)은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한글대장경 〈반주삼매경〉의 내용을 보완하고 주석을 붙여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이 책은 지루가참 한역본 3권 16품을 모두 번역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그 뜻을 더욱 쉽게 풀이했다. 후기에 〈반주삼매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간략히 서술해 놓음으로써 이 경의 원뜻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다.

〈반주삼매경〉은 불퇴전의 신심을 가지게 되어 극락에 왕생해 성불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관음신앙의 모든것 쉽게 해설

이동형씨 번역 '관세음보문품 강의'



중국의 원영스님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강의한 것을 엮은 〈관세음보문품 강의〉(지영사 刊)는 올바른 관음신앙의 의미를 알게 해 준다. 원영스님(1878~1953)은 임제종의 40대 조사로 일컬어지는 스님으로 중국불교 부흥에 힘썼다. 옮긴이는 이동형씨.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법화경〉 제25품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위신력을 설명해 놓고 있다. 이 책에서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원문과 간단한 해석을 싣고 원영스님의 강의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내용과 관련해 전해지는 증험부분을 넣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값 9천원.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 제 열	여시아문
4	화두, 혜능과 셰익스피어	김 용 옥	통 나 무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6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7	신도포교지침서(하)	성 일	불 광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 광
10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고명석·고광영	대원정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인연 닿는대로 발길 닿는대로 | 남산스님 지음

자유는 선과 악의 갈등 겪지 않는 것



얼마전 〈파스요법〉을 출간해 화제에 올랐던 남산스님의 〈인연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는 스님이 경험했던 갖가지 이야기를 묶은 산문집이다.

자신에 대한 참회는 물론 부조리한 사회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히 드러냈다. 하지만 이야기 끝엔 따스한 희망을 걸어 놓았다. 나눔과 사랑을 욕망으로부터 지키는 것, 마음의 부처를 지키고 이웃도 지키며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선과 악의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유임을 말한다.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듯한 친근한 느낌이 드는 책. 〈명상, 8천원〉

화제의 책

내 꿈 안에도 그대의 향기 있네 | 황다연 지음

세상곳곳에 부처님이 계신 까닭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저 느낌이고 믿음이란다. 아무 말도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독한 사랑임을 안다. 세상에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이도 있으니까.

에세이집 〈내 꿈 안에도 그대의 향기 있네〉는 불교니, 부처님이니 하는 말은 별로 없다. 불교가 좋다고, 부처님 법이 위대하다고 애써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일상의 단편들을 잃기 쓰듯이 썼다. 그러나 어느 곳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 가피가 어떤지도 느낄 수 있다. 저자의 붓이 부처님 세계를 한층 승화시켜 채색했다. 〈지혜네, 8천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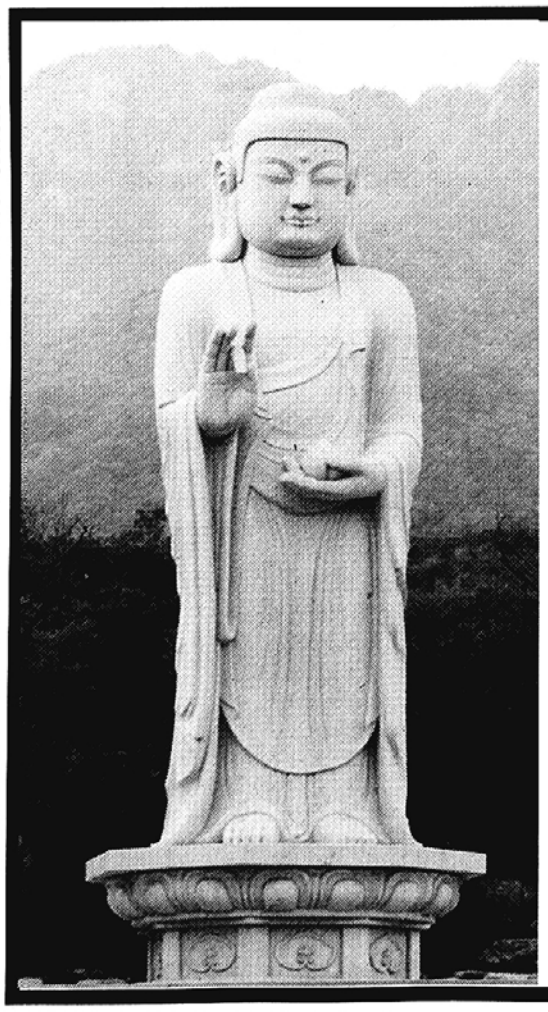
답사여행의 길잡이 12 | 문화유산답사회

충북지역 불교유적 꼼꼼히 소개



중원문화권의 핵심을 이루는 충북지역에는 생각보다 불교유적이 많다. 이 책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의 열두 번째 권으로 이 지역의 다양한 불교유적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우리나라 석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 봉황리의 마애불상군을 비롯해 진천의 용화사 석조보살입상, 충주·월악산 지역의 청룡사터, 제천·단양지역의 향산리 삼층석탑, 법주사 등 각 지역을 8개 코스로 나눠 불교유물 및 사찰들을 수록했다. 사진과 안내도를 넣어 답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베개, 1만원〉



IMF시대 종단의 화합과 영남불교의 발전,
가정의 화목과 경제난 극복 및 민족통일의 선연을 심는

팔공산 동화사 약사여래 100일 기도

국난때마다 참다운 정기를 발현해온 민족의 영산 팔공산에 겨울에도 오동꽃을 피운 봉황의 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대본찰 동화사에서는「약사여래 100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금번 100일 기도는 국가적 위기인 IMF시대를 맞이하여 도산과 대량실업 등의 사회불안 속에서도 가정이 화목하고 경제난이 극복되며, 민족의 통일세계가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염원하고, 종단이 안정속에 화합하며, 지역불교가 하나된 가운데 새로운 발전으로 향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동화사의 전래중 및 지역의 많은 불자들이 간절한 기원으로 함께하는 이 선연의 원력기도에 많은 불자님들의 불심어린 동참을 기원드립니다.

약사여래 100일 원력기도 동참안내

* 입제(기도 시작일) : 1998년 10월 27일
* 회향(기도 끝나는 날) : 1999년 2월 3일
* 기도 법사 : 동화사 性德 주지스님
* 기도 시간 : 매일 오전3시, 오전10시, 오후6시
* 장 소 : 동화사 통일대불전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주지 性 德 합장

'정보화사회 불교화' 원 세우자

교수불자련 10주년 세미나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

참선 방법론 다양하게 개발해야
불교환경학 정립 환경문제 해결

밀레니엄시대를 맞는 인류에게 당면한 과제로 대표되는 정보화와 환경 · 경제문제에 있어 한국불교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가.

'21세기 한국불교의 좌표'를 주제로 24일 충주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조희영) 창립1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용정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고도로 자각된 순수자아인 이성의 차원까지도 초월하며, 서양의 합리적 이성을 포섭하는 변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정보화사회, 다원화사회 등 복합문화와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교의 정신문화를 사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정착된 민주주의문화와 경제적 · 사회적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 이해없이 불교의 정신문화를 접목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특히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공존해야만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한국불교가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선의 방법을 보다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지식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제1발제 '21세기 한국불교와 정보화'에서 이동한 교수(충북대)는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한국불교의 과제는 정보화 사회를 불교화하는 원(願)을 세워 불교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에 관련된 정보현황을 올바르게 해명하고 교리의 정보화에 아이디어를 내며 불교서적의 저술 활동을 통해 불교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교수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성과 개별성, 그리고 허구라고 하는 정보의 속성 때문에 정보화의 부정적 측면은 숙명적으로 발생한다"고 전제하며 "불교에 관련된 정보매체를 올바르게 구성함으로써 선과 진정한 자아와 세계를 통찰하고 현상의 본질적 요소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의 불교와 환경문제'로 제2발제에 나선 이병인 교수(밀양대)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불교의 구체적 발현을 위한 학제간의 연구학문으로서 '불교환경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무소유적인 삶, 모든 만물의 본질적 가치와 존재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주는 화엄사상과 윤회사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윤리와 행동규범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교수는 "불교를 제외한 기존의 종교 및 철학에 있어 윤리도덕의 주체와 행위의 대상은 오직 인간뿐이였다"며 "여기서 비롯되는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발제에서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21세기 불교와 경제문제'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바르게 쓰기까지 해야하는 보살의 경제윤리를 지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박교수는 "우리는 현재 경제문제에 임시방편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처방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슈마허가 말한대로 '영혼과 양심, 그리고 도덕적 목표' 등에 대해 기탄없이 토의할 수 있는 차원높은 경제학이 새롭게 개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바른 경제생활'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명(正命)사상 △성장보다는 환경과 분배에 맞춘 경제정책 △대량생산체제에서 중간기술에 의한 생산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등을 제시하고, "보살경제 또는 인간적 경제 이념을 담고 있는 불교경제이념을 통해 차가운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극복되고 따뜻한 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한국교수불자연합회 10년

- 1988년 2월27일, 창립
- 1989년 1월 인도 성지순례
- 1990년 7월 제1회 한 · 일 불교학술회의
- 1997년 9월 한 · 독 국제학술회의
- 1988~1998년 춘 · 추계 학술세미나, 수련회 개최
- 학술논집 〈불교의 현대적 조명〉(89) 〈한국불교에 띄운 화두〉(90) 〈현대사회와 불교윤리〉(91)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92) 〈오늘의 사회문제 그 불교적 대응〉(94)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98) 6집 발간.
- 현재 동대, 연대 등 1백20개 대학 9백여명 회원 활동중.

동국대-日 대정대 '문학에 드러난 불교' 학술교류회의 열렸다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의 제11회 학술교류회의가 '문학에 드러난 불교'를 주제로 15일 일본 대정대학에서 열렸다.

'선시(禪詩)의 세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법산스님(불교대학장)은 "선시는 깨달음의 경계에서 견문각지(見聞覺知)의 직감으로 자아를 참구하여 돈오자성(頓悟自性)의 계기를 갖도록 표현돼 있다"며 "선시는 문자적 시구(詩句)를 빌렸을 뿐 공안(公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망상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고전문학의 불교코드'에서 임기중 교수(국문과)는 "불교문화 코드는 우리의 서사문학에 중요한 구성원리와 깨우침의 교훈요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 현대불교문학의 현황과 전개'에서 홍기삼 교수(국문과)는 "현실초월이라는 불교문학에 대한 관견을 극복하는 길은 불교문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응합할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말레이지아 불교협회

480여 불교단체 활동상황 '상세히'
웨삭데이 공휴일 지정노력등 담아

이슬람교도 45% · 불교도 35% · 힌두교 10%. 이같은 종교인구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류 종교로 우뚝 선 말레이지아 불교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자국의 비정부 불교기구 480여개 단체를 아우르는 '말레이지아 불교협회(Malaysian Buddhist Association)' 사이트가 바로 그 것.

불교협회는 말레이지아 불자들의 우의증진과 상호간의 일치단결을 촉진하고, 불교의 계을 준수, 불교 홍포, 사회복지사업 증진, 도덕성 향상, 종교적 화합 등의 목적으로 1959년 4월19일 창립됐다. 현재 이 곳에는 말레이지아의 사찰과 각종 불교관련 협회등의 단체를 포함, 485개 기관 ·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회원의 수도 2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불교협회 산하에는 전국적으로 27곳의 지부와 지소가 결성되어 있으며, 말레이지아불교연구소(Malaysian Buddhist Institute)를 비롯 10여개를 부속연구기관으로는 설치해 놓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불교협회가 말레이지아 국민과 불교도들의 권리와 권익옹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운동을 소개받을 수 있다. 불교협회가 전개하는 운동에는 △말레이지아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데이(Wesak Day)를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투쟁 △불교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모든 불교관련 영화제작을 미연에 막기 위한 국가 영화검열위원회와의 공조 △불교사찰건축에 대한 관리권 획득 △말레이지아 정부에 의해 비(非)이슬람교도에 대한 후다드 법(Hudad Laws)이라는 종교 관련 법 시행 반대 운동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여타 종교들과의 다등한 관계 설정 및 상호간의 권리보호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불교협회는 △포교 · 교육 · 자선 △불교청년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부속기관들을 신설해 놓았다. '포교' 분야에서는 불교협회의 주요 목표를 준수하고,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 마음 닦는 일, 불교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곳의 자료실에서는 말레이지아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순호법회와 각 스님들의 인물사진 및 법문을 열람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불교관련 문화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자선' 분야에서는 신장병 환자를 우하여 말레이지아 신장보호협회(Renal Care Association)와 협조하여 신장병에 필요한 신장투석(透析)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교협회의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빈곤층으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가난한 가족이나 개인이 사망하여 장례용관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 관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장례비 일체를 지불해 주기도 하며, 응급환자를 위한 헌혈운동도 한다.

'불교청년' 분야는 1986년 불교협회의 전국 대표자회의 협호에서 마련돼, 말레이지아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세부 교육 자료에 대한 다운로딩(가져오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www.jaring.mt/mba/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국의 사리탑양식 日에 영향"

성철선사상硏 '선불교와 사리탑' 학술회의

"성철대선사 사리탑 파격적 장식 생략"

"한국의 사리탑은 석조부도로서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전형적 양식을 보이며 독창적으로 발전해 일본 사리탑에 영향을 미치고, 큰스님의 깨달음과 수행정신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성철스님 열반 5주기를 맞아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가 23일 대학문화원 대강당에서 '선(禪)불교와 사리탑'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학술회의에서 '사리신앙(舍利信仰)의 종교성'으로 기조발제에 나선 목정배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의 독특한 신앙 가운데 하나인 사리신앙은 물핵(物核)이 아닌 심핵(心核)의 빛을 신앙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깨침을 자기화하려는 염원의 신앙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1발제에 나선 장충식 교수(동국대 불교미술)는 '구산선문과 사리탑'에서 "구산선문의 개산조 또는 개창자 부도의 기본 형식은 다보탑의 탑신부에서부터 출발했을 뿐만아니라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팔각원당형부도(八角圓堂形浮屠)로 알려진 이 형식은 불국사 다보탑에 나타난 방주(方柱)의 기단 위에 올려놓은 탑신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9세기 이후 선종미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는 제2발제 '한 · 중 · 일의 부도'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부도는 각각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건조재료"라며 "중국을 전조(塼造) 부도, 모전석조 부도, 석조 부도 등 다채로운 재료의 부도라고 할 때 한국은 석조 부도로 일관하였으며, 일본은 목조 부도의 나라"라고 밝혔다.

제3발제 '성철 대선사와 그 사리탑'에서 홍윤식 교수는 "원과 반구, 구로된 구조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선적 표출양식에 적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철 대선사의 사리탑은 종래의 재래적 사리탑에 비하여 장식적인 면에서 파격적인 생략을 도모했다"며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자유자재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철스님의 전인적 인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달마



인터넷 사이트 달마캣(http://www.dharmat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해설 온갖 경계는 마음이 그릇되게 움직여 일으켜 놓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그릇되게 움직이는 것을 제거하면 온갖 경계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심이 두루 아니 미침이 없게 된다.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토굴의 효능을 살아숨쉬는 체험하십시오

●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5-6045
FAX: 0551)283-6531

(봉) 혜인스님 초청 (행)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

▣ 일 시 : 불기 2542년 11월 2일 오후2시
▣ 장 소 : 국제문화센타 4층 대강당 (부산교육대학 앞)
▣ 행사명 :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
▣ 초청법사 :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주지)
▣ 주 최 : 성원그룹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T. (051) 816-3680

귀의 삼보하옵고
그동안 성원그룹의 정상화를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그룹은 불자님의 성원과 부처님의 원력으로 법원에 제출한 화의 및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시판정이 11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의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의 원력으로 화의 및 법정관리가 성취되어 성원그룹이 재발심하여 국가발전과 불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한 마음으로 기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10월 좋은날

성원그룹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본부장 혜 총 합장

※ 동참하신 불자 전원에게 법구경 테이프 셋트(4개)를 증정합니다. ※

青潭大宗師 27週忌
追慕 大法會 案內

「청담 대종사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2년 11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 (02)993-5002
종무소 ☎ (02)993-3161~3
F A X ☎ (02)993-3164

불기 2542년 11월 2일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도선사 주지 차동광
청담 문도회 일 동
합 장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69

달마의 파도 ②

당시의 낙양은 산업과 교역의 난만한 국제도시였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면서 중원의 관문인 이곳에 거대한 불교사원과 고층탑이 지어졌다. 황실의 명으로 수십년에 걸쳐 지어진 영녕사에는 높이가 90장, 적어도 200미터가 넘는 9층탑이 있었다. 성 밖 백리에서도 그 위용이 보였고, 여기 올라서면 눈 아래 안개 구름 사이로 도성 안의 집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한다.

이방의 서역승들은 황실과 귀족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아 경전을 번역하고 강의를 하며, 법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 화려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승려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멀리 변경에서 막 도착하여, 탑의 금반이 햇빛에 빛나고, 보탁이 바람에 울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이 150의 그 순례자는 이토록 훌륭한 절은 처음이라면서 나무 나무를 외우며 합장을 거듭했다(〈낙양가람기〉)," 이것이 달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나로서는 아무래도 여기 언급된 페르시아 승려가 선의 초조인 그 달마같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 처음 온 시골 촌로의 순진한 감탄이 있을 뿐, 새로운 불교운동의 개창자로서의 서슬퍼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제와의 대화'에서 달마는 철저한 독립적 정신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그는 경전을 번역하지도 않고 이방의 낯선 교설을 해설하려 하지도 않았다. 의식(儀式)을 집전해 내세를 보증하거나 신이(神異)를 행해 세간의 관심을 끌려 하지 않았다. 그는 교학으로서의 불교의 한계와 그 소외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넘어 불교의 근본정신과 손잡으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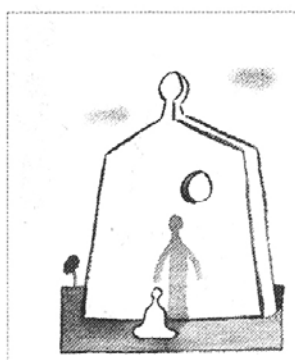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비어있는 마음을 자각하자

달마는 실존적인 '삶의 문제' 해답 제시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것이 있다. 선(禪)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선 이전의 것을 무시하고, 선 이외의 것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후한(後漢)때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위대한 번역사들과 그 후원자들, 그리고 일반대중의 헌신과 귀의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불교가 있었겠는가. 달마의 비판과 도전은 거꾸로, 불교가 이미 중국에 든든한 토대를 구축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 배경을 떠나 선을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이 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제발 바라노니, 처음 불교를 알고자 찾아온 학생들에게 "부처는 본시 없는 것이야"라든가, "불교는 철저한 자력(自力)의 종교이므로 기도나 참배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경전을 딛지 않고는, 교학에 걸려 넘어져 보지 않고는 선을 말할 수 없다!

만법(萬法)은 결국 하나로 귀일(歸一)한다.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창시자가 던졌던 바로 그 물음이었다. 달마는 수많은 논사와 주석가들, 그리고 의식집전자들에 의해 묻혀져 있던 그 의제(agenda)를 전면으로 부각시켜 실존적 해답을 촉구한 것이다.

혜가가 물은 것은 단순 직절한 것이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근원이나 초월자, 혹은 사물의 원리에 대해 묻지 않는다. 심지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묻지 않는다. 그것들은 두루 한가한 잡담이다. 내게 부닥친 문제는 지금 내가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 바로 그 실존적 사실 하나이다.

달마의 해결책은 여느 설교가와는 달랐다. "네 마음을 가져와 보라. 그러면 고쳐주겠다." 달마는 마음을 이러저러하게 운용하라고 충고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마음의 정체, 그 '비어있는(空)' 본성과 사무치게 만날 때 그때 문제가 한꺼번에(頓) 해결될 것이라고만 일깨운다. 이를 선은 나중에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모토화했다.

이런 점에서 선은 대승공관(大乘空觀)의 확장, 혹은 실천적 적용이기도 하다. 관건은 비어있는 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 달마의 면벽(面壁) 9년은 바로 그 보임(保任)의 세월을 가리킨다. 벽(壁)은 차단이며 방호벽이다. 마음, 혹은 불성으로 침투 훈습해 들어오는 일체화(identificatin)의 오염을 차단할 것. 이때 경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경험을 물러싸고 강화되는 자아의 고착과 확대이지 경험 자체가 아닌 것이다. '식은 재, 죽은 고목'을 어디다 쓰겠는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세상을 관심 갖고 보라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9

정정은 마치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비슷하다.

로버트 에익컨이라는 미국인 스님이 한분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길 원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동해안 인접 국가인 일본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었기에 웬만한 정치·경제적 배경이 없는 사람은 일본 방문이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입국비자를

정정 ④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죄송하지만 비자를 내줄 수가 없군요. 전시가 아닙니까. 양국 정부는 당분간 민간인의 입·출국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에익컨스님은 주미 일본대사를 만나길 청했다. 잠시후 학식과 인덕을 갖춘 대사를 만날 수 있었다. 대사는 차를 권하며 "왜 일본에 가려고 합니까. 인접국가에서 전쟁중이라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때 에익컨스님은 "누구든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히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잠시후 에익컨스님은 일본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상 놓고 분별심 없이
유·무정물과 관계 맺으면
자기마음 타인에게 전달

만약 우리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인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에익컨스님의 승복 옷 소매 속에 숨겨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우리는 신문과 잡지에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한다. 이것들은 그 양과 내용만으로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또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세간의 삶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단지 산책하는 것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앉아서 차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핵무기 경쟁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리가 아상(我相)을 놓고 대지와 공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떨림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정치적이지 않아도 자신과 타인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유·무정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된다.

이같은 이유에서 정정 즉 바른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고향이란 집착, 감정, 몸, 생각, 상상 등 변화의 속성을 갖는 온갖 것과 연관이 없다. 고향은 바로 '오름과 내림' '밝음과 어둠'과 같은 변화의 이중성을 바로 볼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숨결을 다듬고,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우리는 고향에 이를 수 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에게 있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신비스럽고 경외심을 일으키고 거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분명히 어떤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수긍하고 싶다.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같은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바로 이곳(세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너무도 짧기 때문에 그 곳에서 볼 수 있는 경이로운 사실들을 모두 목격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그 기간동안의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것과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 혹은 마음챙김의 정신은 우리의 실생활, 육체적 감각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에서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세간의 고귀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사랑이며, 마음챙김이란 바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이것을 되짚어 보면 깨닫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란 분별심 없이 나와 타인 그리고 모든 유·무정물의 마음과 감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이런 경구를 우리에게 주었다. "마음은 지옥에서 생기며 감정은 그 위를 지나간다. 따라서 마음은 분별이며 현재와 감정에서 생겨나며, 모든 것을 분해하려고만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8

불교와 수학

73

국난극복과 불교

김 용 운

고사리의 작은 어느 잎 하나에도 전체와 똑같은 구조가 있다. 복잡성이론은 이와같은 부분이 전체구조와 같은, 즉 프랙탈 현상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불교에서는 이 사상을 만다라의 구조에서 묘사한다. 만다라는 가운데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두고 화면 곳곳에 여러 부처를 배치하는데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철학으로 모두가 한결같이 온누리에 불심을 결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로 악(惡)의 만다라, 즉 프랙탈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안기부의 북풍공작, 국세청의 정치자금 모금, 권력의 부정융자압력 등 섬뜩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깡패사회나 다름없는 힘의 논리로 국가기관의 사유화를 시도했으며, 도저히 민주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대역무도한 행위이다.

이같은 악의 프랙탈구도는 하나의 뿌리에서 발생한 한국병이며 재벌, 대학, … 말단의 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배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IMF이고 국난이고 간에 남의 일인 듯 '어디 잘 좀 해보시오'라는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관리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되고, 기득권 세력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무슨 개혁이냐'는 논리로 악을 그냥 덮어두려는 속셈이 발동한다. 그리하여 국민들 사이에 '언제 한국인이 제대로 일해 본 적이 있어'라는 자학적 풍조를 만연시킨다.

복잡성이론은 다윈의 고전적 적자생존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발(創發)의 개념을 내세운다.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 무리는 모래나 흙이 묻은 고구마로 사육되었으나 6년이 지난 어느날 그중 한 마리가 바다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다른 또 한 마리가 그것을 하게되고 그 수가 차츰 늘어 일정한 수에 달하자 그 섬 안의 원숭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그것을 보지 못한 원숭이들까지도 모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이것과 유사한 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복잡성의 과학은 한 종의 집단에서 진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개체가 일정한 수에 도달함으로써 전체가 그 행동을 하는 계기를 새로운 성격의 창발(emergence)이라고 한다. 진화는 생존경쟁이 아닌 집단의 일부에 새로운 지혜가 싹틈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행동이 전체의 성질을 바꾸기도 한다. 99마리가 행동할 때까지 전혀 무관심했던 나머지 전부가 마지막 100마리째의 행동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다. 서울의 거리를 날아다니던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나비효과)는 사실이 실감되는 순간이다.

한 수행자가 대승적 자비로
온누리에 빛을 더할 수 있듯
악의 프랙탈 만다라 세계로 전환

복잡성이론은 사회적 질서, 민족심리의 미묘한 변화도 설명한다. 흔히 보는 군중심리의 발생도 그 보기이다. 종전에는 신비롭게 표현되어 온 사회적 현상이 창발이론으로 설명된다. 가령 A. 스미스는 시장을 자유방임해도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지 않는 신의 손(섭리)'으로 설명한다.

이 사실은 곧 몇 사람의 경제적 행동으로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케 하는 일이 창발됨을 의미하고 있다.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인 원형의 형성도 같은 이치에서 형성된 것이다.

한 수행자의 대승적인 자비의 마음이 온누리에 빛을 더 할 수 있다는 불교적 신념은 불심의 창발이다.

이순신 장군을 괴롭힌 것은 왜군보다는 공을 시샘하는 고관이었으며 또한 원균의 군대는 이순신 군의 분전을 보고도 외면하였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병 등의 활약으로 왜적을 물리쳤다. 일제 36년 그리고 독재정권 36년을 겪고 우리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단순한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닌, 민족 양심의 부활을 상징한다.

한국인은 위기를 곧잘 신바람으로 극복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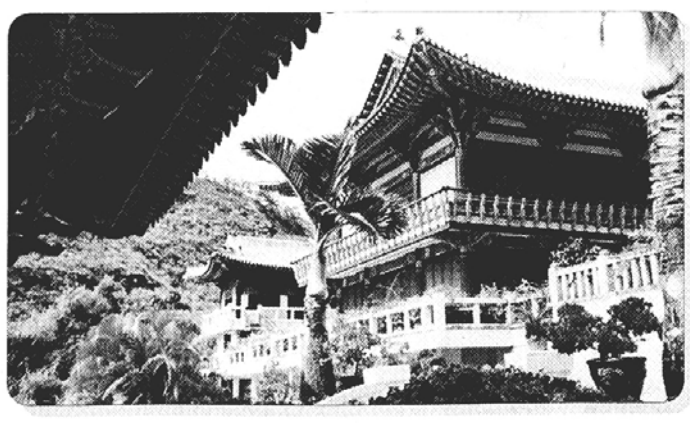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의병 또는 금모으기 운동을 경험했고, 오늘날에도 냉소주의자에 맞서 건전한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암세포처럼 만연한 한국병을 건전한 선의식으로 치유하는 일은 곧, 악의 프랙탈을 불교적 만다라의 세계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너 아닌 나 하나의 자각이 민족정기를 창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완공을 위한 "만등불사" 모연문



◀ 하와이 대원사 큰법당 명부전 · 종각 전경



▶ 마무리 불사중인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전경

부처님께서 항상 이르시되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더 어렵다."고 하시고, 깨끗한 신심을 지닌 재가신자로서 정법을 펴는 불도량을 건립하는 공덕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누누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 당시에는 빔비사라 왕과 급고독 장자등이 대시주자가 되어 각각 죽림정사와 기원정사같은 역사적인 대 가람을 창건하였고, 그 전통은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티벳과 남방불교권을 비롯하여 이곳 하와이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도량이 반드시 왕과 부호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가난한 할머니가 등하나를 부처님께 올림으로써 무량한 공덕을 얻은 가르침이 있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 도량을 향하는 깨끗한 그 마음과 지극한 그 정성인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하와이에 3천5백여평 대지 위에 대원사와 같은 여법한 불도량이 건립된 것은 불자님 한 분 한 분이 저 빔비사라왕과 가난한 할머니의 정성을 지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 대원사는 10여년에 걸쳐 추진해 온 기나긴 불사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3천여평에 이르는 웅대한 불교문화원이 완공되면 저희는 세계불교도 우의회(WFB)개최를 시작으로 전세계의 불자들에게 그윽한 법의 향기를 전하는등 미주에서 한국불교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하는 등 많은 뜻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사 불교문화는 해외에 지어지는 민간 단위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공사여서 저희들의 정열과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벌써 불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신 고국의 불자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무리 불사를 위한 "만등불사"에 동참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불사가 성취되는 날은 연등 하나 하나에는 저 급고독 장자와 빈자 일등의 정성이 깃들어 있으며, 또 만등의 연등이 하와이를 밝게 비추고 나아가 온세상과 허공과 법계를 두루 비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자님들의 공덕 또한 허공과 법계에 두루차고 빛날 것입니다.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건립 만등불사에 불자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동참비 : 1인 1등 만원(₩10,000) 서울은행 **14104-0219307** (예금주 권 도 현)

하와이 대원사 불교문화원 건립위원회 회 장 차 윤 진
대한불교 조계종 하 와 이 대 원 사 주 지 권 도 현 합 장

■ 주 소 : 2420Halelaau PL. Honolulu, Hawaii 96816 U. S. A.
■ 전 화 : (808)735-785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해바라기 꽃안에 동자가 눈을 그렁그렁한 얼굴로 웃고 있다. 자(慈)와 비(悲)를 표현했다.

수안스님 그림이야기



◇"이 몸으로 쌀을 만들어 임에게 올리고자…" '임'은 부처님인 동시에 중생이며, 모든 이웃이다.

詩·禪·부처님말씀 그리고 大願이…

고행 이겨낸 의지 담은
이국적 풍경속 수선화

초가집 둥그런 지붕은
한국인의 심성 닮았다

어머니는 영원한 고향
부처님은 중생의 어머니

삼천년만에 피는 꽃
우담바라 활짝 폈네

소나무의 파릇한 솔잎이 모두 12개, 둥근 지붕 및 창문살도 모두 12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바로 '12연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기가 돈다' 제목의 그림속 풍어는 108마리. 해바라기 꽃안에 동자가 순하게 웃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눈물 얼룩까지 선연하지만 천진한 웃음이 헤맑기 그지없다. 동자의 천진한 얼굴에 자(慈)와 비(悲)가 함께 형상화되어 있는 것.

선화(禪畵)로 유명한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이 21~27일 인사동 경인미술관 전시에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수행체험이고 설법이었다.

오랜 참선수행에서 풀어져 나온 수안스님의 그림에서는 맑은 기(氣)가 느껴진다. 선(線)과 색은 모두 4성체 8바라밀 8정도 12연기 48대원 108 번뇌 등 부처님가르침에 입각하고 있으며 표현 하나하나가 자비심과 육바라밀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불사기금마련전과 불우이웃돕기 전시회를 열어왔다. 1979년 이래 이재민돕기 선묵전을 개최한 이래 부산 선암사중창불사기금마련전, 중앙승가대 건립기금마련전, 불광사유치원 및 포교사교육센터건립기금마련전, 소년소녀가장돕기선화전 등등. 누군가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선뜻 그림을 쾌척하는 수안스님. 스님의 바탕은 오로지 우리 모두 더불어 살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악필(握筆)로 주먹을 쥐듯 붓을 잡고, 기도에서 갈고 닦아진 마음을 한데 모아 부처님 법열의 환희로움속에서 탄생되는 수안스님의 그림에는 천진불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 늘 경화스러움과 행복감을 준다. 스님의 그림에는 벙글벙글 웃고 있는 동자가 자주 등장한다. 그 동자는 발우를 들고 있다. 이 발우는 참된 행복을 담아주는 발우다. 빛나고 복되고 행복된 삶. 항상 새롭고 환희로운 삶. 스님의 그림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가르침에 따라 살면 된다는 말없는 법문을 하고 있다.

"온 세상 다 품안에"

날개를 활짝 펼쳐든 학. 가볍게 치켜든 왈(날개)로 온 세상을 다 품었다. 마음의 벽을 허물면 온 천지가 내 것인데 벽을 세우는 바람에 이만큼밖에 못 가지다니.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주인도 되고 우주도 내품안에 넣을 수 있는데 왜 돈과 명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 그 멍에를 쓰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일까.

"수선화가 더욱 곱다, 눈속에서"

어느 날 새벽 남도의 이국적인 풍경속에서 문득 눈에 띈 청초한 꽃 수선화.

찬서리 북풍 한설을 다 물리치고 봄소식을 알려준 꽃망울이 곱디 곱다. 봄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반가운 이유도 차가운 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닐까. 고난에서 얻은 성취가 더욱 귀하며 힘난한 수행을 거쳐야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모곡"

어머니는 모든 이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중생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고통에 빠진 인간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다독여주고 참회의 눈물을 닦아준다. 모든 거짓을 훌훌 벗어버리고 고향으로 가리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세상 다 들어봐도 쉴 곳이 없으니 작은 가슴 할딱거리며 나 어머니 품으로 가리라.

"진수무향(眞水無香)"

사람들의 심성은 자기가 태어난 산천을 닮는다. 사는 집의 모습도 산천을 그대로 닮는다. 한국의 하늘과 산과 개울에 잘 어울리는 초가집. 그 둥그런 지붕은 영락없이 한국인의 선한 심성을 닮았다. 초가집에 딸려있는 사랑한 창의 창살이 모두 48개. 그안에 사는 이들은 "반드시 성불을 이루었다"는 법장비구의 48대원처럼 지극한 원을 세우고 수행정진한다. 아무 맛과 색이 없지만 갈처럼 여여하면서도 거침없는 길을 가겠노라고.

"중생즉불(衆生卽佛)"

얼음과 물은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얼음으로는 목욕이나 빨래를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녹아 물이 되면 목욕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다. 중생으로 있을 때는 무명에 갇혀 어둠속을 헤매이지만 한순간 무명을 타파하면 부처가 되어 자유자재해진다. 갈장이 응응 얽어있으면 자비는 나올 수가 없다. 얼음이 녹듯 갑장이 녹리면 자비가 나온다.

"행복을 만드는 묘수동자 보현동자"

묘수는 지혜요, 보현은 행원(行願)이다. 양쪽이 다 겸수해야 이상적인 불자의 모습이다. 지혜와 행이 없는 불자의 삶은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빈 껍데기 이다. 지혜와 행이 조화되지 못하면 행복이란 없다.

"차나 머금세"

여보게 벗, 차가 있네. 차 머금으면 심신이 맑아지고 세상 모든 일 즐겁게만 보인다네. 몸은 사바에 머물지만 마음이야 속진에 물들수 있는가. 담담한 맛이 차의 묘미라네. 인간사 모두가 그러하듯.

"공양"

이름으로 향을 만들어 임에게 공양하고자
이름으로 등불을 만들어 임에게 비치고자
이름으로 차를 만들어 임에게 마시고자
이름으로 꽃을 만들어 임에게 보이고자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기도로 갈고 닦은 수행에서 나온 그림이 수안스님의 선화이다.



◇초가집 창살에 48대원을 담은 '眞水無香'. 참된 성품은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향내가 널리 퍼져 주위를 환하게 한다.



◇삼천년만에 피는 꽃 우담바라가 활짝 폈네. 오랜 수행정진 끝에 깨달음의 꽃이 활짝 피었네.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순창 안정리 미륵불

두광에 연화무늬 장식

오른손에 지물들고 있어 약사여래불로 추정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10월 추령 장승축제가 열리는 순창을 찾았다. 산의 중심인 분지를 기차가 달리고 달린다. 동서남북 보이는 것은 산, 산 뿐이다. 기암절벽 사이사이에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매달려 있고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냇물은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미륵불이 어디있습니까' '돌로 만든 부처님 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도 한결같이 모르겠다는 대답 뿐이다.

지리산과 연결된 회문산을 찾았다. 6·25 당시 빨치산의 본거지로 주민들이 이유없이 희생당한 민족한이 서린 곳이다.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에 있는 미륵불은 시냇가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밭 한가운데 서 있다. 다듬어지지 않는 기둥 4개에 사각불지붕을 하고 몸담을 두른 조그만 양철 보호각 안에 비스듬하게 서 있다.

석불의 키는 1m50cm 정도며 큼직한 육계에 소발이며 이목구비는 오랜세월 풍화작용으로 마모돼 있다.

목에는 삼도가 없으며 법의는 포복식 통견의 옷과 소매깃이 아래로 늘어져 있다. 의문은 간단하게 처리됐으며 크고 작은 돌무더기로 대좌를 이루었고 광배는 부처님 몸과 하나의 돌에 새겨진 거신광배이다. 두광은 하나의 용기선으로 원을 이룬 다음 연화무늬로 장식했다.

답사에 참가한 석불문화연구회 유영렬 사무국장은 "수인이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수광으로 가슴아랫부분에 모으고 있는데 오른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사여래로 추정된다"며 "석불과 보호각의 모습이 이곳 주민들의 한이 서린 정서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영동 여성보살

관대위에 화불로 보아 고려시대 관음보살상

고증: 정영호 박사



충북 영동 반현마을의 여성보살(사진·본지 187호 보도)은 관대위에 화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상이다. 얼굴 및 머리광배는 호분을 칠해 화려하고 선명하다.

석불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가사는 두껍게 처리한 통견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가슴을 U자형으로 깊이 드러내고 장식물의 흔적이 보인다. 불상의 미를 중요시하고 조각형태등이 매끄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조성된 것이다. 특히 관음보살은 지방적인 특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방호족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음보살상이어서 원래는 사찰에 있었을 것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석

42장경

(2)
(佛言)出家沙門者 斷欲去愛
(불언)출가사문자 단욕거애
識自心源 達佛深理 悟無爲法
식자심원 달불심리 오무위법
內無所得 外無所求 心不繫道 亦不結
내무소득 외무소구 심불계도 역불결
業
업
無念無作 非修非證
무념무작 비수비증
不歷諸位 而自崇最 名之爲道
불력제위 이자숭최 명지위도

'출가사문이란 욕망·애욕을 끊고 제 마음자리의 근원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도리에 통달하여 무위법을 깨닫는 것이다.

안으로 달리 얻을 바가 없고 밖으로 달리 구할 것이 없으며 마음은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한 업을 짓지도 업에 매이지도 않으니 생각 생각마다에 함도 없고 지음도 없어 닦는다, 깨달아 얻는다도 없다.

그러기에 모든 과위를 밟는다 할 것 하등위십 신삼구사의삼
身三者 殺盜婬
신삼자 살도음
口四者 兩舌惡口妄言綺語
구사자 양설악구망언기어
意三者 嫉恚癡
의삼자 질에치
如是十事 不順聖道 名十惡行
여시십사 불순성도 명십악행
是惡若止 名十善行耳
시악약지 명십선행이

'중생은 열가지 착한일을 하고 열가지 악한 일을 한다.

무엇이 열가지인가? 몸으로 셋, 입으로 넷, 생각으로 셋이 있다.

몸으로 짓는 세가지 악은 살생·절도·음행이다.

입으로 짓는 네가지 악은 이간질·험담·거짓말·속이는 말이다.

생각으로 짓는 세가지 악은 질투·성냄·어리석음이다.

이 열가지는 성스러운 도에 거슬리는 것이라 십악행이라 한다.

만약 이 열가지 악행을 그치면 그것이 십선행이 된다.'

"허물 있는데 스스로 뉘우치지 않으면 그 죄과는 어김없이 제몸에 돌아오니"

도 없이 절로 가장 높으니 이를 이름하여 '도'라 한다.'

(3)
(佛言)剃除鬚髮 而爲沙門 受道法者
(불언)체제수발 이위사문 수도법자
去世資財 乞求取足
거세자재 걸구취족
日中一食 樹下一宿 愼勿再矣
일중일식 수하일숙 신물재의
使人愚蔽者 愛與欲也
사인우폐자 애여욕야

'머리·수염 깎고 사문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간의 갖가지 물욕을 버리고 걸식으로 구하고 이에 만족해야 한다.

하루에 한끼만 먹고 숲에서 머물되 그나마도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게 가리는 것은 애욕과 탐욕이다.'

(4)
(佛言)衆生以十事爲善 亦以十事爲惡
(불언)중생이십사위선 역이십사위악
何等爲十 身三口四意三

(5)
(佛言)人有衆過 而不自悔 頓息其心
(불언)인유중과 이불자회 돈식기심
罪來赴身 如水歸海 漸成深廣
죄래부신 여수귀해 점성심광
若人有過 自解知非 改惡行善
약인유과 자해지비 개악행선
罪自消滅 如病得汗 漸有痊 損耳
좌자소멸 여병득한 점유전 손이

'사람이 많은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 죄과는 어김없이 제몸에 돌아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강물이 바다에 모여 점점 더 깊고 넓어지는 것과 같다.

만약 사람이 허물이 있더라도 스스로 잘못됨을 알아 악행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업은 스스로 소멸하게 되니 이는 마치 병에 걸려 땀을 흘리고 나니 점차로 병이 낫게 되는 것과 같다.'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오계와 십선계는

법천스님 〈건봉사 한주〉



· 1916년 경북 봉화 生
· 1928년 고성 건봉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사교과 수료.
· 1930년 설악산 오세암에서 탄공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 1934년 양주 봉선사강원에서 대교과 수료.
· 1940년 고성 건봉사에서 대련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 1945년 동국대학교전문부 문학과 2년 수료.
· 1981년 9월~82년 5월 단양 구인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 現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주석.

끊임없이 착한마음 키우고 잘못된 생각 지우려는 노력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이루게해요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설악산의 단풍빛도 본래 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청명한 가을하늘과 그 아래로 심심산천에 펼쳐진 설악의 단풍은 그대로가 자연의 경이로운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수천년동안 우리강산을 장엄하던 단풍마저 그 빛깔을 잃어간다는 소식이 어째 우리 중생의 모습과 그렇게도 닮아가는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태고의 진리를 우매한 중생들이 망각하고 있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3살 되던 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설악산 오세암에서 출가할 때의 설악의 모습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세암에서 탄공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후 백담사에서도 잠시 지냈고, 건봉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마쳤지요. 또 한때는 방한암스님이 계시던 오대산 상원사에서 강원도의 후원으로 만든 연합수련소에 제1회 수련생으로 뽑혀가 1년3개월간 수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어도 수련소에 가서 수련을 마쳐야 주지자격, 포교사자격을 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수련생활을 마치고 다시 건봉사로 돌아와 대교과를 다니다 양주 봉선사 강원이 좋다 해 그곳에 가서 강주 운허스님의 지도로 대교과를 졸업했습니다.

건봉사에는 올해 3월에 다시 왔습니다.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이 건봉사에서 전국염불만일회가 열리니 건봉사 출신인 스님이 가서 염불의식을 복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공부하던 곳이고, 염불의식을 복원하며 회향해야 겠다는 생각에 지금 열심히 염불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봉사에 머물기 전에는 원주 국향사, 불심사, 충북 옥천 월성사 등 여기저기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1년에 동국대 조명기 총장의 권유로 단양 구인사에 가서 의식과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비구 70명과 비구니 70명에게 의식을 1년반동안 가르쳤습니다. 목탁, 쇳송, 예불, 불공, 시식 등 의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초발심자경문〉도 가르쳤지요.

나는 처음 오세암에서 중노릇 할때부터 의식을 배웠습니다. 당시 신인공스님으로부터 배웠지요. 옛날에는 법문하는 스님은 범패어산을 못하고, 또 범패어산을 하는 스님은 법문을 못했는데, 인공스님은 두가지에 모두 능했습니다. 그때는 중되면 의식을 먼저 배워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었습니다.

요즘은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으면 다 중되는 줄 아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불교의식을 배우고, 〈초발심자경문〉을 배워야 사미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오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 공부를 다 해야 비구계를 받는 것이지요.

큰 재가 있으면 인공스님은 의식을 배웠으니 단련해야 한다며 나를 그 의식에 집어넣어 놓고는 거기에서 제대로 못하고, 발음이라도 하나 틀리면 나중에 불러내서 그것을 제대로 할 때까지 백번 천번 독송케 하고 야단을 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중노릇 할려면 의식도 다 잘해야 합니다. 겉만 중이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글을 배워야 오계 십계도 배우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됩니다.

이제 나이먹어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때 인공스님은 항상 오계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계를 지녀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항상 일러주셨지요.

우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교법을 믿는 것도 불교의 진리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가 닦고 행해야 할 덕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계행은 선근을 기르고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편입니다. 이러한 계행 가운데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계가 바로 오계와 십선계입니다.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사부대중이라 하여 출가수행자인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인 우바새 우바이가 함께 지켜야 할 계행이지요. 십선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의 10가지로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신구의 삼업의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계행입니다. 또 이 십선계는 대승계의 기본인 동시에 재가 수행자의 청규로서 불교의 기본적인 생활윤리입니다. 이 오계와 십선계를 항상 유념하면서 생활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도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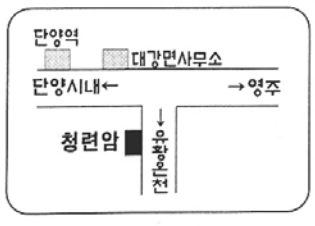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실천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 아닌 다른 절대자의 능력을 믿으려 하고 돈이나 권세가 많아야 행복한 줄 착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고 믿어서는 안될 것을 믿는 데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모

지장보살 · 후불탱화 조성
100일 기도 입재 및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대법회

- 월악산 청련암 복원불사를 위한 -

■ 일 시 : 무인년 9월 18일 (양력 11월 6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련암 대도량
■ 초청법사 : 아공스님 (영주 도솔사 주지)

월악산 청련암은 고려 공민왕 계축년 22년에 나옹선사께서 창건하신 고찰입니다.
하지만 전란으로 가람이 소실되고 현재 퇴락해 가는
요사채, 법당, 삼성각만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각은 단양팔경중 4경에 속하는
사인암 기암 절벽사이에 안주해 있어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련암은 온국민의 정신적 귀의처로서 개산된지
1천 3백여년의 성상이 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 11월 6일 제방의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정성을 다하여 복원불사를 위한 첫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 100일기도 그리고 지장보살 조성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라옵고 선근공덕 지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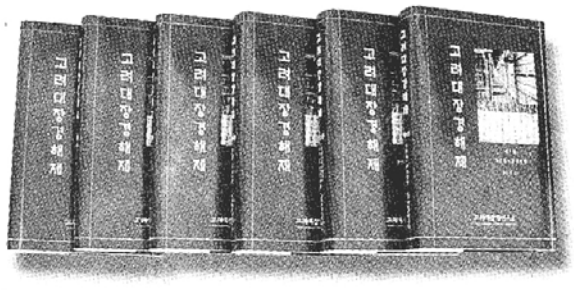


▶ 문의전화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27번지
청련암 종무소 (0444)422-1330
▶ 복원불사 동참
농 협 :335-12-124793(임덕찬)
우체국 : 300210-0095196(최진경)

대한불교 조계종 청련암 주지 종 덕 합장

국내 최초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해제"

팔만사친여 경판 천오백심사종의 경전으로 구성된 팔만대장경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하나하나 풀어 정리하였습니다.



정가 150,000원
(총6권, 우송료 포함)

고려대장경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고려대장경에는 1,514종의 경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제에서는 대장경에 입장된 1,514종의 경전과 소경전 331종,
모두 1,845종의 경전을 해설하였습니다.
■주제 분류에 따라 경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전마다 주제어를 주고, 주제어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제 3권, 목록 2권, 색인 1권, 총 6권 1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고려대장경을 해설한 불교전문 사전입니다.
고려대장경의 판각이 완료된 지 올해로 727년이 되었지만,
중요한 소의경전들에 대한 해설서만 있었을 뿐, 대장경에
입장된 경전 전체를 해설한 책은 없었습니다.
대장경의 경전 하나 하나가 모두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경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전을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여 보다 편리합니다.
1,845개의 표제어로 구성된 일종의 고려대장경 해설 사전입니다.
보고자 하는 경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글 음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오는 10월 21일 출간 될 고려대장경 해제는 1,000질 한정 판매합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전화예약을 통한 주문판매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 예약 및 구입문의 〉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온라인 번호 : 상업은행 169-07-096250 (예금주 :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큰스님 수행한담

행복을 키우는 씨앗”



◇지난 8월5일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제6차 전국염불 만일회에 참석중인 법천스님. 우측에서 두번째.

분별의 눈으로 보기때문에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마음의 눈을 뜨고 살면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지극한 마음이 최상책”

‘돈·권력에 집착’ 고통·불행의 원인

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IMF 경제한파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다 그러한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진리는 역시 불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가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건봉사에 와서 염불을 시작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 불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음력 2월 미타재일 염불을 시작한후 8월 5일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결성,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루 3번 건봉사에서 염불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불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많은 불자들이 염불에 관심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 정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종종 불자들이 내게 염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곤합니다.

생활속에서 항상 불보살을 염하는 것은 수행의 좋은 방편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은 부르면 그 신력을 얻게 되기 마련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종교에서는 가장 으뜸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충대충 염불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면 평생해봐야 인연은 되고 조금 도움은 되더라도 신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불자들은 염불을 할 때 아미타불 염불이 그저 목탁치면서 목청껏 소리를 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염불할 때에 북하고 징 두드리는 것도 다 법이 있습니다. 칭명염불하는 것도 다 법이 있어요. 아침저녁 쇳송도 다 법이 틀립니다.

악단이 음악을 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아름답고 법다운 염불이 우리 중생을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대중이 백명이든 천명이든 목탁 하나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하나가 되고, 뜻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염불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염불의식을 제대로 정립시켜야 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건봉사에 있는 스님 3명에게 매일 칠판에 써가면서 의식의 형태와 실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난으로 파생되는 갖가지 문제들이 불보살만 불러야 하는지 관세음보살만 불러야 하는지도 묻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아미타불도 결국에는 다같은 부처님 아닙니까. 어떤 쪽이든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내가 원주 치악산 보문사에 있을때의 일입니다. 아주 신심깊은 한 부인이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만 숨겼는데 어느날 시내에 나갔다가 아는 사람이 “아이구 부인, 그래 암이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오?” 하고 묻는 바람에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 초기 중기 암도 다 고치지만 그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죽는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절에 올라와 내게 “스님 제가 암이랍니다. 좀 살려주세요”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나라고 별 방도가 있겠소. 그래서 내가 구병시식을 해주고는 “생명을 내놓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오”하고 일러주었더니 그 부인이 지극정성으로 매일 절에 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인이 이왕 죽을 거라면 수술이라도 한번 하고 죽겠다며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신기하게도 쓸개처럼 한군데 모여 있더랍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부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던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종교에서는 가장 으뜸이 됩니다.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나는 염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던 오세암은 원래 선방이었습니다. 인공스님과 탄공스님 또한 대단한 선객이셨지요. 두 스님이 하라는 대로 결가부좌하고 안벽관심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상원사 수련소에 있을 때 방한암 스님에게도 참선지도를 받았습니다.

참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아프다, 성을 냅니다. 이것은 어떤 놈이 성을 내는 것인가, 또 매운 것 짠 것을 먹고, 짜다, 쓰다, 달다 하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 으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참선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단 1시간이라도 법답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가부좌를 하고 백날을 앉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선이 수승하다, 염불이 수승하다 하면서 분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초심자에게 참선이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계속 정진하면 일부러 가부좌를 틀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의 눈을 버리고, 참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대우주의 일들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한 꺼풀 가려진 배후의 세계를 꿰뚫어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눈을 뜨려고 정진하는 것이 염불이고 기도요, 선이고 독경인 것이예요, 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나라고 하는 착각이 주춧돌이 되어 욕망, 분노 등의 감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별심들을 다 스릴 수 있을때에 우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욕망과 감정으로 치닫는 마음을 집중시켜 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결국 대자연과 대우주와 한덩어린 까닭에 우리의 생활은 그 흐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몸을 가지고 대우주의 현상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차원이 기도, 염불, 독경, 참선의 생활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눈을 뜨고 살면 자연을 환경을 나 자신을 파괴하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대우주를 내 손아귀에 잡아놓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차원이 열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착각을 물리치고 눈을 바로 뜨면 대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과 광영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착각이 모든 걸 가로막아 욕심속에 허우적거리면 캄캄한 어둠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 일어났을때 그 바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염불하고, 참선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요. 그런 노력속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이뤄집니다. 그건 바로 내가 착각속에 살았음을 자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이 났을때 꺾지 말고 유지해서 끊없이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착하고 참된 마음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지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정행 〈장호원 컨트리클럽 사장〉

간경화 말기인 남편의 투병생활
남의 슬픔 헤아릴 수 있는 기회로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난 밤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갖곤 한다. 명상에 잠길때면 마음의 문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진정 깨어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게 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시련의 연속일는지 모르겠다. 마치 바닷가에 수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높낮이가 다를 뿐 시련은 연달아 몰려오게 마련이다. 나 역시 삶의 과정에서 무수한 어려움과 맞닥뜨려 왔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고비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도 나는 삶의 한 고비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넘겼다.

다름아니라 몇천겁의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부부의 연으로 맺어진 남편을 통해 새로운 삶의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간경화 말기라는 병명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남편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과 위력으로 병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하면서 불자로서의 나의 삶 또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 졌다.



지난해 5월초, 남편은 여느때처럼 아침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훈시하고 또한 5월은 자신의 몸무게를 감량하는 달로 정하겠다며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달 말경, 남편의 몸무게가 이틀사이에 6킬로그램이나 늘어났고, 소화도 되지 않자 나는 남편을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내린 의사의 진단결과는 간경화말기.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는 복수로 인한 것이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었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나는 남편의 간이 망가질대로 망가져 회복이 거의 절망적이라는 진단에 굴복할 수 없었다. 남편의 인생이 49세의 나이로 마감된다는 끔찍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렵게 사업을 일구며 은갖 고생을 함께 해 온 남편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2개월 이상을 입원하였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 갔고, 그동안 회사는 공사비와 대출금을 갚지못해 채무가 점점 늘어나 어려워져만 갔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온갖 약초를 구해다가 약물치료도 해보고, 독일에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 가서 치료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남편은 점점 회복이 불가능해져 갔고, 간이식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간기증은 매우 어려운 경우라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수술전후를 촬영해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라며 흥분해 있었다. 아! 이제 남편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도 기뻤다. 그러나 다음날 예정된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다.

간기증자의 뇌파가 끊기지 않아 뇌사판정이 내려지질 않은 것이었다. 뇌사판정시간이 길어지자 간을 기증하겠다던 가족들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간이식 수술로 사람을 두번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장기기증을 반대했고, 결국 간이식 수술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장기를 기증받아 한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이 세상을 달리 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산다는 기쁨 이전에 죽는다는 슬픔이 앞선다는 평범한 현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야 한다는 욕심때문에 기증자가 나타났을 때 그 가족들의 슬픔을 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기쁜 마음만을 가졌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착한 근본을 닦지 못한 생각이 불러온 인연이었기에 간기증을 받지 못한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계속〉

1999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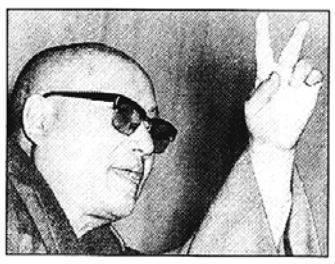
■ 석사.연구과정
1.모집학과 및 전공
가.불교학과:불교학,선학
나.불교사학과:불교사,예술사
다.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포교학
2.지원자격: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3.전형방법
가.석사과정
1)일반전형: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4.전형일시:1998년 11월 19일(목)14:00
5.제출서류
가.입학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사진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다.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마.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기재요)
바.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사.승적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1부

■ 공통사항
1.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11월 5일(목)-11월 13일(금)평일
09:30-17: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2.전형장소: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90주년 기념 학술관 2층』
3.특전
가.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나.각 사회복지법인 견학 및 연수
다.조계종 및 각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 불교지도자 과정
1.모집인원:000명
2.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3.지원자격
가.조계종 및 각종단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나.각 종단의 간부
다.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라.신심이 돈독한 자
4.전형일시:1998년 11월 20일(금)14:00
5.제출서류
가.입학원서1부(본대학원 소정양식)
나.사진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주민등록 등본 1부
마.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100-17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02)260-3097,8

탄허대종사 제15주기 추모기념
화엄사상 학술강연회 및 화엄경론회석 출판기념회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수장된 계절 귀사와 귀댁의 평안과 건강을 축원합니다.
저희 한암·탄허대종사 문도회와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에서는 탄허대종사 열반 제15주기를 추모하여 **화엄사상 학술강연회**와 **화엄경론회석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화엄사상과 민족통일이라는 주제하에 우리민족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는 **이통현장자의 화엄경론회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허대종사께서 현토·번역 하시고 원조각성 큰스님이 강해한 것을 이번에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 출판하여 그 기념회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화엄사상 학술강연회
●일 시 1998년 11월 14일(토) 오후 1:30~5:00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3층
■ 주제발표
●이통현장자의 화엄사상 - 화엄경론회석과 화엄현담의 비교 - ●발표자 : 변각성 큰스님(삼일선원 상임지도법사)
●화엄사상 연구와 탄허대종사 - 화엄사상 연구에서 탄허대종사의 위치 - ●발표자 : 정병삼 교 수(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역사와 화엄사상 - 한민족의 통일과 화엄사상 - ●발표자 : 최병헌 교 수(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화엄경론회석 출판 기념회
●일 시 1998년 11월 14일(토) 오후 5:30~7:30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층
●저 자 이통현장자 원저, 탄허대종사 현토·번역, 변각성큰스님 강해.
●규 격 4×6 배판, 양장 약 830페이지

■ 주관 : 한암·탄허대종사 문도회.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 문의처 : T. 02)237-4438 F. 02)237-4439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 동아일보사, 불교신문사, 불교방송사,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한암·탄허대종사 문도회 회장 김인허.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전창렬

대장경 새긴 불심 다시 피어나네



◇선원사지에서는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찾기작업이 한창이다.

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

16억투입 유적정비사업 한창

고려때 2대사찰 손꼽혀
성원스님 새성지 복원 발원
유물관 완공 · 1차발굴 완료

고려대장경 판각성지로 알려진 강화 선원사지. 몽고에 항쟁하기 위해 고려 고종 19년(1232년)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최우가 대몽항쟁의 정신적 지주로 또 자신의 원찰로 창건했다. 선원사는 〈즐고천백〉을 펴냈던 고려 말의 유학자 최해(1287~1340)의 말대로 승주 송광사와 함께 고려 2대 사찰로 손꼽힌다. 주지 성원스님이 당시 선원사지 발굴작업을 하는 동안 유물전시관에 사진복사해 모신 선원사 초대주지 진명국사와 선원사를 거쳐간 송광사의 16국사 가운데 네분의 영정이 그 당시 선원사의 규모와 명성을 가히 짐작케 한다.

사적 제259호로 지정된 3700평의 선원사지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최근 주지 성원스님에 의해 선원사 복원불사가 이뤄지면서부터다. 선원사 복원불사는 팔만대장경 대장도감의 위치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도장도감이 설치된 곳이 현재의 선원사지라는 추정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성원스님은 단순히 선원사지 복원에만 있지 않다. 스님은 "팔만대장경은 그 어떤 민족문화재 보다도 호국의 얼이 담긴 우리 문화의 정수임을 감안할 때 고려 대장경의 제조와 선원사의 복원불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성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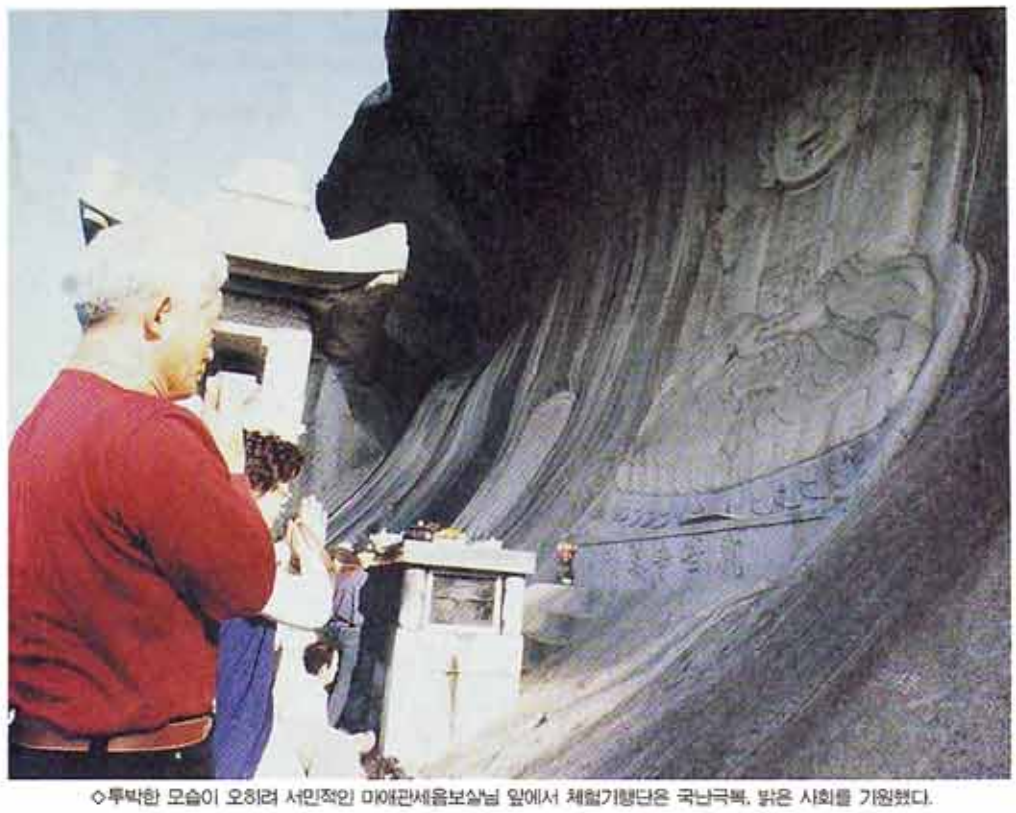
강화군은 올해부터 정부가 2차 5개년 유적정비사업으로 강화문화권을 집중적으로 복원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선원사지에 16억3천3백만원을 전개키로 했다.

동국대 학술조사단에 의해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한 선원사는 유물전시관을 마련하고 출토된 와당 등 관련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대웅전은 기초공사가 마무리돼 2000년에는 완공될 예정이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10월

보문사 · 선원사지 · 무애원

단군신화와 대장경 판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강화도. 호국 불심이 숨쉬고 있는 성지 강화도의 불교는 새 세기 새불교의 틀을 다지고 있었다. 18일 역사 속에 깃든 민족의 슬기와 혼, 염원이 담긴 성지를 찾아나선 불교문화 체험기행단은 보문사와 선원사지 그리고 무애원을 찾아 어제를 토대로 내일을 빚고 있는 강화불교를 배우고 돌아왔다.



◇투박한 모습이 오히려 서민적인 마애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체험기행단은 국난극복, 밝은 사회를 기원했다.

보문사 참배객 끊이지 않는 관음성지
선원사 대장경제작 현장찾기 발굴작업
무애원 '마음빚기공부' 설봉도예수련원

기행단을 태운 차는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서해 바다의 비릿한 냄새를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보문사(주지 완종) 입구에 도착했다.

보문사가 있는 낙가산은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울창한 수림에 둘러싸여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아늑한 곳이었다.

남해 보리암, 양양 홍제암과 더불어 우리 나라 3대 관음성지인 보문사는 관음과 나한신앙에 관한 유적 유물이 많다. 특히 절 위쪽 눈썹 바위 아래 새겨진 마애관음좌상이 그렇고 나한의 신통력이 어린 나한 석실이 그렇다.

천연동굴 나한 법당

석굴법당 입구에서 나반존자가 앞이 불자들을 맞는다. 어부들의 꿈에 나타나 22개의 돌덩이를 봉안하라고 일러준 그 노승이라고 한다. 석실 전면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미륵보살과 제화갈라보살(연등불)이 협시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그 좌우로 관음보살, 18성중이 모셔져 있다. 천축국에서 따내려온 불보살을 견져 봉안한 어부들의 불심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석굴법당에서 탐심(貪心)을 녹인 후 암벽을 깎아지른 듯 우뚝 선 마애관음보살을 찾아 돌계단을 한층 한층 오르니 기도는 더욱 간절해진다. 투박하고 넓은 가슴에 근자가 새겨져 있어 정겹기만한 관세음보살님은 이웃사랑, IMF 극복, 밝은 사회, 밝은 국토, 통일염원을 다 들으셨는지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고 있었다.

보문사의 풍모와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가슴에 아로새긴 기행단은 발길을 선원사지로 옮겼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 '팔만대장경 판각성지'라고 씌여진 표지판이 서 있는 선원면 선원사. 발굴터는 빈터지만 불심을 피워냈다.

주지 성원스님의 3차례에 걸친 현일기도에 힘입어 대장경 판각성지 선원사지 확인을 위한 발굴이 시작되었다. 성원스님이 관각성지 찾기에 원력을 세운 3천7백평은 선원면 그리고 대장도감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감리가 항몽을 위해 불심으로 경을 관각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우물서 茶맷돌 발견

이미 도감리 마을 우물에서 차(茶)맷돌을 찾아낸 주지스님은 확신에 차 있다. 발굴터 옆에 새로운 선원사를 창건하겠다고. 그러나 욕심내지 않는다.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다시 할 것을 발원하면서.

선원사지에서 30여분 거리에 있는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무애원. 무애원은 속진의 때와 번뇌를 태워낸 설봉스님의 작품들이 켜켜이 쌓인 둘담과 어우러져 있었다.

"흙은 빚은대로, 누르는대로 자국이 드러납니다. 거짓을 모르지요. 흙을 대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때묻은 인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지닌 불 앞에 선 인간은 초라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겸허함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자기를 빚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반조해 '참나'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봉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기행단은 도예실습에 들어갔다.

흙을 빚는 설봉스님의 손놀림에선 어느새 이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천년의 불심을 이어 21세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맞으려는 간절한 정성이 배어 있었다.

'참나' 찾는 도예 실습

흙을 반죽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집게손가락으로 꼬집듯이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안 기행단은 '나'라는 존재마저 잊고 도예빛기에 여념이 없었다. 설봉스님의 도예는 불과 유약의 조화 속에 자연을 말하고 노래한다. 살림이 어렵지만 작품을 탐내는 일본인 수집가의 유혹을 거절한 설봉스님. 기행단은 그 정신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다.

글=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선원사 주지 성원스님이 선원사지 유물전시관에서 고려대장경 판각의 역사와 과정, 선원사 사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성원스님이 도감리 우물에서 찾아낸 고려시대 차맷돌.



◇돌과 도자기로 가건물을 장엄한 무애원 전시장.



◇"흙을 빚는가, 마음을 빚는가." 설봉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도자기를 빚고 있는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짧은 시간이지만 욕심의 결과가 어떤지를 배웠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 성 표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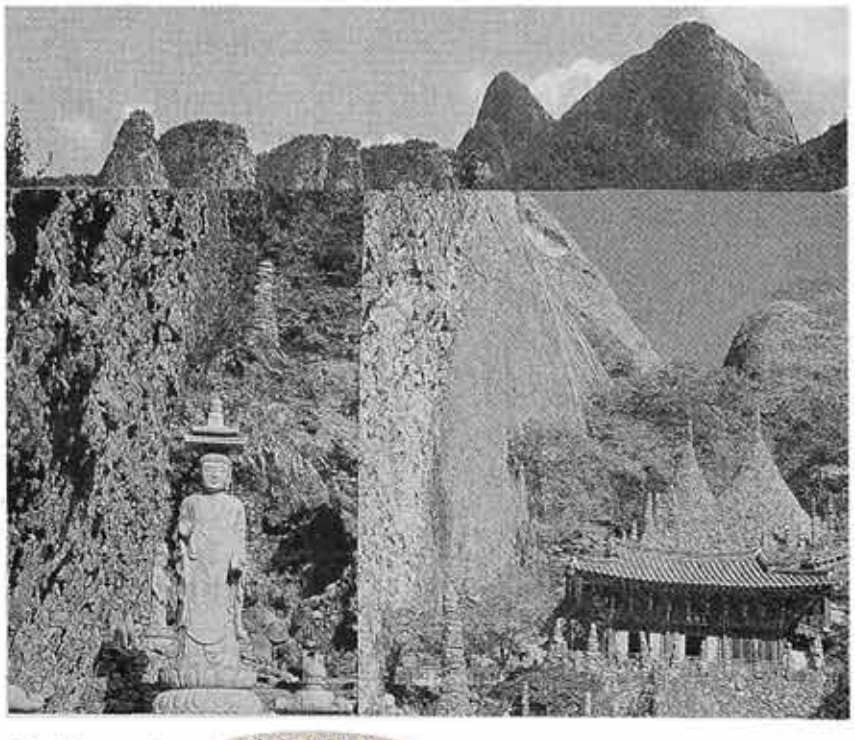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531-8736 호 출 : 012)321-6044
팩 스 : 0357)531-5549 핸드폰 : 011)284-510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둘로 보지 않아야 살림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의 어느 질문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다고 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게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되는 데서 안되는 것을 알게 되며, 돌다가다 보면 안되고 되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따져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수십 억의 중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스려야 화해서 나투며,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안과 밖의 살림살이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선업·악업의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은 다 몰아오는 겁니다. 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과거의 모든 업이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가 인연에 따라서 현실로 하나하나 나온다구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거기에 다시 되말겨 놓으면 앞서의 입력된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 끓는 걸 보고, "요것도 문수, 저것도 문수"하면서 주걱으로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쳤더랍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그 팥죽 속에서 팥죽이 끓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으세요.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이열치열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며, 교(敎)는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보이는 곳에서든 모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네가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잘못 알 뿐이지, 날아다니는 새, 꽃 한송이, 풀 한포기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자기가 미국말을 못해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들는 생각은 안하고 그쪽에서 못한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얼굴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뜻이 있듯이 모두 돌아가는 자체가 한 몸에서 그와 같이 돌아가는 거지요. 밖에서 소리가 나면 얼른 눈을 돌리는 동시에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작용하는 도리를 알아야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는 것을 알게 되며, 너무 많이 화해서 찰나찰나 돌아기기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공법'을 말하죠.

남 원망않고 내탓으로 돌려야
말한마디도 부드럽게 하고
계율과 질서를 지키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림 · 최주헌

되고 안되고가 없는 줄 알아야 業 다스려
진정한 자비란 조건없이 베푸는 사랑

또 이야기합니다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계율과 질서를 지키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래라고 차이를 두고 '내가 이만큼 아니까 너는 내 아래야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 아래라고 하나 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고, 잘 하는 것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잘잘못을 논의한다면 부처님의 발꿈치도 못 좇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포기가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계시는 것이며, 지수화풍이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여러분 행이 부처님 행이며,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화해서 돌아가는 부처님의 나툼입니다. 화신 말입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제 아무리 유능하고 위대하다 해도 사람이 작동해야 컴퓨터의 능력이 발휘되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을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께서 삼천년 전부터 이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지도 못하고,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란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한군데에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거기에 말겨 놓으므로 다시 생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을 하면 생산이 되는 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연탄도 재료들을 몰아서 넣으니까 차곡차곡 연탄이 되어 나오는데, 만드는 과정에서는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배달할 때는 나뉘어서 각자 운반되듯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비가 내리면 식물이나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다 먹지만 감사하게 생각해 본 예가 없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공기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밝고 다니는 흙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나 아님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땅을 딛고 다니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겠죠. 이 말의 뜻을 잘 새기셔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씨는 현실의 싹이 돼서 그 싹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데, 그런줄 모르고 과거로 돌아가서 씨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게 뭣고?' 하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해결하고, 나 아닌 내가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놓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생인연 내생에도 만났으면

문 저는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고 집안 어른이나 형제들에게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잘하고 싶군요. 만일 돈을 번다면 욕심내지 않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쓰일 곳에 쓸 수 있도록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스님, 다음 생에는 저희 부모 부부 형제 좋은 이웃들이 모두 좋은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침술과 음성공양을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제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도 다음 생에 좋은 사람의 몸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답 말씀 드리고 또 말씀 드리고, 그렇게 아흔아홉번 말씀 드리고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백번째엔 알아들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9)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다.

관념이란 허공과 같은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관념에 걸리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한다.

허공에 걸려 넘어졌다거나 허공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모두들 웃을 일이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기 마음으로 막을 지어 놓고 그 막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는 막도 없고 걸려 넘어질 문지방도 없는 것인데 스스로 막을 짓고 문지방을 지어 놓고 있다.

누가 고정시킬래야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본래로 없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으로써 대상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해 놓고는 공연히 거기에 붙잡혀 있다.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통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통을 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서 홀쩍 벗어나 보면 그동안 애지중지 해오던 나의 생각, 나의 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도 알게 된다.

마음이란 체가 없기에 우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도 벗어나고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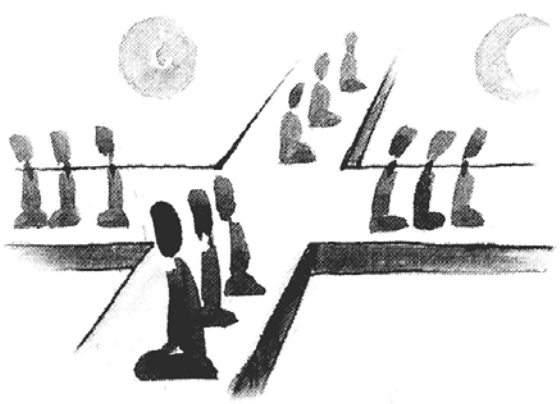
고정되게 붙들고 있는 관념을 부숴 버려라. 내가 죄를 졌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따위의 관념을 다 버려라.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벽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번뇌뿐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관념을 타파하라'는 뜻이다. 너니 나니, 높으니 낮으니 하는 관념이 얼마나 많은가. 모두 자기가 지어 놓은 것들인데 그런 관념을 들고 있어서는 도무지 주인공과 계합할 수가 없다. 모르면 안으로 굴려 다시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량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짓고 저렇게

결정을 내려 버리는 경향이 짙다. 그러한 버릇이 없어져야 한다. 모름지기 이 공부를 하려면 안으로 놓고 또 놓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무거운 짐을, 갈수록 더 짊어져 가면서 오른다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겠는가. 그와 같아서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오직 몰라서, 나는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게는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는 애착을 떨쳐 버려야 놓고 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짐을 벗어 놓고 편히 쉬라.' 하듯이 주인공에게 몽땅 놓아 버리면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절로 풀려난다.



나뭇잎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따 버리고, 나뭇가지를 자꾸 잘라 낸다면 결국 나무는 시들어 죽게 되겠지만, 더러는 뿌리가 살아서 새싹이 나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아 버린다면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근기의 수행자는 나뭇잎을 따내고 상근기의 수행자는 뿌리를 뽑아 낸다.

'나'라는 자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 공했으니 놓는 자리가 그 자리다. 머리로 공한 줄 알고 놓는다 하지만 앞설 것이 뒤서고 뒤설 것이 앞서니까 공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무지하여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낫다.

생각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나기 이전은 생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량심을 버리고 일체 경계를 다 본래 자리로 말겨 놓으라는 것이다.

낳기 전에 이름 붙이는 것을 보았는가. 낳기 전으로 돌아가라. 낳기 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데 거기에 이름 붙을 사이가 있겠는가.

6식이 이렇다더다, 7식이 이렇다더라 하고 따지려 하면 그런 데 끄달려서 끝내 본일을 못 볼 것이다. 그러기에 그런 말 저런 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싹 빼고 일체를 주인공이 내고 들인다 하며 바로 놓고 들라는 것이다. 주인공이 내고 들이고 하는 게 바로 인연법이니 그냥 일직선으로 쏜살같이 인연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왜 신심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다지도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공부가 늦나? 나는 왜 참선하는 열의가 부족할까? 나는 왜 주인공 참구를 곧잘 놓치는 것일까? 나는 왜 놓는 것이 잘 안되는가? 그런 모든 걱정, 겸손한 마음까지도 다 쉬어라. 그냥 믿고 놓으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지어서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용기를 잃고 하니까 오히려 갈 수 없게 된다. 공부가 안된다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생각도 놓고 편안히 자연스럽게 가라.

다리 많은 지네가 잘 가다가 문득 제 꼴을 보고는 '아니,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리가 서로 엉켜서 갈 수 없다고 한다.

"환으로 보아라."하는 것도 실은 걸리는 것이다. 본래로 환인 것이니 환으로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돌부처한테 시집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아라.

협찬 한국테크라인(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자성이 만법 들이고 냄을 믿고 깨쳐야

☞ 15면에서 계속

까 해서 입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란 과거에 내가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뜻으로 지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독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독사굴에 들게 되고 천사같은 마음을 냈으면 상천세계로 승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으로 열심히 하며 다시 놓고 관해보세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냄을 믿고 그것을 깨우치려 하는 것이니 그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의 행동 이해 안되요

문 스님의 말씀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오관이 없듯이 사방이 깜깜하여 헤매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혼이라고 할까요) 살아 있는 사람같이 자기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보기도 하고 친구집에도 가기도 하면서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죽어서 오관이 막히고 분별이 없을텐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이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을 사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육신이 무너지면 의식작용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치 꿈 속에서 헤매듯이 육신이 있었을 때의 의식(업식)만은 생전의 차원대로 남아서 떠돕니다. 그러다가 육신에 대한 애착때문에 다른 몸을 또 취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후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그 답을 찾으려 애쓰기 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를 모른다면 사후세계를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마음공부란 바로 잘못 알고 있는 '나'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나의 근본을 밝히는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지요. 그걸 알면 사후세계도 그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하면
먹지도 입지도 말아야 하니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렇게 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정신 딜레마에 빠져…

문 마음공부는 하지 않고 물질세계에만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한마음공부가 참 좋다고, 얼시구 절시구 자랑하고 싶어도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쪼들리며 사느냐라는 반문에 그만 말이 막힙니다.

스님, 저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갈림길에서 진퇴양난이랍니다. 길을 인도해주세요.

답 우리에게 몸뚱이가 없다면 세상살이가 무효이고 정신세계가 없다면 또 무효일테지요.

물질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닙니다.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있어 몸이 따르지 따로 따로가 아니질 않습니까? 〈반야심경〉에도 나옵니다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수상행식도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나'라고 고정되게 말할 게 없으니 공인데 거기에 정신 따로 세우고 물질 따로 세울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와 정신세계가 한데 붙어 돌아가는 것이니 나는 물질세계 위주로 산다, 정신세계 위주로 산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여여하게 둘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 쪼들리면 쪼들리는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게 다 주인공의 나툼이니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마시고 열심히 놓고 관하면서 사세요.

설령 물질에 좀 쪼들린다 해서 마음도 쪼들릴거야 없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대자유인이 되는 공부이지 그런 일에 매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일체를 턱 말겨놓고 대장부답게 살면 그게 의미있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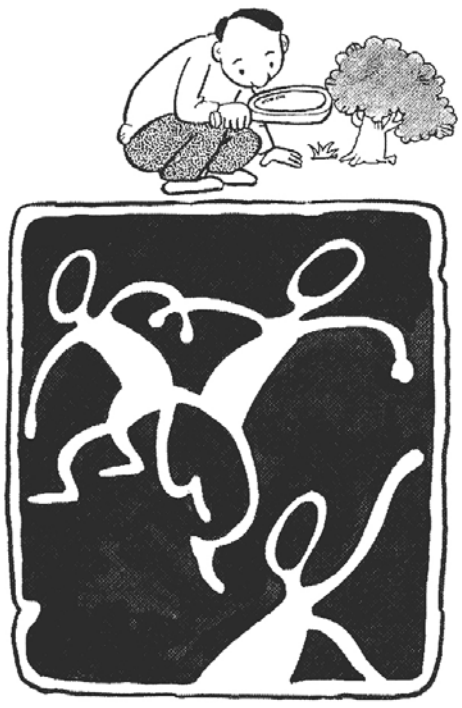
온가족 선원에 다녔으면

문 제 집 큰며느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입니다. 작은며느리에게 절에 다니길 권하면 '형님부터 가면 저도 가겠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현대불교신문을 볼라치면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제게 소망이 있다면 다 같이 선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로지 한마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만….

답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따르지 몸으로야 어찌 야단치고 역정내시고 억지로 요구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오직 한마음 주인공에 놓고 관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해보세요. 하다보면 지혜도 오고 감응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급증을 내서는 안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보이지 않게 통신이 되고 그렇게 통신이 되어야 반응이 올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좀체로 반응이 오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마저 '주인공,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왜지?' 하고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주인공 감사해!'


그림 · 최주현

사후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문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애착을 소멸할 수 있는 길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 이런 말 여러번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나고 죽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 하는 것은 몸뚱이를 '나'로 알고 애지중지하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탓이지요. 그러니 육신이라는 이 푸대자루 대신에 진정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시면 사후세계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사라지게 되지요.

죽는다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문 한마음 공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짜의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기가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 자기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불현듯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오던 '나'라는 것을 놓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공을 세우신거라 생각합니다. 공부과정에서 이런 두려움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바로 그 두려움을 몰고 오는 '나'가 죽어야 진정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육신이라는 이 푸대자루에 담긴 나 아닌 나에 대한 애착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공부재료로 삼아 관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관하는 법 알려 주십시오

문 저는 이 공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에 대행스님께 직접 여쭈어서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는 것이? 나에게 부딪치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행동, 내가 하는 모든 행위, 타인이 나에게 하는 모든 행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인공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자리에 놓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관하는 것입니까?

밥을 먹는다 음! 주인공이 밥을 먹고 있구나, 잠잔다 음! 주인공이 잠을 자는구나, 걸어간다 음! 주인공이 걸어가는구나, 화를 낸다 음! 주인공이 화를 내는구나, 책을 본다 음! 주인공이 책을 보는구나, 어떤 생각을 한다 음!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야단을 친다 음! 주인공이 야단을 치는구나, 컴퓨터는? 주인공이 만들었구나, 신발? 음! 주인공이 만들었구나, 집을 짓는다 음! 주인공이 집을 짓는구나….

이런 식으로 현재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고 제 감촉으로 느껴지고 제 미각으로 맛보여지고 제 촉각으로 느껴지고, 제 코로 냄새나고 제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생각하며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주인공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으로 관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마음으로 강하게? 혹은 약하게? 관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공 자리에 놓는 것입니까?

스님의 크신 가르침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 말로 하자면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지켜보는 그자체와 대상이 몽땅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께 '내가 죽어 나를 보리라'고 일러드렸던 것이고, 세번 죽어 일체만물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도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법회에 자주 나오시고 한마음 요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먹고 남도 마실 수 있는 샘물을 찾자
일거수 일투족 관한다면 24시간이 참선

마음공부는 우선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스스로 맛을 봐야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문 저는 서울사는 37세 남성입니다. 〈한마음대담집〉〈영원한 나를 찾아서〉〈무〉 등을 서점에서 구입해 보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의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문득 "본래 한물건도 없는데…"하신 스님말씀이 떠오른뒤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합니다. 찾으라는 주인공은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요.

답 '없다'는 것은 아주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고정된 게 없으니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체의 걸림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누리는 대장부 삶을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나'라는 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가 없다면 허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문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누구라도 깨우치기 전에는 다 부족하지요. 그걸 알기에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목 마를 적마다 물 한잔씩 얻어 자시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의 샘물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일러드렸으니 자꾸 내게 물으려 하지 마시고 제발로 일어서도록 노력해보세요.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행에 필요한 가르침 주세요

문 제가 스님의 수행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생활 중에 일체 경계를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는 것.

처음엔 그냥 이렇게만 알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시간이 나면 "깨닫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하면서 관하는 것.

이것도 법문 중에 들었는데, 그 외 수행에 필요한 다른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없는지요? 어느 책에서 보면 좌선하고 일어날 때 눈, 얼굴을 비벼주고 마음을 바깥 대상에 풀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수행에선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지….

제가 초보자라서 잘 모르고 혹시 내가 뭘 들리게 하고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 행주좌와 일거수 일투족에서 주인공을 관한다면 하루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루 30분씩이라도 좌선을 하는게 보탬은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거수 일투족 일체를 주인공이 한다고 관하면 그게 바로 공부요 이 공부가 무르익는 길입니다.

스님된 친구 본뒤 절망감에…

문 언제나 저희결에서 함께 하시며 에너지 주셔도 받아먹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친구였던 스님과 저는 두갈래 길로 출발했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저는 속복을 입고… 10년 후에 만난 저는 제 위치를 보았습니다. 승과 속은 둘이었고 하늘과 땅의 큰 차이였습니다.

사방을 들러보아도 깜깜할 뿐입니다.

나름대로 대단하다며 살아온 제 과거는 그냥, 해지는 줄모르고 소꿉장난에 빠진 철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주세요.

답 수백년된 등굴의 어둠도 촛불 하나 밝히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길이 갈렸다 하지만 마음 한번 돌리면 승과 속이 어디 둘이겠습니까?

소꿉장난도 많이 해보셨다니 그 소꿉장난하던 '나'가 누구인지 밝히기도 쉽겠네요.

많은 사람이 착한 길 걸었으면…

문 이렇게 큰 스님을 뵙게 되서 참으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큰 스님은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큰 살림 잘 꾸려나가시는데, 전 그 길을 힘들다고 회피하며 제 앞에 닥친 일 하나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의 안녕과 스님의 건강을 잠시나마 기원해봅니다.

답 감사합니다.

이 길이 쉽다면 세수하다가 코만지기 만큼이나 쉽고 어렵다면 은산철벽이지요.

마음이 그와 같으시니 한눈 팔지않고 이 공부를 잘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문 그렇다면 정말 이 스스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주관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요.

이 삶과 세계를 보면 스스로의 한계성이 뚜렷한 것 같은데 왜 큰스님께서는 자성이 자유스럽고 무한하다 하시는지요.

답 이 공부는 본래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며, 자성이 본래 여여하고 청정하다는 걸 깨닫는 공부입니다. 이건 그 까닭을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고 행해서는 스스로 맛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로 알고 있는 그 '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성이 본래의 나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걸 혼동하고 제멋대로 '나'가 어떻다 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자성부처를 만나야 합니다.

'자성이 자유롭다'는 뜻

협찬 주인공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학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물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암·간경화·완치 보장

•건강•

성인 백혈병·당뇨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제3의학·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스님의 비법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도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당뇨병, 간질병,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대도시권 배달가능)
⊙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3개월이면 치료됨.
⊙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 0547)437-4136, 437-4135

기와 향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만병통치로 불리어 지는 산삼

불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0348)
959-2992

•강좌•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김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기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수맥 강좌

신비의 추 사용법
■ 매주 목요일 15시
■ 수맥관련 상담환영
■ 건강·양택·음택·기타 기 균형 전문

사업장(주택)행운과 건강목걸이 판매(입시생)
몸이 불편한 분, 원이 있으신 분
02)3675-2118
011)239-6817
대붕기살림

역 학 강 의

개인지도 ○명
1~2개월이면 앞이 훤히 보임.
"팔자를 알면 출세하고 운을 알면 돈을 번다"
의 저자가 직접지도
염라 철학원
02)424-0064~5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 : 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구인구직•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54세, 독신, 재가법사입니다.
◇전직 교사로서, 현재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금,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격던 중 역시 진실한 평생 도반이 필요하며, 또한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복지·문화 포교원을 건설하는데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 도움을 주실 진실한 보살님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있기를 부처님전에 축원합니다.

02)942-6900/015)129-0000
재가법사 일 산 합장

제 보 바 랍 니 다.



성명 : 박 성 호

작은 키에 가끔 안경도 착용
위사람은 사기혐의로
기소중지중입니다.
또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보신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 구리수택1 파출소 **0346)566-0112**

•불교용품•

천/일/기/도
기도법사님 모십니다.

한라산 영실존자암
011)696-8500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련원•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용회사 수양원

수양·요양·기도공부

경전강의 참선지도
월숙식비 30만원
1인 1실, 침구일체완비

0591)746-9921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용 회 사

•기타•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33-2037
017)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염불전용녹음실

⊙ 법당 앰프, 마이크 설치 ⊙

●평소에 염불을 녹음하고 싶었으나 비용과 음질 때문에 망설였던 스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불만을 갖고 계신 스님
●직접 법당내에서 평소에 하시는 염불을 녹음하시고 싶으신 스님

※ 수십년간 법당에서 좋은 염불을 하고 맑고 고운 음질의 마이크는 없을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법회를 할 수 있는 명상음악과 법요의식용 찬불가 음반이 필요하신 분)

전화문의(**法音寺**) 김 광 덕 합장
0417)551-1562

장례관련상담

갑자기 상을 당하시어 경황이 없으신 분들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식 장례·묘지
납골당 안내

한마음 서비스
080)4444-111

학/자/금 천오백만원

대여해 주실 분 찾고 있습니다. 속히 갚을 수 있습니다.

015)8624-0911
대학생 法雨 합장

•사찰안내•

포교당 안 내

◇위치 : 서울 홍은동 4거리
◇법당 : 20평, 방, 주방5평
◇보증금 1,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옥실 및 일체시설완비, 급히 양도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토굴·암자안내

◆위치 : 경북 안동군 길안면 금곡리(황악산 용담사 입구)
◆평수 : 675평(대지)
◆가격 : 2천만원
◆특징 : 토당집 1채, 계곡끼고 경관 수려 토굴암자 최적지

011)781-6957
0571)858-3004/853-1302

포교원(토굴)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 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삼존불, 탱화4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 현재 밭으로 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토굴 겸 암자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대지 : 103평
◆건물 : 25평(슬라브, 시설완비)
◆매가 : 4천만(등기 필)
※밀양에서 표충사간 1/3지점

0542)371-1306
0527)353-4188

1. 부산 문현동 포교원 전세
2. 지리산 뱀사골 절터 안내
3. 하동 청암동 절터 안내
4. 고성, 충무, 사천, 진주, 마산, 진동, 거창, 김해, 하동, 합천, 함안, 왜관(경북)외 다수 절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십시요.

0552)584-4881
012)760-4549/011)842-4549

사찰부지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에서 20분거리)
- 임야 : 9,777평(도로인접)
- 밭 : 323평
- 묘자리 가능
◇가액 : 1억 3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시세 1/3가격)**※

042)585-1101
011)429-0222

포교원 안내

◆ 위 치 : 서울 신림본동 신림4거리 보도10분거리 대로도변 2층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칠성탱화,각종만다라화 여러점
◆ 보증금 : 1천 5백(월 50만원) 시설및 일체물품(1천 2백만원)

02)888-1642
011)686-9925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 7백만원
◆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5)882-6407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차편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대지값)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 ※

0446)877-9051
012)925-6118

포교원 안 내

◆위치 : 석계역 옆
◆평수 : 30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권리금 5백만원 합:1천만원)

02)948-8020

사찰안내

◆ 위 치 : 경북
◆ 법 당 : 32평, 요사 : 38평
◆ 부 지 : 400평 ◆ 가 액 : 2억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당)운영하실분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48평
◇총건평 : 1층-30평 2층-30평 반지하식당-13평(공양칸)
2층 : 법당 - 1층 : 요사(방3, 주방 욕실, 종무소, 석가모니불, 동불 5자, 입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신중·산신탱화, 집기일체 포함)
◇ 입주즉시 법회 가능
◇가액 : 매가 1억 3천만원

011)790-7162/053)656-6609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천안역에서 15분거리
◇부지 : 약 500평
법당-대웅전,약사전,산신각,칠성각, 용궁,입상 미륵석불 3미터,세쌍둥이 코끼리 삼층탑(법당내외시설일체)
요사채-큰방 3, 입식부엌 1(1동) 보통방 2(1동)
◆특징 : 조용하고 깨끗한 기도도량 마을에서 1Km 떨어진 야산속
◆가격 : 1억 7천만(사정상 급히 양도)

011)686-9925

사찰안내

◇동네어귀, 절옆 지방문화재 탑
◇평수 : 360평, 주차장 84평, 만들 땅 밭 173평
◇대웅전, 요사채, 화장실, 신축(50평)
◇가액 : 2억 9천만원

0654)451-2410
011)671-5161

사 찰 안 내

◆위치 : 충남 보령시 평나면 읍평리 산 12번지
◆부지 : 약 1천평 ◆요사채 : 방3
◆간이목욕탕, 보일러실, 주방1, 법당 小
◆ 약사여래 부처님 모셔져 있음, 산신각 8평정도, 부지 천평중 420평은 사찰부지로 허가 나 있음.
◆가격 : 8천만원
※급한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찰을 양도합니다.

0452)934-9656

촌 집 암 자

◆위치 : 경북 의성
◆가격 : 전세금 없음
시설비 1,200만원

0576)832-0831
016)290-6699

사찰(급)안내

◆위치 : 삼천포 시내에서 5분거리 ◆부지 : 약 1,700평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20평
◆주지실: 12평 ◆버스진입도 됨. 주차장 약 200
◆가격: 1억 7천만원(전세가능)
◆특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도량으로 울창한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고, 삼천포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빼어난 경관과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 편리한 교통과 사계절 일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접하고 있는 청정한 기도도량.

■ **창건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하신 분중 6천만원의 동참금을 내시고 평생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6천만원의 동참금은 5년후 바로 돌려드리고, 6천만원에 대한 담보설정은 즉시 해드립니다. 또한 사후 49재및 공덕도 세워드립니다.

017)557-9448(주지직접)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 · 수행처 가능

◇위치 :산청군 신덕면 법서리 (황매산줄기)
※진주시내 30분거리 2차선 도로옆
◇대지 : 142평
◇건평 : 29평
◇가액 : 9,500만원
※ 순수 한국노송 통나무와 황토로 건축

0596)973-1586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 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011-801-8818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성북구 보문동
◆평수 : 64평, 한옥
◆방5개, 부엌, 마루
◆가격 : 평당 500만원(절충가능)
◆주택전철역..교통편리, 주택밀집지역, 탑골승방 인접, 포교에 최적지임.
※ 꼭 하실 분만 전화주세요.

02)921-6831
016)262-6831

사찰(급)안내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인접**
◇대지 및 경내지 도합 301평
◇대웅전: 현대식 건물 30평
◇산령각: 목조 3평
◇요사채: 목조 스랫트건물 30평
◇ 지하수 또는 상수도 완비,
◇ 진입로 2톤까지 다닐 수 있음
◇ 가액 : 2억

0562)284-3402
011)524-3402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부 지 : 300평
◆법 당 : 20평(단청필 기와지붕)
◆요 사 : 2동/기도당:2동/ 산신각(목조 단청), 용왕당, 종각
◆가 액 : 답사후 절충요함.
◆특 징 : 수려한 산세아 빼어난 주변경관을 자랑하는 천마산 산속의 기도 및 포교도량
◆위 치 : 통영시 ◆부 지 : 1,179평
◆법 당 : 25평 ◆요 사 : 25평
◆주차장 : 무한대 주차가능 버스진입
◆가 액 : 1천 9백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1급수 청정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기도도량으로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감싸안고 있는 금오탁시형의 천하명당자리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불자 세상보기

부부교환까지…막가는 성문화

주부 · 여대생 매춘 성행…여고생 원조교제도
日문화 수입 개방 음란문화 확산 '불보듯'

〈무량수경〉에 "사람은 혼탁한 애욕의 세상에 혼자 태어났다가 혼자 죽는다"는 말씀이 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끝간데 모르게 타락하고 있는 성문화는 이런 '혼탁한 애욕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저질 포르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해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부간의 체인징파트너 섹스, 주부·여대생 매춘, 여고생들의 원조교제 등 '말세(末世)'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부부애인 교환' 및 '집단 성행위'가 검찰에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부부교환 성관계(스와핑)가 국내에도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부부교환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 행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에서 직수입(?)된 원조교제도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60대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이 여고생 3명과 원조교제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돼 원조교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줬다.

또한 생활정보지나 성인잡지 광고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연애 이벤트사' 및 '전화방'과 '자동 폰팅 시스템', PC통신 등을 통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주부·여대생의 신종 매춘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부, 취업이 안되는 여대생에다 용돈이 궁한 여고생들까지 신종 아르바이트로 매춘에 나섬으로써 성윤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성문화의 타락은 정보통신시대에 발맞추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PC통신과 인터넷, '폰팅 시스템'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PC통신·전화 업체들과 사법당국이 음란행위와 '사이버 매춘' 등을 포함한 반윤리적 반사회적 작태를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사용 급증과 일본의 포르노문화 등 외국 퇴폐·문화가 무차별적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문화정책의 실종결과이자 인격통합 퇴행의 증거이자 넓은 의미의 정신분열증"으로 불리우는 성적 타락현상. 이로 말미암아 개인은 물론 가정이 파탄되고 2세대의 정신이 황폐화로 치닫게 되기 전에, 성윤리를 구축해 온 종교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과 PC통신 등을 통해 성윤리가 급속히 타락하고 있다. 사진은 삐삐팅, 미팅, 채팅은 물론 누드팅까지 회원제로 주선하고 있는 국내의 한 '인터넷 대화방'.

불교의 눈 애욕의 끝은 언제나 절망

"타락이란 도심(道心)을 잃고서 나쁜 길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다."〈법화경〉 근본 5계 중 세 번째인 불사음계(不邪淫戒)는 남녀의 순결과 삶의 청정성을 강조한 계율이다. 비구 2백50계의 절반 가량은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고, 비구니 3백48계는 특히 남녀 관계에 관한 규정이 많다. 대·소승의 모든 계율은 음행(淫行)이 스스로의 본성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자리(心地)까지 더럽힌다는 이유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스스로 청정을 유지하고 다른 이도 청정의 길을 걷게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불사음계를 제정한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욕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는 나와 남을 함께 죽이는 죄악이다. "애욕은 격렬한 욕망으로서 삶에 대한 집착이 근본이 되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를 탐내게 되고 때로는 죽음을 원한 정도의 극단적 욕망으로 변한다."〈남전장경 증지부〉 욕망은 더욱 강한 자극을 찾게 되며, 그 끝은 언제나 절망으로 끝난다. "애욕은 번뇌의 왕"(대반열반경)이기에 생사윤회의 원인이 됨을 깊이 새겨야 한다.

시론

奸臣들의 나라

간신(奸臣)들의 나라.

이것은 소설이나 영화제목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땅을 딛고 숨쉬고 사는 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너나없이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성직자는 신자들에게,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자유직업인은 고객들에게, 그리고 그밖에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맡은 바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의무의 '방향성'을 갖는다.



박성호
〈변호사〉

의무를 저버리고 '공복'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간신'이 된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이권에 개입하여 뇌물을 받는다.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는 언론사가 '민원청탁'을 일삼는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등을 치고, 판 검사가 호텔회원권을 상납받는다. 성직자가 물욕(物慾)과 허명(虛名)에 집착한다. 대기업 총수가 회사재산을 사유물(私有物)처럼 제멋대로 유용한다. 의사가 의약품 '랜딩비'를 받아 챙기고, 대학교수는 연구는 소홀히 한 채 정치판을 기웃거린다. 담임선생은 아이들을 '인질'로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강요한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너무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간신'들의 유형이다.

역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신이나 탐관오리는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염소 수염에 비굴한 얼굴을 한 왜소한 체격의 인물이 아니면, 비만한 몸집에 심술궂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 '캐릭터'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간신이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충간(忠奸)을 가려내기가 제법 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등장하는 '간신'들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똑똑하다' 거나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아온 인물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원만하고 선이 굵다거나, 융통성이 있고 '마당발'이란 평을 듣는 호인(好人)들이다. 이들은 지연, 혈연, 학연을 이용하는데 능통하다. 이런 유형의 간신들일수록 인화(人和)라는 단어나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한다.

더구나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간신'들의 유형 또한 다양화한다. 따라서 점점 더 간신들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이순간 간신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중국에서 출판된 〈변간신론(辨奸臣論)〉(우리말 번역서 제목은 '간신열전')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수천년 역사에서 간(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끈 보기는 적지 않았다. 따라서 선악을 가려내고 충간(忠奸)을 판별하는 것은 국가흥망의 소재가 됨은 물론, 백성의 안위와도 관련되며, 사업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친다."

IMF 관리 경제체제하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손들에게까지 간신들이 득시글대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 "원칙을 가벼이 여기고 편법을 장기로 알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물론 아주 쉽게 '간신'의 모습이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켠에 '간신'을 향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만일 그곳에 매사에 지연과 학연을 들먹이고, 종친과 일가의 이해에 집착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또 종교의 같음과 다름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종교에 바타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청빈(淸貧)을 비웃으며 호화와 사치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긍극적으로 원칙을 가벼이 여기고 편법을 장기로 아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간신이다.

"낙태는 명백한 살생"

태아성감별 여전…여아낙태 늘어

여아 100:남아 260 출산 병원도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자람(羯刺藍)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케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이를 대승불교에서는 '바라이(波羅夷)'라고 한다."〈瑜伽論記〉

일부 병·의원에서 여자아기 100명당 남자아기가 120명 이상의 비율로 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과 낙태시술이 여전히 이뤄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여자아기 100명당 무려 260명 이상의 남자아기가 태어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불법 태아 성감별행위 실태조사의 하나로 전국 22개 병·의원과 조산원 등에서 지난 3년 동안의 '남녀 신생아 성비별 출생 현황(96년~98년 8월)'을 조사한 결과, 경기 B병원 등 상당수 병원에서 여자아기 100명당 남자아기 120명 이상이 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상적인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5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의료기관에서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왕따'에 청소년들 '시들'

소외감에 자살…가정 · 학교 관심 절실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은 최근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을 주제로 개원 1주년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의 대상은 '잘나고, 있는척' 하며, 가정에서는 과보호를 받고, 집단에서는 지나치게 튀는 청소년들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막기위한 방안으로서는 학업성적을 강조하는 경쟁적인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식의 개혁과 가정·학교의 사랑과 관심, 상담·심리프로그램의 개발 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수사기관 감청 오히려 늘어

법무부, '감청신고의무화' 법개정 추진

민주화가 진척되면 개인 사생활의 보호와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전화감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97년 3천3백6건으로 96년에 비해 1.6배 증가)는 사실이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현재 수사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내세워 법원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엿듣는 '긴급감청'도 반드시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감청사실을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영국서 도수조절 안경 개발

근시든, 원시든 어떤 시력에도 맞출 수 있는 '꿈의 안경'이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조슈아 실버 (52) 교수에 의해 최근 개발됐다.

이 안경은 사용자가 두 겹의 플라스틱 렌즈 사이에 들어 있는 액체 실리콘 양을 테에 달려 있는 작은 조절 레버를 이용, 시력에 맞추도록 돼 있다.

액체 실리콘을 많이 주입해 렌즈의 두께를 늘리면 근시용, 그 반대로 하면 원시용이 된다.

"결혼식 음식접대 금지는 위헌"

결혼식 등 경사 때 음식물-주류 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는 15일 결혼을 앞둔 이 모씨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4조1항7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행동 자유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상가와 제사 등 조사때 음식물 접대에 대해서는 관단하지 않았다.

전국서 농산물 도둑 판친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농가. 한해동안 땀흘려 수확한 40kg짜리 벼 70여 가마와 찹쌀 등이 도난 당했다.

농민의 피와 땀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농산물 도둑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난 농산물 절도사건은 지난 한달에만 모두 56건. 마침내 경찰이 농산물 도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세옥 경찰청장은 19일 "경찰은 농산물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농산물 도둑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잡겠다"고 밝혔다.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가을호 제7호(통권 제27호)



지상강연 교육학자, 김종서 박사에게 듣는다
21세기를 대응하는 불교교육

특집 IMF시대 이후 불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불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제언
1. 불교계의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불교계의 재정운용 현황과 실태
3. 타종교의 예
- 천주교
- 개신교
- 원불교
4. 심보정재 관리의 모범사례 및 제언

특별기획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❺
행동하는 불교지성, 월폴라 라훌라 스님
- 1997년 입적한 월폴라 라훌라 스님
동서양을 두루 섬렵하며 현대를 대표하는 불교 지성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끊임없이 깨우침을 실천해오신 스님의 삶, 그리고 그가 추구한 불교지성인의 역할과 수행자로서의 수행법을 조명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불교 사상을 살펴본다.

한국의 미 ❺ 한국의 담과 굴뚝

칼라화보 사진으로보는 성보기행 ❼ / 명부전의 이모저모
죽음의 문화 - 그 빛과 그늘

山寺古談 ❸ 마음으로 자비를 깨치신 산부처, 청담 큰스님

특별기고 다시 종교편향문제를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불교편향과 훼불사건 자료-훼불사건 일지

불교계진단 ❻ 현행 불사(佛事)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현재 불교계에서 벌이고 있는 각양각색의 불사를 점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지상중계 강건기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 ❶
지혜의 길, 믿음의 길

고전산책 선논쟁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❷
지난 호 추사의 편지글(證白坡書)에 이어 이번 호에는 백파 스님의 편지글(김참판 정희에게 답함)을 소개한다.

발굴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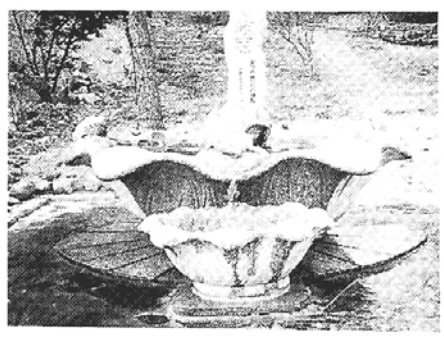
생태탐사기 조계산 송광사와 선암사 주변의 자연생태

불교계 주요일지(1998.6 - 9)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

불교와 문화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편집실(02)719-2606,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1855, Fax. 02 - 719 - 5052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건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836-7527(FAX겸용) 자 택 : T)0653-831-3953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여성불자 소비보다 나눔주체"

여불련 '세계화, 정보화와 여성' 세미나


◇이혜숙씨


◇엄금자씨

이혜숙 "현실직시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

엄금자 "정보·교육·환경문제 해결 앞장"

"여성은 의식 개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것을 사회에 투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21세기를 향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의 역할과 이것을 수용하기 위한 여성상을 찾기 위해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혜숙박사(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엄금자박사(단국대 행정학과 강사)가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이혜숙박사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참여'에서 "그동안 한국사회는 물질의 소비 뿐만 아니라 정신의 소진을 부추기는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경제가 궁핍해졌고 가족의 유대 마저 느슨해졌다"며 "여성불자들이 사회에서는 소비보다는 나눔의 주체로, 가정에서 유대감의 주춧돌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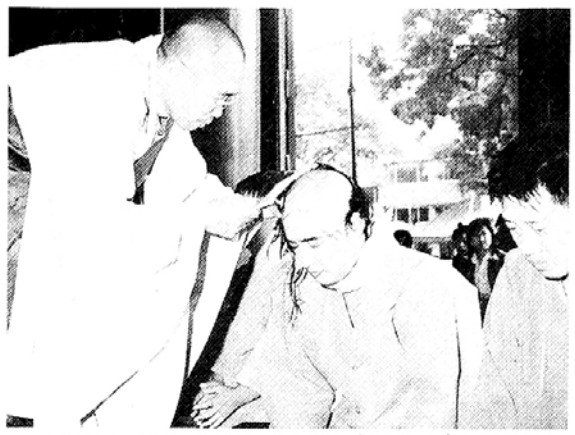
여성불자에게 정보화는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기보다는 거품경제, 가족파괴 등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또 이를 토대로 소비보다는 '자원봉사'에서 삶의 철학을 찾아야 하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금자박사는 '세계화에 따른 여성의식 변화'에서 "여성불자들이 △남아선호 △일등주의 △뒤틀린 돈 철학 등에서 깨어나 내적인 힘과 미를 기르는 등 의식변화를 거쳐 정보·노동·교육·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도 세계화와 민주화의 연장선에서 배타적인 이기주의와 폐쇄적 집단주의, 인간경시풍조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 걸맞는 여성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인자교수(경기대 디자인학과)와 안승신교수(한국방송통신대 영문과)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만큼 경제와 정신도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경제와 정신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여성불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초석을 다질 때,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함, 풍요로움이란 얼마를 금고에 간직해 두고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을 나눌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소유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이 되면 오히려 넉넉한 삶의 참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1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영화 '팔만대장경' 삭발식에서 조계사 총무 선광스님이 미루역을 맡은 김준우씨를 삭발하고 있다.

"출가한 마음으로 배역에 최선"

영화 '팔만대장경' 주연배우 4명 삭발식

극영화 '팔만대장경'의 제작사인 프로덕션 세양(대표 이양우)은 18일 크랭크인에 앞서 주연배우 등 4명의 삭발식을 조계사에서 가졌다.

조계사주지 현근스님의 집도하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김동석(공설역), 김준우(미루역), 김창국(지승역)씨와 아역배우 박원웅(다루역)군이 삭발했다. 삭발식이 끝난 뒤 열린 수계식에서 4명의 배우들은 수행 5계 서약과 함께 마하, 금강, 반야, 화엄이란 법명을 각각 받았다.

삭발을 한 주인공 김동석씨는 "촬영에 앞서 삭발을 하니 한껏 배역과 친숙해 진 느낌이다"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출가했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경주 엑스포현장서 자원봉사

부산·경남북 파라미타…문화재 애호활동도

18일 경주 엑스포 대회장에서는 국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산의 보고인 경주를 알리는 청소년 불자 2백여명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바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스님)와 불국사(주지 성타스님)가 공동 주최한 '문화재애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부산, 경남·북 지역의 파라미타 청소년 회원들.

이날 청소년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불국사와 석굴암이 새겨진 배지와 스티커 등 기념품 6천여개를 나눠주는 문화재애호활동과 행사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전개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불국사를 방문, '불국사와 석굴암'을 주제로 한 영상물도 감상했다.

법경스님(파라미타 사무총장)은 "문화재애호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소중한 활동"이라며 "파라미타에서는 각 지부·지회의 문화재애호활동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 소감문 공모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1월 7일까지 도내 중·고·대학생을 비롯 봉사활동 담당교사·자원봉사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한 소감문이나 영상물, 참신한 프로그램 및 지도교사 등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소감문: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 △표어: 30자 이내 △포스터: 4절 이상 △영상: 사진·비디오 △단체 및 활동 프로그램 △지도교사 및 지도자 등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0461)736-9003~4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유해환경감시단은 30일,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공청회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인천시 서구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학교폭력 등을 감시·고발하는 신고전화 '1338'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이렇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이진 이 책은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5,000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지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형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지 다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빙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건국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개정3판, 제주대학교 안창범 교수 지음

"우리민족의 고유사상"

♠ 구입안내



● **이 책의 주요내용** :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은 天地人 一體의 天道·불교·유교·도교·동학의 발상지는 우리나라의 백두산(천지용왕담), 석가세존은 한국사람, 석가세존의 성도지인 설산은 백두산, 초전법륜지인 녹야원은 제주도 한라산(영실). 대승경은 원래 신선도의 경전, 대승경의 법서는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자, 불상의 금관은 신선사상의 상징. 대웅전·불탑·범종·석등은 신선도의 유풍유속, 종전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임. 그러나 이 책은 학술지로서 논리적이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음.

구 입 요 령

이 책(가로 15cm×세로 22.5cm, 칼라사진 10매350쪽)은 극히 새로운 연구물로서 정가는 15,000원, 10권 이상 주문할 때 40% 할인. (서점에서는 판매하지 않음)

※ 책값은 농협(계좌번호 : 953-02-198788. 안 창 범)으로 송금 요망.

※ 연락처 :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안창범 교수 연구실.
전화 : (064)754-3262, 학과 : 754-3260
※ 공급처 : 저자의 자택.
제주시 일도이동 1045의 8.
전화 : (064)752-4906

활법지부장 모집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의료선교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의학연구자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11. 운동공학 체조법

교육안내

■ 교육기간:5박6일 (속성반), 3개월반. 매주 일요일 10시 수업시작

■ 준비물 :
1. 교육비 및 회비
2. 사진 3×4 10매
3. 주민등본 1통
4. 신청서 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공인활법사, 활법 5단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수료증 소 신분증 부여
3. 본 협회 정관 제4조에 의거 전국 및 해외 지부를 설립할 수 있음.
4. 스님, 법사, 철학인, 체육관 운영하시는 분

대한불교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본부연수원:(053)959-7177~8/FAX:(053)942-9969
H.P:011-547-2255/B.P:012-1716-2255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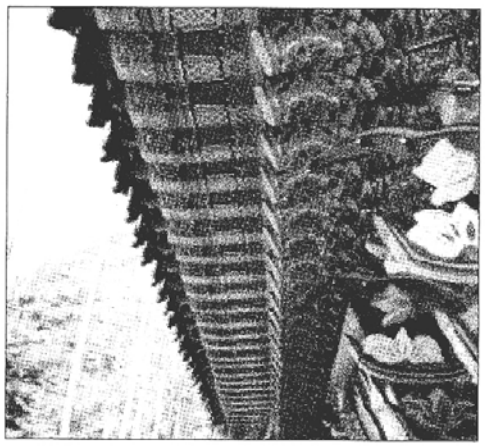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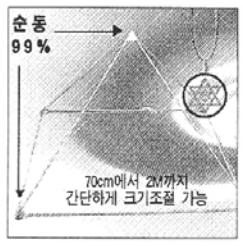
氣가 통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사라진다

●全身氣通의 오묘한 功法-천문을 통해 氣가 들어오면 병기, 사기, 탁기가 빠져나오며 명문혈에서는 옷자락이 펄럭일 정도로 찬기운이 빠져나오고…
●누구나 좋은 집터, 명당을 얻는다 - 한 유명한 지관이 길을 가다 분묘에 서본다. 이자리에 분묘는 명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좌향이 15 틀어져 아무리 이 자리가 명당일지라도 그 자손이 비참하게 멸망하는데…「이 묘 쓰고 크게 번영했는데 사초하고 망했구먼」 집안청년 17명이 1년내 죽어 버렸고 재산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암, 당뇨요법 - 이제껏 이 자료를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대학교수가 뇌종양환자의 치료를 한다고 나의 문헌을 요구해왔다.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었던 바 그 교수는 수개월후에 제약회사에 갖고가서 신약을 발표, 의학박사 학위를 획득,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자료는 개업의에서부터 여러 대학의 의사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제물이 되어 버리므로 공표를 굳게 거절해왔다.
●숯가루요법, 설사, 장염 ●히란야 육각성의 기적
●氣功治病秘法 ●소주천 속성법의 비밀
●氣주입법(미국 일본 등에 알려진 氣주입법)

기적의 육각성 피라미드

최근 피라미드가 인체의 피로회복·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신비의 피라밋 파워를 이용 건강증진, 기수련, 질병치유 촉진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책자 정가 : ₩10,000 · 우체국: 014092-0035728-17(김건순)

氣功研究會 ☎ 02)455-6944/453-5851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알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처럼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떡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대입수험생을 위한 3천배 100일기도 봉행 : 동참자 사진지참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이시대의 마지막 불가기공의 비전 (연/화/도/법)

氣功

26년간 입산수도 중생을 위해 하산하신 (도현선사님 직접지도)
14박~15일 단시간 만으로 비전 전수!

◆연화도법은 총 740년이라는 긴 세월간 한 대에 1명씩만 전수해오던 도맥입니다.
◆누구나 바로 천기 및 지기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인체에 음양의 기운을 돌릴 수 있으며
◆14박 15일 수련만으로 기치료의 능력이 자생됨.

이러한 대중들은 꼭 (연화도법)을 전수 받길 권합니다.

◆사찰 포교당 및 모든 불제자가 기치료 능력을 배워서 대중을 위해 봉사 하실 분
◆어떠한 일을 해도 전생의 업장으로 인해 일이 안되는 분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모든 대중 및 불자님
◆기치료를 꼭 배우고 싶은 분
◆기공을 전수받고 이 도법을 대중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상근기가 강하신 모든 남·여
◆수년간 수련해도 공의 발공이 안되시는 분

연화도법 연구학회
전화 (0431)292-9090
FAX (0431)292-9091
숙식 완전 해결 선방 준비 되어 있음.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묶고

소슬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청거운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 치료 능력, 氣 응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밀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氣 치료법, 氣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치료능력자, 氣 응용능력자가 될 수 있는 비법중의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등의 의료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을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운세좋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계계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등에 氣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장해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미용효과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③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④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신행 캘린더

10월29일 (목)

■부산불교운전사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연다. (051)464-2020

■삼광사 알뜰장터=삼광사 알뜰장터는 11월 2일까지 의류, 식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051)808-7111

10월31일 (토)

■참사람결사 도반과의 만남=백양사는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과의 만남을 11월 1일까지 1박2일간 실시한다. (0685)92-7502

■장기기증을 위한 거리캠페인=생명나눔실천회와 광명시 서천사는 오후 6시부터 광명시청앞 광장거리에서 장기기증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한다. (02)734-8050

■청도 운문사, 양산 통도사 답사=국토문화연구회 옛돌은 11월 1일까지 무박 2일로 청도 운문사, 석남사 양산 통도사를 답사한다. (02)275-4333

11월1일 (일)

■금강메아리 산행법회=오전 9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서울지부 금강메아리는 경기도 팔당 검단산 옆 예봉으로 산행법회를 떠난다. (02)772-9517

11월2일 (월)

■팔만대장경 수호 보살계 수계법회=해인사는 장경이 운 6백주년을 기념하고, 팔만대장경 수호를 위한 보살계



◇비구니스님들의 수행도량 운문사에서 불자의 서원을 다시 세우자.

수계법회 및 만등불사를 3일까지 봉행한다. (0599)931-1001

■(주)성원 정상화를 위한 기원법회=오후 2시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주)성원 정상화를 위한 기원법회가 열린다. (051)816-3680

11월3일 (화)

■양양 홍련암 철야기도 및 낙산사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밤 8시 양양 홍련암 철야기도 및 낙산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11월4일 (수)

■자비의 전화 상담 연합교육=자비의 전화는 불교상담기관 연합교육을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실시한다. (02)737-7378

게시판

♣ 인사

광동여고 ▲교장 윤증희 ▲교감 이학송
광동종합고 ▲교감 송상철
광동중 ▲교감 이성호

♣ 알림

△A형 혈액 부족=법련사 청년회 회원 송미경씨가 혈액암으로 안암동 고려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나 혈액이 절대 부족하다. 송씨의 혈액형은 A형.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린다. 011-318-9667

△전화번호 변경=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전화번호를 (02)260-8507~8로 변경했다.

△영화 무료상영=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31일 토요일 오후 4시 복지관 강당에서 '로스트 인 스페이스' 영화를 무료상영한다. (02)985-0161

△산모도우미 파견=신도림 복지관에서는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도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한다. (02)631-9792

△법보신문 노조사무실 개소=법보신문 노동조합은 14일 종로구 청진동 182-4 원일빌딩 502호에 노조사무실을 열었다. (02)736-5808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하루찻집=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부(회장 양원식)는 31일 토요일 중앙동 다전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불자를 위한 포교기금 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051)852-0069

△자비의 집 바자회=자비의 집 바자회가 11월2일~3일까지 열린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자비의 집에서 고추, 옷, 먹거리 등을 판매한다. (02)945-4200

♣ 강좌

△교리강좌=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은 27일부터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운문사 일진스님의 교리강좌를 실시한다. 교재는 〈예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다. 수강료는 8만원. (053)784-3669

♣ 모집

△선재어린이합창단=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이 제2기 단원을 모집한다. 가입자격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6학년생 재학생으로 용모가 단정한 어린이면 된다. 11월 14일 불국사 심검당에서 오디션을 실시할 예정. (0561)746-9912

△실직자 위한 쌀모으기=이웃을 돕는 사람들에서는 실직자를 돕기위한 쌀을 모은다. 직접 쌀을 보내주거나 후원금도 가능하다. (02)3147-2600

△관동문화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온전히 지켜온 관동문화의 핵심, 강릉 찾아가기 답사기행을 떠난다. 허균 생가터와 경포대, 선교장, 객사문등을 둘러본다. (02)725-1284

♣ 답사

△조선중기 유학과 양반문화 답사=우리문화 사랑은 31일~11월1일 '조선중기 유학과 양반문화'를 주제로 경북 일원으로 우리문화답사를 떠난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02)3675-5506

♣ 화촉

△본사 취재2부 강지연기자가 11월 1일 일요일 낮 12시 광진구 건대동문회관 2층에서 윤기석씨(前 현대불교기자)와 화촉을 밝힌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觀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20년 경험
불자 건축
· 무 · 료 · 상 · 담 ·

귀의 상보하옵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의 토목, 건축공사에도 상담을 원하시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요사채, 사찰건물, 불자건물
●토목공사
진입로 확장 · 신설. 산림제거
●하자보수공사
누수, 구조적 결함
●계획 및 설계
소규모라도 수시 무료 상담
●시공 협의
완벽한 공법제시

대종건설 노광운 합장
연락처: 011)405-0703
042)863-0756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호국불교를 개척할 군포교에 원력이 있으신 이시대의 원광법사를 모집합니다.

승가여!
세존께서 우루벨라 세나니 가마 병장촌으로 가셨듯이, 우리 젊은 스님네도 조국수호를 위해 피땀흘리는 군인들에게로 달려가 법을 전하십시다.
군불교는 군포교에 원력있는 보다 젊은 스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 선 발 일 시 ◈
●원서 교부 및 접수 : '98.11.2~11.7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98.11.11(수) 14:00
●면접장소 : 육해공군 군승단
●모집 인원 : 00명
●신검 및 합격자 발표 : 추후 통보

◈ 응 시 자 격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2년(학사 이상)경과하고 군포교에 원력이 있으신 분
●조계종 스님으로서 일반 4년제 대학(학사학위 소지)을 졸업하고 군포교에 원력이 있으신 분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임관시 연령 만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분

※자세한 사항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720-7060 또는 육·해·공군 군승단 (02)749-8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불기 2542(98)년 10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육·해·공군 군승단장

"야호! 우리는 해냈다"

승가원 장애인가족 설악산 대청봉 정복기

시각 · 정신 불편 딛고 험한 고봉 올라



◇설악산 정상에 선 승가원 장애인 가족들. 이젠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야호—.' 17일 오후5시 설악산 대청봉. 장애인들의 힘찬 외침이 능선과 계곡을 타고 멀리 울려퍼져 나갔다. '마침내, 우리는 해냈다'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일반인들도 오르기 힘들다는 설악산 정상 대청봉을 정복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종로그룹홈-아나율의 집(시각장애)'과 '성북그룹홈(정신지체)' 장애인 가족. 남들보다 두세배 이상 더 걸린 산행. 그만큼 힘든 일정이었지만 산을 오르면서 속된 세상에서 겸허하게 사는 방법을 깨닫고, 산정에 오름으로써 넓은 세상을 꿰뚫어볼 수 있는 진리의 눈, 혜안을 얻게 되었다.

10월 16일 오후1시반경 서울을 출발, 추색(秋色)이 완연한 한계령을 넘어 오색약수터 그린야드 콘도에서 1박을 한 이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참가 인원은 총 18명. 시각장애 3명, 정신 및 지체장애 4명 등 7명의 가족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2인1조로 편성, 각각 배낭을 짊어지고 매표소를 통과했다.

자원봉사자로 동행한 관동대학교 산악부 4명은 평균 10Kg의 배낭에 텐트 · 버너 · 보조자일(밧줄) 등 산악구조장비를 갖추고 선두 · 중간 · 후미그룹에서 등반도중 발생할 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다.

설악폭포에 도착하기 전 제1쉼터에서 휴식, 30분이 경과한 11시 15분경. 앞서가던 선두그룹쪽에서 '사람이 추락했다. 폭포 아래로 사람이 미끄러졌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뿔싸,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군!' 미끄러진 사람은 시각장애인의 파트너, 산악부 회원.

고통을 잊고 지금껏 참고 올라온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날 지경이었다. '그대로 등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하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지명스님은 일단 부상자의 상처를 응급조치시키고 산악부 1명을 동행, 병원으로 후송시킨 다음 등반을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최종 목적지 대청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난했다.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설상가상격으로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 장애인과 함께 한몸이 되어 등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대청봉. 산정을 휘감고 있는 운무를 헤쳐나가 눈앞에서 마주친 '대청봉'이라고 씌어진 비문. '야호, 우리는 해냈다.' 비명과도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일행 중 가장 힘들게 등반을 했던 오창석군(남 · 16세, 정신지체2급)은 비석을 향해 연신 합장을 하며, 지명스님의 손을 잡고 '대청봉'이라는 글귀를 마음 속에 담아두려는 듯 비석을 어루만졌다.

10월 19일 오전, 낙산사 원통보전(圓通寶殿)에서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무사산행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삼배를 올린 후 지명스님(성북그룹홈)은 한마음이 되어준 장애인 가족과 일행과 감격을 나누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라산 존자암 중창불사 착수

3천여평 부지에 법당등 건립…1천일기도 입재

한국불교의 초천법륜지로 알려진 한라산 영실 존자암이 복원된다.

존자암 복원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아 · 서귀포 법륜사 주지)는 22일 영실 존자암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제주도내 종단대표스님과 각 신행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존자암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공된 존자암 중창불사는 16억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평의 존자암터에 법당과 관리사 화장실 등을 설립하고 진입로와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존자암 복원불사추진위원회는 22일부터 복원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천일기도를 실시한다.

한편 존자암복원불사는 95년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국유림사용 등 개발사업승인이 최근 확정되면서 복원불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중근 기자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은 18일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금당 진주사 암연합회장 스님을 비롯 백성두 진주시장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상점안 및 대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인천 '노인 그룹홈' 개원

연꽃마을 노인자립 도와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24일 인천시 동구노인복지회관 뒷편에서 '노인 그룹홈'(경로원) 개원식 및 동구경로의원 개원 1주년기념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인천 동구청에서 건물 2동을 구입, 연꽃마을에 운영을 위탁한 '노인 그룹홈'은 인천 동구 관내의 즉 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 입주한 독거노인들에게 의 · 식 · 주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노인 그룹홈'은 송림2동 124-69번지와 송림4동 2-146번지에 각각 소재해 있다.

한편 연꽃마을은 같은날 5백여명의 지역 불우 · 독거노인 등을 초청, 경로의원 개원 1주년 기념잔치를 열었다.

김재경 기자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대법당 준공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지원장 혜근)은 18일 불상점안 및 대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대법당은 97년 4월 착공해 1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총건평 4백84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 전통양식건물로 지하 1층은 74평 규모에 4개의 모임방, 기계실이, 1층 2백22평에는 종무소와 휴게실, 요사채, 공양간이, 2층 1백87평에는 법당과 요사채를 각각 갖추고 있다.

이날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단계별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법당을 완공할 수 있듯이 생활속에서도 하나 돌 닥치는 경계를 공부재료로 삼아 자신속에 이미 내재된 불성을 밝혀나가야 한다"라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합천 청소년회관 개관

연호사, 상담실 · 쉼터 · 문화공간 등 마련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합천군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개관됐다.

연호사(주지 능도)는 17일 합천읍 대구식당 2층과 4층을 임대해 청소년 쉼터 및 문화공간을 마련한 것. 12평의 4층은 상담실, 전통다실, 독서실 등으로 운영되고 60여평의 2층은 소극장 연극무대, 음악감상실 등으로 활용된다. 이를위한 영상시설 및 오디오시설도 이미 완비된 상태이다.

연호사는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명상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천 청소년회관은 농촌벽지에 있는 전통사찰이 지역포교를 위해 앞장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능도스님은 "사찰이 자신이 속한 지역민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면서 "앞으로 독립된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봉은사 제6회 보우재

추모재 · 수계등 행사 다채

삼성동 봉은사(주지 무상) 보우대사 순교 4백32주기를 맞아 추모기념행사 및 제6회 보우재를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22일 보우대사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입재된 보우재는 봉은불자 체육대회, 신앙 및 포교 체험수기 공모 시상식, 불우이웃돕기, 신행단체 연합수계법회, 정대불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봉은사는 신심증대 및 포교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신앙 및 체험수기는 포교사례집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는 매달 1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후원하게 된다.

김중근 기자

삼화사 미타전 기공

동해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는 20일 미타전 · 산신각 신축 착공식을 봉행했다.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되는 미타전은 건평 15평 규모로 99년 10월30일 완공, 아미타불 좌우협시불, 삼존불이 봉안될 예정이며 산신각은 1억여원을 들여 건평 11평 규모로 신축된다.

우리절 불사 단양 '청련암'



◇충북 단양 사인암 인근에 위치한 청련암은 최근 요사채 중수, 담장 쌓기등 복원불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옹선맥 잇는 선도량 복원

고려때 창건…6 · 25로 소실
지장보살 봉안 백일기도
대웅전 · 종각 등 곧 착공

수백척 헤아리는 기기묘묘한 암석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 있는 모습이 장관인 사인암(舍人岩). 단양 8경 가운데 4경에 속하는 사인암 인근에 위치한 청련암(주지 종덕)이 전통적 사격을 갖추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청련암은 고려 공민왕 계축년 22년 나옹선사에 의해 창건된 고찰. 그러나 청련암은 장구한 역사를 지닌 고찰임에도 전통사찰로 지정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1954년 전란으로 가람이 소실된 이후 복원불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치됐다는 것이 더 나을 정도.

지난해 4월 주지로 부임한 종덕스님은 날이갈수록 퇴락해가는 사찰의 모습이 안타까워 복원불사를 발원했다. 그후 틈틈히 쓰러져가는 요사채를 중수하고, 돌담쌓기 등 기초적인 사찰조경불사를 시작했다. 사찰이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신도마저 몇 안되기 때문에 큰 불사는 엄두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속에서 불사를 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말하는 주위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스님의 집념을 더욱 강해졌다. 사찰의 규모보다는 옛선사들의 선풍이 배여있는 사찰을 복원해 그 맥을 잇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기 때문이었다.

종덕스님은 "신도가 많으면, 재정의 풍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사찰의 척도는 아니다"며 "오히려 쇠락해 가는 사찰을 복원해 출 · 재가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거듭나게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불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한다.

청련암은 11월 6일부터 복원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장보살 봉안을 위한 1백일기도 및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가 바로 그것. 청련암은 이 불사가 원만성취되면 대웅전, 종각, 일주문 등 구체적인 불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사인암의 절경을 비롯 청련암 주위를 병풍처럼 서있는 암벽, 폭포등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도량을 복원한다는게 스님의 지론이다. 또 옛 선사들의 선맥을 잇고 고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청련암이 바로 스님의 구상하고 있는 청련암의 복원 청사진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예천 용문사 윤장대 일반에 첫 공개

내달 23일…만등 불사 · 큰스님 초청 설법회도

예천 용문사(주지 청안)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윤장대 윤전 대장경불사를 봉행한다.

용문사에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보존되어 있으며 11월 23일 근대이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

주지 청안스님은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설해왔다"며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문사는 이번 법회기간동안 목원 동국학원 이사장, 화산 대구 보광원 조실, 자광 김룡사 주지스님을 초청, 윤전 대장경특별법회 및 만등불사 등도 갖는다.

김중근 기자

위기극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삼매체험 선禪수련회 개최

'98 겨울 지도자 스님 일반인 청소년 수련생 모집

산과 바다가 맞닿은 청정한 한라산 산하 제주에서 참선의 진수를 맛볼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선생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생과 일반인 법회를 맡아 지도하는 스님 등을 대상으로 단기로 참선을 체험하고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최근 753분의 훼불을 당한 원명선원에 본부를 두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이 참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취지 :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 속에 과연 사람의 삶, '내'가 있습니까. 내가 실종된 세상에서 의욕과 용기가 있습니까. 참선생활운동본부에서는 누구나 곧 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삼매를 체험할 수 있는 3박 4일의 수행후 일상생활(직장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 인간을 찾을 것입니다.

◆ 특징 : 참선 수련이 어렵거나 극기와 같은 힘든 수련이 아니며 수련후 일상 생활중에 실천이 가능함.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을 체험할 수 있음. 묵은 때는 벗고 생활의 활기를 찾으며 매 순간 분위기 전환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음.

◆ 각종법회 지도하는 스님대상 특별수행체험 기회 마련함. 학생(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및 성인법회를 지도하는 스님 위주로 하며, 참선을 새로 시작하는 스님과 참선 접근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하여 개인점검도 갖는 수행 기회를 가짐

◆ 신청서류/일반/청소년 1.성명(한글, 한자) 2.주소 3.전화(자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청소년: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 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일정표참조)

◆ 신청서류/스님 : 1.법명(한글,한자) 2.법회지도사찰과대상 3.거주사찰(또는 소속교육기관, 강원등) 4.참가이유 5.승려번호 6.참선정진경험유 · 무 7.선방안거유 · 무(언제 어느선방) 8.희망차수

◆ 자원봉사신청 : 매차수별 7명내외 ●동참금 8만원(일반, 스님)/6만원(학생)

◆ 참가확정통보 : 일반인, 청소년 12월 10일까지/ 스님-11월 30일까지 개별통보(통보받은후 불참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일반인, 청소년은 12월 15일까지 스님은 12월 5일까지 필히 불참 연락바람)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행선20분, 좌선20분, 예불, 선문독송(엄송, 염송글사경)

◆ 장소 및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본부(제주교대옆, 공항에서 함덕 또는 동회선 시내, 좌석버스 제주교대하차) ☎ 064)755-3322 전송 064-755-8913

선수련회 일정표

차수	기 간	인 원	신청기간	대 상	연 령 외
1차	98.12.8 ~ 10	50명	10.20 ~ 11.10	스님	법회지도자,
2차	15 ~ 17	50명	〃	스님	희망하는 스님
3차	23 ~ 26	100명	10.20 ~ 11.30	일반인	65세이하
4차	27 ~ 30	150명	〃	청소년	학생
5차	99. 1.1 ~ 4	100명	〃	일반인	65세이하
6차	7 ~ 10	〃	〃	〃	〃
7차	14 ~ 17	〃	〃	〃	〃
8차	21 ~ 24	〃	〃	〃	〃

참선생활운동본부

제주시 화북1동 4684 한라산 조계종 원명선원 ☎064)755-3322

여성노숙자 쉼터 2곳 개설

우리는선우 목동에 '화엄동산' 11월9일 개원
본동복지관 '희망의 집' 마련 일자리도 알선

경제한파로 인한 여성실직노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우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개설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쉼터는 IMF사태 이후 남성실직노숙자를 위한 쉼터는 잇따라 개설돼 왔지만 여성실직노숙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사회적으로도 미미한 상태에서 개설돼 더욱 의미가 깊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가 11월 9일 개원을 예정으로 준비중인 쉼터는 목동 화엄동산. 양천구 목동 730-2에 위치한 화엄동산은 75평 규모로 상담실, 숙소, 화장실, 목욕탕, 주방 및 식당으로 구성되며, 입소정원 40명이다. 이용대상은 30세~60세 이하의 실직여성으로 재활의 지를 가진 자여야 한다. 이곳의 1회 이용기간은 20일 이내로, 저녁 7시~아침 8시까지 13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다.

화엄동산은 단순한 숙식제공뿐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간용역 업체, 노동부 취업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여성노숙자들의 취업과 재활을 도울 계획이다. 또 각 사찰의 공양주 모집 및 각종 불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골칠 예정이다.

이에앞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숙)은 26일 수용인원 10명 규모의 여성실직노숙자 쉼터 '본동 희망의 집'을 열었다. 희망의 집은 복지관 지하강당을 개조해 2개의 방과 샤워실, 화장실, 식당등을 마련하고 저녁 6시~아침 9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구청과 동사무소를 연결 여성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새 회장 선출때까지 두회장 직대 체제로
중앙신도회 23일 운영위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3일 20명(위임 8명 포함)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홍옥진, 김한곤 부회장을 긍동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직대체제는 새 회장 선출 때까지 유지된다.

중앙신도회는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으며, 승재건 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정성은 기자 (swjung@buddhapia.com)

표충사, 폐교인수 자연학습장 활용

표충사(주지 신허)는 18일 96년 폐교 후 방치돼 철거위기에 놓인 사자평 분교를 인수,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표충사는 해발 8백m에 위치해 '하늘아래 첫 학교'로 불리는 사자평 분교를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고 이 일대를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민족의 얼을 심는 교육장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 법대 후원의밤 행사가 21일 9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교계 법조인재양성 나섰다"
동국대 법대발전기금 2억8천만원 모아

"법대발전은 동국대발전, 동국대발전은 불교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법조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동국법대 발전기금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21일 동국대90주년기념관 그릴에서 교계 스님 재가 지도자를 비롯한 법조계 등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기영 법대학장은 "법과대 동문등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를 발족하여 고시장학금과 시설확충 등 법과대학 발전에 사용될 재원확보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연택 법과대학 후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진모동창회장의 인사말 송석구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황명수 동대총동창회장,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주혜란씨 등이 축사를 했다.

한편 이자리에서 총 2억8천만원의 발전기금이 모아졌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교계 대북지원 13억3천여만원
문화부 국감자료…불교TV 누적적자 221억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종교단체가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성금(물품 포함)은 1백29억3천3백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불교계는 총 13억3천5백51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대북지원 규모는 불교 13억3천5백51만원, 개신교 69억5천여만원, 천주교 44억2천2백53만원, 원불교 2억5백만원, 천도교 2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95년 출범한 불교TV의 3년간 누적적자액이 2백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 길승흠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유일하게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39쇼핑을 제외한 28개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전체 누적적자액은 6천5백63억원에 이르렀다.

케이블TV 가입가구는 7월 현재 유료가입 82만6천 가구, 무료가입 25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정성은 기자

29일 호주 남천사서 WFB-WFBY 개최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11차 세계불교청년회(WFBY) 대회가 '불교와 21세기에 있는 도전들'을 주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6일동안 호주 시드니 율릉공 해안의 남천사에서 공동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WFB, WFBY의 세대교체와 21세기를 향한 불교의 인류 구원과 자기 발견에 획기적인 메시지를 찾는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WFB 한국본부 박동기회장, WFBY 한국본부 이치란회장 등 이번 총회에 참가할 한국대표 30여명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불교 홍보 △본부임원 선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대만에 세계종교박물관 심도스님 원력 내년 준공

대만에 종교교류 및 종교체험을 할 수 있는 세계종교박물관이 들어선다.

타이페이시 용허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종교박물관은 심도스님(대만 영축산 무생도량 창건주)이 종교를 바로 알고 종교간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종교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추진중인 주상공용 건물로 99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현대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 빚어지는 혼란현상을 극복하고 종교적 힘으로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종교박물관에는 각 종교의 지혜를 보여주는 '주제전시관', 종교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종교예술관', 대만본토 문화를 소개하는 '대만종교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선경의 '화엄세계'가 만들어진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오락체험의 '과학기술관', 몸으로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극장관', 종교지식의 보고인 '불교정보센터', 자아탐구 및 관법을 할 수 있는 '명상관', 세계종교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교박람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세계종교박물관측은 모든 종교의 우주관, 가원, 교의, 의범, 수행방법, 포교, 생활방식등을 망라하며 문물의 수집진열 및 정보연구발전으로 얻은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 10여년간 각국 종교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수집해 오고 있다.

심도스님은 오는 29일~11월 2일의 일정으로 귀국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건봉사 복원 '부실의혹'
기단석-석축 훼손불구 유구정비만

건봉사 복원사업이 건물복원보다는 유구정비에만 치우치는데다가 그동안 축조한 기단석과 석축 등이 부서지고 있어 부실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전쟁 때 전소된 건봉사는 90년부터 99년까지 모두 13억3천여만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구정비사업을 하는 곳은 대웅전지 극락전지 낙서암지 팔상전지 등 4개 구역 6천5백여평이다. 고성군은 지난해까지 7억6천여만원으로 지표조사와 팔상전지 낙서암지 극락전지를 정비했으며 올해 3억원으로 낙서암지 연못과 주변 정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축조한 기단석과 석축쌓기가 네모형으로 마름모형인 기존공법과 달라 원형복원이 안되고 있는데다가 사지정비보다 건물복원 우선을 주장하는 사찰측의 반대로 19일 현재 올해 정비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 측은 내년도 복원사업으로 군이 도에 지원요청한 낙서암지 건물 7동과 극락전지 건물 8동 복원사업비 7억원의 조속한 해결과 올해 유구정비 사업비의 건축물 복원비로의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목탁소리

청화스님을 찾는 이유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청화스님의 법회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어디로 연락하면 스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청화스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뵙고, 법문을 듣고 싶다며 방법을 물어오는 불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온다. 이런 불자들의 바람을 알기라도 한 듯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의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서 앞다퉈 초청법회를 준비해 놓고 있다.

스님은 지난 봄 미국 콤스프링의 금강선원에서 잠시 귀국해 인연있는 사찰에서 법문을 하고 떠났다. 당시에도 신문사에는 스님의 법회를 묻는 불자들의 전화가 꽤 많이 걸려왔었다. 스님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극성스런 불자들이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스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자주 뵙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법연을 베풀어 달라"며 스님을 졸랐고, 성화에 못이겨 지난 9월 스님은 다시 귀국했다.

이렇게 불자들이 유독 청화스님을 찾는 이유는 무얼까. 스님이 미국에 가시기 전부터 스님의 법회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한 불자는 말한다.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웅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스님의 법회에 가면 진실한 수행에서 우러나오는 참 수행자의 빛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새로운 발심을 하게 만듭니다"라고.

그러나 불자들을 이끌어야 할 한국불교의 중심 견지동 45번지는 요즘 이런 불자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이 분주하다. 3선 출마는 된다 안된다. 교계 언론은 선거분위기 과열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 이곳 저곳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를 저울질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말만 번드르 하고, 권력만을 최고로 아는 세속정치인들에 신물이 난 불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현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이끌어 줄 참 지도자의 깨달음의 법문이다.

(ejlee@buddhapia.com)

뉴스 & 뉴스

건칠지불 통도사 소장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가 수상작 건칠지불을 21일 조계종에 기증했다.

상씨는 "큰 상 받은 작품이고 부처님 뜻이니 좋은 곳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증 동기를 밝혔다.

현재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시되는 건칠지불은 10월말까지 전시가 끝나면 약간의 손질을 거쳐 11월초 통도사 박물관으로 보내진다.

강지연 기자

'21세기 불교…' 세미나

21세기 불교연합회(회장 법조스님)은 11월5일 오후 2시 하림각 신관 2층에서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21세기 불교와 복기', 송석구 총장(동국대)이 '21세기 불교와 동양사상'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 불사硏 세미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호진)은 개원 1주년 및 동국대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28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1세기의 문명과 불교(강건기·전북대) △21세기에서 유교의 진로와 과제(금장태·서울대) △오늘과 내일의 기독교(정양모·서강대) 등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0561)77C-2506

김정은 기자

사설사암연 후원회 준비

대한불교사설사암연합회(회장 종후·노적사 주지)는 22일 본회 사무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갖고 후원회를 조직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사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후원회 조직, 현회장 종후스님을 제19대 조계종 직할교구 종회의원으로 추대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활동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회원배가 방안, 홍보및 교류활성화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일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대둔사서 초의문화제

제7회 초의문화제가 대둔사 일지암과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31일부터 11월1일까지 대둔사 초의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제는 차음악제, 투다대회, 행다시범, 차 관련 사진 전시회, 초의스님 화중 한국화그리기 등으로 진행된다.

도필선 기자

아상회 경주남산 답사

부산 동아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아상회(회장 이양환)는 18일 회원가족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남산을 답사했다.

일연태 기자

화제의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김점기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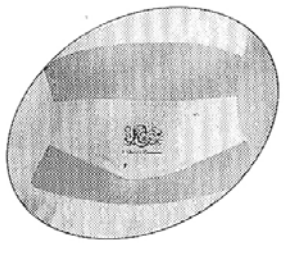
신국판 240쪽/값6,000원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buddhapia shopping mall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02-732-1522 / 737-9881, FAX. 02-737-0697)

배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016 PCS 최신기종 ·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전판 제품을 이전판 판가격
총 300여만 분께 무료습니다.

단말기 사양

모델명	0-2(한화)	4300(삼성)	4200(삼성)	4210(삼성)
크기	123×44×20㎜ (144㎤급)	116×45×23㎜	116×45×23㎜	116×45×22㎜
무게	184g (건전지 제외)	92g	91g	79g
통화시간	배터리 S 최대 90분 배터리 M 최대 120분 배터리 L 최대 210분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대기시간	배터리 S 최대 72시간 배터리 M 최대 144시간 배터리 L 최대 216시간	120시간	180시간	120시간
모시는 가격	무료	85,000	65,000	65,000

* 기종에 따른 차등 없음



신청안내

■PCS폰 신청절차

■이용요금

■유의사항

대나무 잔

원전 차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자체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좋습니다.



A7-1

크기 : 5세트 | 5~7치정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 300×60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발산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알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관재 최고 기도하시면 손재 부도업고 유변화과 저마
2. 육계 기도한 육대 부도업고 유주하여 집니다
3. 이래 부처에 올려 놓으시면 이래 경업이 현저히 증변을 가
4. 업무이나 업에 집중시면 공부이나 업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재물가 필신 일도고 기분이 상쾌하여 건강의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수월관음좌상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시어 모습의 자세나 옷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심을 변화신 형변화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신의 모습은 용현신의 숫자만큼 삼십삼신의 여러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신다고 이를 삼십삼신의 관음(삼십삼관음신)을 33화신이라고도 한다 본 작성은 수월관음좌상으로서 불자의 연꽃위에 앉아계시며 몸에 비친 상을 관(觀)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크기 : 290×300 ㎜
종류 : 수월관음좌상(금박) **가격 : ₩ 99,000**
수월관음좌상(채색) **가격 : ₩ 120,000**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품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문시 할인이실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도두 사용 하신후 남아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꽂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일반용 초로 사용하시면 안돼 됩니다

크기 : 가로 5.5㎝ 세로3.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태은함) ₩ 3,000
향초(태은함)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문화재 자원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4-1 A4-2 A4-3

금동용접 개금형 브론즈크림형

재질 : 100% 천연
종류 : 브론즈크림형, 금동용접, 개금형 크기 : ㎝

가격 : ₩ 350,000 (크림형, 금동용접)
₩ 580,000 (개금형)

선화로 가는길 四君子

"사군자"를 통하여 선화의 세계로 입문을 내딛는다.
국내 최초의 사군자 기법의 체계화 단순화 기법의 안내서가 아닌 바꾸는 분야 최적화을 지향스럽게 유도해 주는 혁신적인 책



가격 : 최고급 양장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 253쪽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원+루드라은 효과+각종과 면역기능
- 피부의 염증에서 피부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함유하여 천연의 부작용 없는 안전
- 무공해성 친환경의 원료 사용한 건강 비누

- 본사에서는 직접생산하고 공장 공개합니다. 또 기업
- 이 밖 일반 업체와 같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공장으로 부터 직접 공급받아 고객님께 드리기 때문에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 부산에 본공장과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지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공장에서도 특산기공품과 공무 이외에도 특 판

가격 : ₩ 18,000 (1세트 : 5개)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의 혼을 주입한 이한 기도 청자 세트 만들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작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세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로 좋아 기도, 기원 기도, 제사, 신소원 등등에
조립제품 : 전연 오염나무
규 격 : 청자항로(6㎝×5㎝) 4개 청자종(5㎝×4㎝) 2개 양초, 향 각 한통, 촛대 바람막이4개

가격 : 1세트 ₩ 25,000

강력한 신소재 전자파 제거장치

전자의 복제한 미세한 다이오드 타이프로 이루진 이지만 핸드폰은 gp통기체로소의 감지회를 일산하여 보증성 유선등의 방출 유형입니다. 본 제품을 붙여기면 위면 안심! 핸드폰을 들고 붙어기 전에 오일제스트 해 보고 붙이고 나서 오형제스트 해 보시면 감쪽같이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 : 휴대폰, 베이드라이기, 컴퓨터, 전기면도기, 전광판소리, TV 적서 등등 수명파
규격 : 1개 1세트

가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감전감덕을 접히 보셨습니까?
시랜듬성 별활에지면 접시라도 시간을 넣두 인디면 조합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동수 깊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액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자세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특 징 : 순금을 최대한 많게 함유 주었습니다.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순금함유5% 크 기 : 5.2㎝ × 7㎝
가 격 : ₩ 20,000

순금 함유5%

건강 옥 염주

옥은 군자의 덕에 비기며 화성학에는 천지에 정(精)이라고 하였다 옥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해 준다고 하였다 이 이 밖에도 사실로서 옥에 지닌 기를 일산하여 고질병 두통 소화불량 신경통 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보석에 버금가는 다양한 가공다음을 갖추하고 있다



종 류 : 원목 백옥염주(小) **₩ 30,000**
원목 백옥염주(大) **₩ 40,000**

앞치마

연꽃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실용 앞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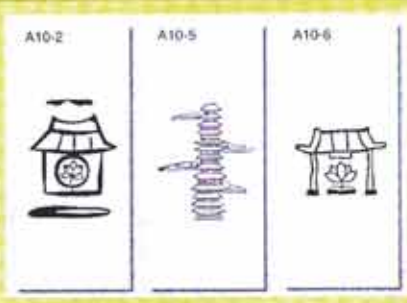


내부그림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가격 ₩ 5,000

내부그림

기도포



A10-2 A10-5 A10-6

다양한 불교적인 문양과 그림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각 기도의식에 한걸 더 부처님께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대(大)
크기 84㎝ 폭 39㎝
가격 ₩ 1,500

다포



A11-1 A11-2

기장 : 90㎝ 폭 39㎝
재질 : 면
가격 ₩ 800

반야심경 종 책걸이



A9-2

붉은 옷소리가 잘는 이의 이름을 한인에 새겨는 제품입니다
(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8,000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종 류 : 검정, 밤색, 흰색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A10-2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서웅 큰스님 불(佛)자 액자

서웅 큰스님의 불(佛)자를 금박으로 표현하여 입체감을 살린 작품입니다. 소장하시면 큰스님의 깊은 가문을 느낄실 수 있습니다



A8-1

재질 : 목
특징 : 수입제 작품
규격 : 36㎝×43㎝
가격 : ₩ 50,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의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광대신앙을 바탕으로 설법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설의 목판본에는 다음과 같은 가람이 있는데, 이 경전을 독무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든 재난을 피하고, 탈 진, 치의 심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성취한다고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로 이한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A11

재질 : 한목,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작질 : 후로칭
특징 : 본제이 걸림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내부그림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부처님의 말씀 육바라밀과 보왕삼매론을 시계에 접목시켜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장에 주시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수 있는 기회가 되실것입니다.

· 육바라밀 : 정사의 그배를 건너 이상경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 정진(精進) · 선정(禪定) · 반야(般若)이라 하는 여섯 가지 실천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질 : 백색원판에 4도칼라 / 크기 : 200×200×5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문구암스님 범음 · 범패집



1. 불공의식
2. 삼신이문
3.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권목의식 I
7. 대령 : 권목의식 II
8. 대령 : 권목의식 III
9. 영반 : 목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퇴송
18. 혼심게
19. 법사이문 : 면전청안
20. 종심 : 천수작법 · 오장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종
· 불공의식, 삼신이문, 영산작법, 대령, 권목의식을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격 : ₩ 50,000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9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 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존 불교단체 및 기존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의 사찰 조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럿의 개인 인명지로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학시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시건을 수록

4×5배판 / 1144쪽 / 한정제본 /
가격 ₩ 120,000